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 제36회 정기학술대회

주제 : 남북통일과 목회

- 일시 : 2018년 11월 10일(토) 오전 10시 ~ 오후 2시
- 장소 : 개신대학원대학교 (서울 강북구 도봉로 235 ☎02-945-0910)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KOREAN SOCIETY OF EVANGELICAL PRACTICAL THEOLOGY



# 목 차

·일정표-----	5
·알리는 말씀-----	6
·예배 순서-----	7
·주제발표1: 통일을 준비하는 목회	
발표/ 하광민 박사 -----	8
·주제발표2: 통일의 시대를 위한 현대의 실천신학	
발표/ 김선일 박사 -----	31
·자유발표1: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문 구성 분석	
발표/ 배종열 박사 -----	49
논평1/ 김대혁 박사 -----	72
논평2/ 임도균 박사 -----	76
·자유발표2: 영성생활의 해석학적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발표/ 최창국 박사 -----	80
논평1/ 조성호 박사 -----	112
논평2/ 김용민 박사 -----	115
·자유발표3: 교리설교에 대한 경험적 고찰	
발표/ 정요석 박사 -----	118
논평1/ 조광현 박사 -----	140
논평2/ 안덕원 박사 -----	144
·자유발표4: 1인가구시대의 한국교회 사명	
발표/ 강덕구 박사 -----	147
논평1/ 최승근 박사 -----	164
논평2/ 김대진 박사 -----	167
·자유발표4: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 설교에 대한 소고	
발표/ 김태범 전도사 -----	169
논평1/ 채경락 박사 -----	184
논평2/ 허찬 박사 -----	187



## 일 정 표

시간/ 내용/ 제목/ 담당	장소
10:00 - 10:30 [예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개회예배</b></li> <li>사 회: 이승진 목사 (합신대)                      기 도: 오현철 목사 (성결대)</li> <li>설 교: 조성헌 목사 (개신대 총장)                축 도: 양병모 목사 (침신대)</li> <li>광 고: 박태현 목사 (총신대)</li> </ul>	7층 예배실
10:30 - 11:20 [주제발표] (사회: 김상구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1: 통일을 준비하는 목회/ 하광민 박사 (총신대)</li> <li>■ 주제 2: 통일의 시대를 위한 현대의 실천신학/ 김선일 박사 (웨신대)</li> </ul>	7층 예배실
11:20 - 11:45 [주제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11:45 - 12:00 [기념촬영, 분반이동, 휴식]	
12:00 - 13:00 [분반 자유발표/ 발표-25분, 논평-10분, 질의응답-25분 예정]	
자유발표 제목/ 담당	부속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1: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문 구성 분석</li> <li>발 표: 배종열 박사 (개신대)                      좌 장: 신현광 박사 (안양대)</li> <li>논평1: 김대혁 박사 (총신대)                      논평2: 임도균 박사 (침신대)</li> </ul>	7층 예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2: 영성생활의 해석학적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li> <li>발 표: 최창국 박사 (백석대)                      좌 장: 문병하 박사 (KC대)</li> <li>논평1: 조성호 박사 (서울신대)                      논평2: 김용민 박사 (침신대)</li> </ul>	40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3: 교리설교에 대한 경험적 고찰</li> <li>발 표: 정요석 박사 (세움교회)                      좌 장: 이명희 박사 (침신대)</li> <li>논평1: 조광현 박사 (고려신대원)                      논평2: 안덕원 박사 (햇불대)</li> </ul>	40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4: 1인가구시대의 한국교회 사명</li> <li>발 표: 강덕구 박사 (성결대)                      좌 장: 김순환 박사 (서울신대)</li> <li>논평1: 최승근 박사 (웨신대)                      논평2: 김대진 박사 (고려신대원)</li> </ul>	30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5: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 설교에 대한 소고</li> <li>발 표: 김태범 전도사 (합신박사과정)                      좌 장: 양병모 박사 (침신대)</li> <li>논평1: 채경락 박사 (고신대)                      논평2: 허찬 박사 (백석예술대)</li> </ul>	302호
13:00 - 14:00 [중식 및 교제]	
서우식당	

## • 알리는 말씀

1.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제36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 오늘 정기학술대회의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과 주제발표와 자유논문 발표자 및 좌장과 논평을 맡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오늘 학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의 회원 여러분, 또한 여러 목회자들과 대학원 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4. 이번 정기학술대회를 위해 장소와 중식을 제공해 주시고, 원활한 학회 진행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개신대학원대학교 조성현 총장님, 그리고 모든 교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2부 자유발표를 마친 후 전체 기념촬영이 있습니다.
6. 주제발표 후 5개 분반으로 이동해 자유발표 시간이 이어집니다. 발표1(배종열 박사)은 메인장소인 7층 예배실, 발표2(최창국 박사)는 4층 401호, 발표3(정요식 박사)은 402호, 발표4(강덕구 박사)는 3층 301호, 발표5(김태범 전도사)는 302호에서 자유발표가 시행됩니다. 참석자들께서는 듣고 싶은 주제를 찾아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7. 자유발표를 마친 후, 오후 1시부터 지하철 미아역 8번 출구 앞 서우식당(샤브샤브 전문점, 2층)에서 중식이 제공됩니다. 자유발표를 마친 후에 각자 이동하여 교제와 담소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8.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의 논문집, 「복음과 실천신학」 제48권과 49권이 발행되었습니다. 본 학술지에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투고해 주신 분들과 논문집 발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9. 「복음과 실천신학」 제50권에 투고하실 분들은 11월 25일까지 논문투고신청서를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공식 이메일(keptmail@daum.net)로 보내주시고, 12월 20일까지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논문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과 실천신학」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개회 예배

인도: 이승진 목사 (합신대)

예배선언: 인도자

찬 송: 28장[통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기 도: 오현철 목사 (성결대)

성경봉독: 요 21:20-25/ 인도자

설 교: “자기 주도적 사랑법”/ 조성헌 목사 (개신대 총장)

광 고: 박태현 목사 (총신대)

찬 송: 315장[통512]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축 도: 양병모 목사 (침신대)

### ▷ 찬송가 28장[통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 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 ▷ 설교본문/ 요한복음 21장 20절-25절

- 20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 21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 23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고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하신 것이러라
- 24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 25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날날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 ▷ 찬송가 315장[통512]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1.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2.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뵈오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3. 내 평생에 힘 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까지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4.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광민 (총신대)

## “통일을 준비하는 목회”

### I. 들어가며

2017년 말, 전쟁의 위협직전까지 치달던 한반도가 2018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간의 대화와 평화의 모드로 급변하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평화의 무드로 예전과 같이 북한이 평화 공세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4.27 판문점 선언과 연이은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보듯이 남과 북의 관계에 새로운 전환기가 도래하고 있다. 남북 각국의 정부수립이 있었던 1948년을 기점으로 본다면 올해가 체제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 한반도에 분단의 구조가 해체되고 새로운 전환기의 시대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본고는 지난 70년의 분단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전환기에 선 한반도에 몸담고 있는 한국교회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한국사회와 교회

교회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예배, 말씀선포’를 포함한 경건의 삶이며 다른 하나는 ‘봉사’(diakonia)의 삶이다.<sup>1)</sup> 한국교회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감당해 왔지만 각 시대마다 시대를 품는 목회를 감당해 왔다. 분단 직후 한국교회는 상처 난 영혼들을 끌어안고 치유의 목회를 감당하였다. 북에서 내려 온 많은 실향민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 시기에 한국교회는 북에서 내려 온 목회자들이 중심 되어 새로운 교회들이 수도권에 세워졌고 그 교회들은 한국교회를 주도하는 교회들로 성장하였다.

60-70년대에는 탁월한 말씀선포로 교회성장을 이루었으며 80년대에는 기복종교나 신비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선교단체에서 사용하던 제자훈련 방식이 교회에 적용되면서 부흥회 방식을 벗어나 훈련목회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1) 도널드 G. 블러쉬, 오성춘, 최건호 역 “목회와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2) p. 210.



사회 지성인들이 복음을 접하는 계기가 되었다.

90년대에는 한국사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내부적인 에너지가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자 한국교회는 선교목회로 전환하여 젊은층을 중심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오거나 그 결과로 많은 선교사 파송을 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섬김과 돌봄의 목회로 전환하여 지역과 이웃을 돌아보고 성도간의 교제를 강화하는 소그룹과 팀사역을 강조하는 목회를 하였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각 시기마다 시대정신을 붙잡고 목회에 적용함으로써 시대를 선도해 왔었다.

그러나 2000년 대 이후 한국교회는 양적 성장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의 위상마저도 위축되고 있다. 2017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5점 만점에 2.56점인데 특히 젊은 층인 20-30대에서는 2.40점 밖에 되지 않으며 천주교, 불교 다음 순위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sup>2)</sup>

양적 성장이 후퇴하고, 도덕적 권위마저도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복음과 함께 이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이 시대가 갖는 사명은 무엇일까? 그것은 분단 한반도가 갖는 필연적 숙명과 같은 과제인 평화와 통일의 과업일 것이다. 분단의 갈등을 평화로운 한반도로 풀어가고 더 나아가 갈라진 민족이 서로 하나되는 통일이 이 시대의 과업이다.

그러나 체제 분단 70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통일의 길은 멀어 보이는 것 같은 이 시대에 통일을 말할 수 있을까? 일제 식민통치 36년과 비교해 보면 거의 두 배가 되는 분단 기간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여전히 통일이 시대적 사명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깨어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분단구조의 해체와 통일로 가는 길은 우리 민족의 숙명이고, 이 일을 한국교회가 시대적 사명으로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 III.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의 사명이 평화와 통일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서두에 말한 대로 2018년부터 한반도는 전환기에 이르렀다. 분단구조를 해체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9.19 평양공동선언의 1조에 의하면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실질적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 적대관계 해소’라는 용어는 그간의 분단구조를 떠받치고 있던 유효적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의미이다. 이

2)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http://www.bonhd.net/news/articleView.html?idxno=2328>

를 위해 향후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게 되며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다자간 평화협정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이 시기는 통일 전 단계인 평화구축과 평화교류의 시기로 접어든 것이다.

평화구축과 평화교류의 시기는 통일을 꿈꾸던 많은 개인과 단체들에게 어찌면 새로운 도전의 시기이기도 하다. 꿈에도 그리던 통일을 바랐지만 정작 분단구조의 해체 없이 통일로 직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일 통일을 무리하게 시도하려면 무력 통일 내지는 한쪽으로의 흡수 통일 밖에 없는 상황이다. 둘 다 여파가 너무 크기에 감당할 수가 없다. 무력을 통한 통일은 그 후유증을 감당할 수 없으며, 흡수통일 역시 남한에 온 3만 여명의 탈북민들의 정착의 예를 통해서 보았을 때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선 경험 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에 대한 생각은 저 멀리 내려놓을 수 밖에 없는 시기가 평화구축과 평화교류의 시기이다. 주어진 당면과제는 현재 한반도의 분단구조의 해체이며 평화적 전환기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통일은 그 뒤에나 이루어질 일일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평화구축과 평화교류 시기에 앞으로 한국교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한국교회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그것은 탈북민에 관한 것이다.

#### **IV. 한국교회는 북민을 매개로 하는 사역을 어떻게 해 왔는가?**

평화구축과 평화 교류의 시기 이전에 한국교회는 통일의 담론의 주요한 매개체로 탈북민을 맞이하였다. 분단의 시기에 탈북민의 출현은 통일의 마중물로 여겨졌다. 탈북민의 국내 입국은 1990년 중반에 북한에 있었던 대기근,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으로의 도강 이후 국내로 유입되게 되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대북인도적 지원 및 교류를 강조하였기에 탈북민 이슈는 수면 밑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탈북민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들을 위한 긍휼사역과 정착사역을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탈북민을 매개로 하는 각종 사역들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펼쳐지게 되었다.

##### **1. 한국교회의 탈북민 선교의 역사**

90년 대 중반에 북한에 닥친 자연재해로 아사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행렬이 줄을 잇게 되었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것이다. 북중접경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숨어 들어온 북한주민들은 숨을 죽이며 삶을 위한 투쟁을 하게 되었다.

당시에 많은 조선족 교회와 한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이들은 복송과 탈북을 반복

하면서 삶의 터전을 중국으로(결혼 여성들) 정하거나 또는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다.

<표1><sup>3)</sup>

## □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단위 : 명)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5 상장	합계
남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88	42	9,035
여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363	22,709
합계	947	1,043	1,142	1,285	1,9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405	31,744

당시 한국정부의 상황은 김대중 정부의 남북교류가 시작되던 시기였기에 탈북민 이슈가 전면에 떠오르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제3국 탈북자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기에 물밑에서 진행하였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시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남북정부의 공식관계가 유지되는 한에서는 탈북민 이슈는 공식적으로 언급하기가 양측이 꺼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10년 동안의 온풍이 불었던 남북관계는 다시금 냉랭해지기 시작했다. 금강산관광을 갔던 남한 관광객이 피살되고(2008년 7월), 천안함 폭파사건(2010년 4월)과 연평도 포격사건(2010년 11월)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파탄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정부는 5.24 조치를 발표하게 되었다. 그것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 그 여파로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 놓은 남북교류의 관계는 파탄직전까지 가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새로운 남북관계가 열리는 가 싶었다. 2014년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용어 하나로 하루 아침에 통일 바람이 불어오는 듯 하였으나 실체가 없는 내용임이 드러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 이후 2016년 2월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결정하게 되었고 마지막 남아 있던 남북관계의 실험의 장이 폐쇄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내내 남북관계는 냉각기를 가지게 되었고 그 여

3) <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 에서 인용.

파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에 형성되었던 남북교류의 시기를 통해 태어난 많은 대북인도적 지원단체들은 이 기간에 고사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보수 정권 10년 동안에 통일선교의 한 축이 형성 되었는데 그것은 탈북민을 매개로 하는 사역이다. 탈북민들의 국내 입국은 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진보정권 시기에 발생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탈북민의 사역이 통일선교의 주된 사역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당시 정부는 북한정부와의 공식적 접촉에 무게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다음의 보수 정권 10년에는 공식 루트가 막힌 상황이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탈북민이 통일선교의 많은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북한을 직접 상대하는 교류와 협력 사역이 사그러지자 남은 사역은 탈북민 사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일선교 사역의 큰 틀은 어떤 것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탈북민을 매개로 하는 사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 2. 탈북민을 매개로 하는 통일선교

통일선교 사역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 |                |          |           |
|----------------|----------|-----------|
| 1) 대북직접사역      | 2) 통일기도회 | 3) 제3국 사역 |
| 4) 탈북민 교육 및 정착 | 5) 통일공동체 | 6) 통일선교교육 |

대략적으로 통일선교사역이 위의 구분과 같이 진행되어질 때 각 영역 안에서 탈북민을 매개로 하는 사역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 대북직접사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역의 영역에서 탈북민을 매개로 하는 사역은 진행되었다.

### 1) 탈북민 교육사역

교회나 선교단체가 하는 탈북민 교육과 정착 사역 역시 지난 시기 동안 활발하게 일어났다. 여명학교나 하늘꿈학교를 비롯한 탈북민 대안학교가 일어서게 되는데 아래의 표를 보면 대부분 보수정권 10년 사이에 생겨난 학교임을 알 수 있다.

<표 2>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리스트

### 교육부 학력 인정 학교

학교	설립년도	지역	운영주체	담당자
1. 한겨레 중 고등학교 -	2006년	경기도 안성	원불교	교장 - 곽종문

2. 여명학교	2004년	서울 명동	기독교	교장 - 이흥훈 교감 - 조명숙
3. 하늘꿈학교	2003년	경기도 성남	기독교	교장 - 임향자목사

### ### 대안학교

학교명	설립년 도	지역	운영주체	담당자
1. 한꿈학교	2004년 4월	경기도 의정부	기독교	교장 - 김두연
2. 우리들 학 교	2010년	서울 관악구	기독교	교장 - 윤동주
3. 다음학교	2012년	서울 서초구	기독교	교장 - 전준
4. 반석학교	2007년	서울 서초구	기독교 - 사랑의 교회	교장 - 길이진 전도사
5. 장대현학교	2014년	부산	기독교	교장 - 임창호 목사
6. 해솔직업사 관학교	2013년	강원도 춘천	?	이사장 - 김영우
7. 두리하나국 제학교	2009년	서울 서초구	기독교	교장 - 천기원 목사
8. 한민족학교	2008년	서울	?	교장 - 최옥

### ### 방과후학교

학교명	설립년 도	지역	운영주체	담당자
1 삼정학교	2010년	서울 노원구	?	교장 - 채경희
2 큰샘학교	2012년	서울 강남구	자유탈북 민협회	대표 - 박정오
3. 미래소망	2014년	서울 노원구	소망교회	대표-이승재목사
4. 물망초	2012년	경기도 여주		이사장 - 박선영
5. NK 영락국제학교	2012년	서울 중구	영락교회	대표-이철신목사
6. 한터	2010년	서울 강서구	온누리교 회	대표-이재훈목사
7. 새일아카데미	2011년	서울 동작구	기독교	대표-조요셉목사
8. 한벗학교				대표-김윤희
9. 새꿈터				대표-안혜란

10. 하안누리지역아동센터			대표-김명아
11. 성비전학교	2014년		대표-송신복목사
12. 경북이주민센터			대표-지민겸
13. 한민족학교			대표-최화숙전도사
14. 자유터평생학습원			대표-이옥재
15. 겨레얼학교			대표-순영옥
16. 청주 YWCA		일산	대표-이창호
17. 전주 YWCA			대표-조미영
18. 가양7종합복지관		서울 강서구	대표-김민섭
19. 창포종합사회복지관			대표-김종운
20. 부천덕유사회복지관			대표-홍갑표
21.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대표-배영길

## 2) 통일공동체사역

탈북민의 꾸준한 증가는 통일공동체 사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통일공동체란 남과 북이 함께 하는 기존에는 탈북민을 북한선교의 한 대상으로 보았으나 이들이 한국 땅에 정착하면서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더 이상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목회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다. 그로 인해 통일공동체가 생겨나면서 통일목회라는 새로운 용어와 사역의 장이 펼쳐지게 되었다.

한선통일목회연구소장 송원근 박사에 따르면 “통일목회는 교회 안에 탈북민 유무와 상관없이 실시해야 하는 목회”라고 정의하며 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선물인 남북통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sup>4)</sup>

필자는 통일목회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싶다. “통일목회란 만유의 통일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힘입어 성령의 하나되게 하시는 능력으로 현재의 분열을 넘어 용서와 화해를 만들어 가는 복음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로 인해 다가올 통일 이후 시대에도 적용될 목회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복음은 문화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과 북의 다른 문화를 수용하여 복음문화를 만들어가는 힘이 있다. 통일목회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는 목회이다”

통일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문화가 이질적임을 인식하고 그 이질성을 복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되기 위한 목회를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질적 문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하는데 추상적 개념이 아닌 실체적인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을 끌어 안는 목회가 필요하다.

4) 송원근, “통일목회가 교회의 살 길이다”, (서울: 포앤박스, 2017), p. 178.

통일목회를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교회에 대한 개략적 구분이 필요하다. 이를 필자는 3가지 유형의 교회로 구분해 본다.

### 2.1) 1유형의 남한교회

1유형의 교회는 분단 후 70여 년 동안 남한 중심의 문화로 이루어진 교회이다. 남북교류가 끊어진 이후 남한 중심의 문화로 태생된 남한교회이다. 2000년대에 탈북민들이 1유형의 남한교회에 들어와서 정착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남북의 이질적 문화에 대한 자각이 생겨나면서 한국교회는 나름대로의 고심을 하면서 태동된 것이 1.5유형의 모습이다.

### 2.2) 1.5유형의 남한교회

1.5유형의 남한교회는 1유형의 남한교회를 벗어나서 북한에 대한 이해와 열린 마음을 가진 교회로서 교회 내 통일과 북한관련 소모임이나 부서를 가진 교회를 가리킨다. 정기적 모임이 있으며 통일에 관한 교육이나 기도모임 또는 예배로 모임을 갖는다. 전국 교회에 100여 개 정도 분포해 있다.<sup>5)</sup>

### 2.3) 2유형의 남북교회

2유형의 교회는 남과 북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교회이다. 남북의 이질성을 복음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교회이다. 아래의 표3, 4는 탈북민들과 남한 목회자들이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한 현황인데 이들 교회에는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다.

<표3> 탈북민 출신 목회자의 교회개척

1	열방샘교회(합동) 2004년	16	평양산정현교회 2013년 / 서울 강서구 등촌동
2	새터교회(감리교) 2004년	17	새생명교회(통합) 2013년 / 경남 창원시
3	창조교회(통합) 2006년	18	그날교회(합동) 2014년 / 서울 도봉구
4	서평교회(나사렛) 2008년? 천안	19	거룩한길교회 2014년 / 가정교회
5	하나로교회(개혁선교) 2009년 / 경기도 부천시	20	복음문화교회(통합) 2015년 / 서울 강서구
6	하나비전교회 2009년 / 경기도 평택시	21	인천 한나라은혜교회(합동) 2015년 / 인천 남동구

5) 이는 필자가 2017년에 실시한 조사인데 기존의 통일선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교회와 단체들 중심으로 파악한 숫자이다. 서울 35개, 경기 17개, 인천 3개, 부산 11개, 대전 5개, 광주 6개, 대구 2개, 전주 3개, 춘천 1개, 울산 1개, 목포 3개, 제주 2개

7	순복음꿈의교회(기하성) 2009년 / 경기도 포천시	22	노원 한나라은혜교회(통합) 2016년 / 서울 노원구
8	한민족사랑교회(합동) 2009년 / 경기도 군포시	23	다민족공동체교회 2016년 / 서울 금천구
9	기쁨나눔순복음교회(기하성) 2010년 / 서울 양천구 신월동	24	은혜세대교회 2017년 / 서울 양천구
10	새희망나무교회(통합) 2011년 / 서울 양천구 신정동	25	하나은혜교회(통합) 2017년 / 경기도 의정부시
11	하나로교회(합신) 2011년 / 서울 금천구 가산동	26	한소망교회(통합) 2017년 / 서울 동작구 상도로
12	한백선교회(통합) 2012년 / 제주시	27	북부중앙교회 2017년 / 서울 도봉구
13	하나목양교회(통합) 2012년 / 서울 양천구	28	생명나무공동체(감리교) 2018년 / 서울 영등포구
14	길동무교회(통합) 2012년 / 강남구 개포동	29	생명창대교회(합동) 2018년 / 서울 서대문구
15	성지에서온교회(통합) 2013년 / 서울 동대문구	30	주의평화교회(감리교) 2018 / 서울

<표4> 남한 출신 목회자 교회 개척

1	주찬양교회(합동개혁) 2003년 / 경북 포항	11	물댄동산교회 2007년 / 서울 동작구
2	여의도순복음새평양교회(기하성) 2004년 / 서울 양천구 12	12	황금종교회(합동) 2010년 / 서울 영등포구
3	상인제일교회(통합) 2005년 / 대구광역시 달서구	13	뉴코리아교회(고신) 2011년 / 서울 강서구
4	한꿈교회(합동) 2005년 / 경기도 의정부시	14	은암선교교회(감리교) 2011년 / 서울 송파구
5	한반도사랑교회(기하성) 2005년 / 광주광역시	15	서평한우리교회 2012년 / 인천 강화군
6	침단 포도원교회(백석) 2006년 / 광주시	16	예수마음교회(독립) 2012년 / 경기도 김포시
7	두리하나교회 2006년 / 서울 서초구	17	은혜교회 2012년 / 서울 노원구
8	새사람교회 2006년 / 경기도 수원시	18	행복이넘치는교회(백석) 2013년 / 직장교회
9	평화교회(감리교) 2006년 / 인천 남동구 논현동	19	생명나래교회(합동) 2014년 / 서울 관악구
10	장대현교회(고신) 2007년 / 부산 사하구		

이러한 통일목회 공동체의 증가로 탈북민을 매개로 통일선교운동이 기존의 선교단체나 NGO 중심의 사역에서 교회 중심의 사역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통일목회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 한국교회에 점진적으로 확산



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sup>6)</sup>

2.4) 3유형의 교회 - 통일 이후 한반도 통합교회

통일 이후에 한반도 전역에 세워질 통합교회이다. 분단으로 인한 차이를 복음으로 극복하고 한반도 전역에서 세워질 이상적 교회이다.

1~3유형의 교회의 논의를 좀 더 세분화 하면 아래와 같다

	1유형 교회	2유형교회	3유형교회
문화	남한문화	남북한 문화 융합	통일한반도문화
선교성	자문화중심적	이질문화(남북) 수용적	타문화 수용적
성경적 교회상	예루살렘교회 (유대인)	행 11장 안디옥교회 (유대인과 이방인)	행 13장 안디옥교회 (선교적교회)
목회자 구성	남한목회자	남북목회자	통일목회자
목회지역	남한	남한 & 가능한 선교 지역	통일한반도 전역

위와 같은 교회 유형의 논의가 가능한 것은 탈북민의 등장으로 인해 남북의 차이를 인지하게 되었고, 향후 통일을 이루고 한반도 목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북한현지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였다.

3) 통일선교교육

통일선교교육에 있어서도 탈북민들을 매개로 하는 영역이 점점 커져갔다. 한국교회의 연합기구이며 통일선교교육에 앞장섰던 곳이 있다면 한기총 산하의 통일선교대학일 것이다. 1999년 한기총 통일선교대학 가을학기 강의안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표5> 한기총 통일선교대학 1999년 가을 강의안<sup>7)</sup>

	강사	강의제목
10/21	유석렬(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10/28	허문영(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장)	주변 열강과 한반도 정세 전망
11/4	양영식(통일부 차관)	현 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환경
11/11	홍정근(장신대 기독교교육연구원)	한국교회의 통일교육방안
11/25	박완신(관동대 북한학 교수)	북한의 정치와 종교정책

6) 통일목회를 위한 한국교회의 분석은 다음을 참조하라. 하광민, “통일선교목회와 한국교회” (서울: 기독교통일포럼, 2015년 기독교통일포럼 Annual Report, 2016) p. 86-108.

7) 한기총 통일선교대학 “새천년 복음통일을 준비하라” 1999년 10월 강의안 참조.

11/30	박광식(안보문제연구원장)	북한 경제 체제의 특성
12/2	서경석(우리민족서로돕기 사무총장)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사와 발전방안
12/7	김병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주체사상으로 본 북한이해

여기에는 아직 탈북민 강좌가 들어가 있지 않다. 또 다른 선교단체인 모통이돌 선교회의 2009년 북한선교학교 과정을 보면 총 12주 강의 중에 “새터민 청소년 대안학교의 현황과 북한선교“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KPI)과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새터민 지원:전문 사역자 교육프로그램’을 개최하면서 “2007년 탈북자 만 명의 시대를 기록하면서… 매우 이질화 되어 있는 남북한 사람들이 통일 이후 가지게 될 갈등과 그 해결방안을 미리 보여주는 분들로서… 많은 교회들이 통일과 탈북자 지원 사역을 준비하고 시행하면서 이러한 사역을 위한 전문 사역인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한다.(한반도 평화연구원, 제 1회 한반도평화교실, “새터민지원“(2008년), p.5.)

교회의 통일선교교육사역 역시 마찬가지이다. 영락교회의 2006년 제14기 북한선교학교의 과정에도 “영락교회 자유의사람(탈북민) 공부반 활동보고“와 탈북민 간증이 포함되어 있다. 남서울은혜교회 역시 2004년 통일선교강좌에는 7주과정의 교육 중에 무려 4개의 주제가 탈북민에 관한 내용이다. “탈북민들의 기독교 수용과정 연구”, “탈북민과의 대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탈북난민과 교회의 통일선교“ 등이 그렇다.

사랑의교회 역시 2011년 10주의 북한선교 심화교육과정에 탈북민 관련 주제가 두 개나 포함되어 있다.

<표6> 사랑의교회 북한사랑의선교부 북한선교심화교육과정(HENK) 2011년도 교육과정<sup>8)</sup>

구분		주제 및 강사	강의 내용
북한선교총론	10/9	김영수 교수(서강대)	북한의 최근동향
	10/16	박영환 교수(서울신학대학교수)	북한선교 및 통일의 성경적 기초와 소명
	10/23	동용승 교수(삼성경제연구원)	경제로 보는 통일한국의 비전 각론
각론	10/30	전우택 교수(연세대)	남북간의 벽(상처) 허물기
	11/6	북사랑 남한 봉사자	새터민 양육, 교육 사례를 통한 북한선교교육

8) 하광민, “한국교회 통일교육의 방향”, (총신대학교 부설 교회선교연구소, 2011), p.76.

선교수련회	11/11-12	윤환철 국장(KPI 사무국장0	오감충만 북한선교(체험활동)
		북한내지선교사	북한선교의 실제
		황우승 개성공단 신원에벤에셀 법인장	비즈니스를 통한 남북교류 경험사례
		선교수련회- 강화도, 서부전선	일원 안보관련 시설 탐방
각론	11/20	탈북형제들	좌담: 탈북자들의 북한선교
	11/27	하광민 목사(사랑의교회 북한사랑의선교부 담당)	북한선교의 소명

통일선교교육에 있어서 탈북민들에 관한 교육이 항상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최근에 진행되는 모든 북한선교교육 내지는 통일선교학교에 동일한 현상이다.<sup>9)</sup>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일선교의 현장성 내지는 실제적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 중심의 선교이기 때문이다. 대북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사람 중심의 실제적 탈북민 사역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 4) 통일기도회

2010년대부터 통일기도회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2011년), 에스더기도운동의 통일광장기도회(2012년), 명성교회 중심의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2015년) 등의 기도회가 생겨났다. 통일기도회 역시 많은 경우에 탈북민들이 말씀을 전하는 강사진으로 세워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통일기도회를 이끌어 가는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매주마다 드러지는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매달 한 번씩은 탈북민 사역자가 설교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탈북민들을 직접 대상하는 통일선교 사역자와 기관, 그리고 교회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성장하고 통일선교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탈북민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역하는 것은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까? 탈북민이 분단된 한국사회에 가져온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분단 후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이론적으로 접하던 북한주민의 사상과 내재화된 의식체계, 더 나아가 생활문화 등을 체험하면서 향후 2400만 북한 주민들을 미리 대상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 것이다. 이

9) 통일소망선교회의 북한선교학교나 기독교 통일전략 연구센터의 “통일과 꿈학교” 등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탈북민 관련 강의는 항상 들어가 있다.

른바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다. 그래서 탈북민을 ‘하나님이 미리 보내주신 통일의 선물’이라고 지칭하는 것이다.<sup>10)</sup>

둘째, 탈북민들은 통일 후 북한교회를 재건할 미래의 선교사로 미리 준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남한의 분단 세월이 70여 년이 넘었고 그간의 달라진 문화로 인해 북한 주민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고향 땅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울 주체는 탈북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그로 인해 지금부터 남과 북이 함께 하는 교회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세워지게 된 것은 탈북민 성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남과 북이 함께 하는 교회는 향후 통일한반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탈북민의 존재는 남북관계가 팍 막힌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통일논의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역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향후 한국교회가 북으로 올라가는 디딤돌이 된 것이다.

## V. 평화협력과 교류의 시대 도래에서의 탈북민 매개의 선교의 변화

이처럼 탈북민을 매개로 한 사역을 주축으로 하던 통일선교와 목회는 급작스럽고 조심스러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교회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맞이하면서 한국으로 내려온 탈북민이 아닌 향후 북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물론 비핵화 과정이 험난하고 먼 여정이지만 적어도 이 방향에서 정책이 추진된다면 한국교회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논의되어야 한다.

우선 탈북민을 매개로 하던 한국교회에는 어떤 변화들이 오게 될 것인가?

### 1 탈북민의 감소

남북평화교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대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지난 정부의 대북협력기조와는 다르다. 지난 정부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대세였는데 이는 북한의 경제의 붕괴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북협력은 종전선언을 넘어서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더 나아가 북한의 경제살리기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지는데 이는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북한경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 되어질 경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경제살리기 운동 결과로 탈북자의 수는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실제로 올해부터 탈북민의 국내 입국수가 감소하고 있다. 매년 1000여명씩이었는데 올해는 800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0) 조요셉, “북한선교의 마중물, 탈북자”, (서울: 두날개, 2014), p.33.

다.<sup>11)</sup>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향후 탈북민의 감소는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2 탈북민 감소로 인한 탈북민 매개의 사역 위축

탈북민이 감소하게 될 경우 그간의 통일선교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탈북민 대상 사역들은 위축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유입이 있어야 사역이 가능한데 공급이 되질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역의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시기가 얼마나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단기간 내에 탈북민의 국내 유입이 줄어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탈북민은 북한 내 탈북민과 중국내 여성들과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데 북한 내에서의 탈북은 잦아들겠지만 중국 내에 머무르는 탈북여성들과 자녀들은 불안한 환경에서 언제든지 한국으로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5년 이상 정도는 적지만 꾸준하게 한국행을 택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그렇다면 탈북민 사역은 적은 형태로 어느 정도 축소되어 지속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사역적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 대안학교는 당장 존폐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탈북민의 감소가 현실화 된다면 현재의 탈북민 대안학교는 양극화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미 자리 잡은 규모있는 학교와 소규모의 학교 형태만이 남을 것이다. 북한에서 직접 탈북하는 주민들의 수가 줄어들 경우 탈북청소년들의 수는 더욱 적어질 것이다. 이미 탈북민 대안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국에서 출생한 학생이며 대안학교들은 이들을 위한 중국어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줄어들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탈북민과 함께 하는 교회들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탈북민 위주의 교회들은 향후 탈북민 감소라는 쓰나미 앞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탈북민 새신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남한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공동체라면 기존의 성도들로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탈북민 위주의 교회들이 자립이 어려운 상황인데 향후 목회의 더 큰 어려움은 예상되는 바이다.

그러면 기존 1유형과 1.5유형의 한국교회는 탈북민의 감소 시대를 맞아서, 더 나아가 남북 평화교류의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현재 전국에 1.5유형으로 분류되는 교회는 100여개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1.5유형은 탈북민 감소와 함께 동반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년간 탈북민 사역으로 확장된 사역 공간이 현재까지의 모습이라면 향후 탈북민이 감소하는

---

11) <https://www.voakorea.com/a/4356567.html> 에서 인용.

상황과 아울러 새롭게 더 탈북민 사역을 위한 부서를 세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렇다면 1.5유형의 교회는 탈북민 사역을 중심으로 하기 보다는 새로운 통일 환경 내에서 출구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그 출구는 대북직접 교류로 교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 탈북민 사역은 북한직접교류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역부서가 세워지더라도 탈북민 사역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탈북민의 존재를 탈북민 정체성을 계속 유지시키며 가야 할 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유형의 교회는 그 동안 기도로 준비만 하던 단계에서 새로운 통일선교환경에서 북한을 품고 움직이려고 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탈북민 사역보다는 북한 직접 대상을 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로 인해 탈북민 사역을 적극적으로 품어왔던 1유형의 한국교회는 탈북민사역에서 한 걸음 물러날 것이며, 탈북민 사역의 큰 보호틀이 점차 좁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많은 탈북민 신학생과 목회자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의 앞날이다. 탈북민사역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게 되면 탈북민 목회자의 설 자리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1유형의 교회가 이들을 받지 않으면 현실적인 대안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인데 탈북민 감소의 시대가 오게 되면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탈북민 사역자가 한국교회 내에서 설 자리가 좁아지게 되면 이것은 가장 원치 않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탈북민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는 통일선교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역의 장을 열었고, 탈북민은 한국교회를 가장 믿을만한 집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에게 가장 기대가 높은 집단은 기독교이기 때문이다. ‘2017 북한종교자유백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만1765명 가운데 현재 종교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교(28.0%) 불교(10.1%) 천주교(9.5%) 순이었다.<sup>12)</sup>

그런데 상황이 변했다고 한국교회가 이들을 배척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는 탈북민 사역자들을 위시한 탈북민 전체 사회와 한국교회 양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쓰면 뵈고 달면 삼키는 식의 사역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탈북민을 매개로한 사역의 구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탈북민들이 통일선교에 있어서 설 자리는 어떻게 마련해 갈 것인가?

### 3. 한국교회와 탈북민 각자의 노력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간의 평화교류가 일어나게 되면서 펼쳐질

1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66422> 에서 인용.

상황은 탈북민을 매개로 하는 통일선교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 향후 남북평화교류의 시대에 탈북민들은 디딤돌인가? 아니면 걸림돌인가?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통일선교는 탈북민을 디딤돌 삼아 진행되어 왔었다. 이제 평화교류시대에도 한국교회는 이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어떻게 도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을까? 북한정부가 이들을 외면하고 도외시 한다면 어떻게 이들과 함께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꿈들을 실현할 수 있을까?

현재 탈북민 사회에서는 ‘또 다시 한국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야 하나’ 자조 섞인 말들이 오가고 있다. 이들이 평화교류체제에서 외딴 섬이 되거나 반대세력이 되었을 때 전반적인 통일선교에 있어서도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다.

이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을 열어가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첫째,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남한사회에 탈북민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쉽게 거두거나 지지를 철회하지 않기를 바라며 끝까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기독정신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정책적 지지이며 다른 하나는 교회가 탈북민을 차별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책적 지지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교회가 탈북민을 차별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을 성도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하거나 다른 시각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같은 성도로 함께 가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둘째, 그러나 달라진 남북간의 관계에 있어서 탈북민들을 품고 가기 위해서는 탈북민을 도외시하는 정책을 쓸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주도가 되어 한국정부로 하여금 북한정부에게 탈북민의 존재를 인정해 주기를 외교적으로 촉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탈북민들의 존재는 북한정부가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난민으로서 북한정부에 일정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대한민국이 품었으며 또한 한국교회가 주축이 되어 그들을 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북한에게 탈북민의 존재를 정치적, 외교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끊임없이 협상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실제적 예를 들자면, 남북 이산 가족상봉의 대상자에 탈북한 지 20년이 넘으면 이산가족으로 남북이 인정하여 상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정책을 한국교회가 발의하여 한국정부로 하여금 북한정부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며 이러한 정책을 경제정책과 연동하여 추진하게 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해방 후와 한국전쟁 이후의 실향민들과 90년대 후반부터 생겨난 탈북민들이 받던 북한의 정부는 같은 김씨 정부인데 반해, 실향민들은 이산가족으로 인정되고, 탈북민들은 이산가족상봉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을 부각시키면 남북화해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셋째, 향후 탈북민들의 남한행 숫자의 감소는 한국전쟁 가운데 남한으로 내려온 실향민의 존재와 오버랩이 된다. 탈북민이 탈북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탈북민의 공급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해 탈북민 사회가 분단 시기에 향후 북한을 품고 올라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유입이 되지 않으면 한국전쟁 이후에 북으로부터의 유입이 끊어졌던 실향민의 존재와 같아진다는 의미가 된다. 당시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한 실향민의 정확한 수는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100만명에 육박한다.<sup>13)</sup> 현재 탈북민 수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향민들과 그들의 후손의 현재의 정체성은 북한사람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분단 이후에 북으로부터의 사람의 유입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향후에 탈북민의 유입이 감소되거나 끊어지게 되면 현재의 탈북민 공동체도 실향민이 겪은 과정, 즉 남한화의 과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방향이 현실적인 방향이기도 하다. 향후 평화교류의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탈북민의 정체성으로서는 이 거대한 물결에 주도적인 일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남한사회에 더 정착하여 실력을 준비하여 앞으로 어떤 환경에도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향후 북한에서 경제 재건을 할 때 이들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해외의 좋은 사례가 있는데 베트남을 떠난 베트남 사람들, 이른바 '보트 피플'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의 공산화로 조국을 떠난 100만명의 보트 피플이 북미, 유럽, 호주로 나갔는데 이들이 나중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100~200불씩 정기적 송금을 함으로써 90년대 베트남의 경제 개혁에 도움을 주었고, 2000년대에 베트남이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하고 해외 투자자를 모집했을 때 모두가 외면했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논리를 펴며 베트남 정부는 아래와 같이 해외로 나간 동포들을 설득했다. "한 때 조국을 등지고 떠났던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조국에 봉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안 해외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조국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국적을 불문하고 얼마든지 베트남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조국에 투자를 한다면 투자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공할 것입니다."<sup>14)</sup>

13) <http://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에서 인용, "전쟁 직후인 53년 사회부(현 행정자치부)가 추산한 북한 피란민 숫자는 61만8721명. 그러나 77년 서울대 권태환 교수는 65만명, 81년 이북도민회는 164만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수치들은 전쟁 중 피란민에 국한된다. 실향민 총수는 여기에 광복~6·25 발발 이전 38선을 넘어 내려온 사람들을 합해야 한다. 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전쟁 피란민의 약 48.7%. 이들을 더하면 전체 실향민은 약 92만~244만명이 된다. 당시 숫자를 현재까지 인구 증가율(128.3%)로 계산하면 월남 '실향민 가족'은 약 210만~557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려면 현재 남한 내 탈북민들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노력이 자체적으로 또한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자체적으로라 하면 탈북민 스스로가 향후 평화통일체제에서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당당히 북한에 올라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고, 국가적으로라 하면,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 현재의 탈북민 정착 정책을 좀 더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말한다.

## VI. 남북평화교류시기를 준비하는 한국교회의 목회

지금까지 지난 20년간의 통일을 준비하는데 매개체로 사용된 탈북민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교회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향후 남북평화교류시기에는 탈북민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은 매우 제한적인 영역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이 시기를 맞이해야 할 것인가?

### 1. 평화에 대한 성경적 고찰과 평화 실행하기

한반도 분단은 한국교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북한 지역에 흥왕했던 기독교 역사를 뒤로하고 남한으로 내려온 후 북한 정권은 한국교회에게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집단이 되었다. 분단기 내내 한국교회는 통일을 외쳤지만 내심 북한정권의 붕괴 및 남한체제로의 흡수통일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향후 한반도의 체제는 이보다는 남북간의 평화정착 및 교류체제로 나아갈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럴 경우 적대적 체제와의 평화적 공존이라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적대국 일본과도 한일기본조약(1965년), 중국과도 수교(1992년)를 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 비핵화라는 큰 산이 있지만 이를 넘어서면 적성국 북한과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한국교회는 분단의 가장 큰 상처를 받은 피해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평을 실천하는 목회로 거듭나야 한다. 우선 우리 안에서 평화의 담론을 확산시키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남북자유왕래 시기에 더 많이 올라가고 부지런히 다녀서 남북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목회자는 평화에 관한 성경적 묵상과 이에 기반한 설교를 나누어서 성도에게 남북평화교류 시대를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막연한 통일에 대한 기대나, 오지 않을 것 같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성도들로 하여금 통일 이전의 평화교류시기에 평화의 의미와 가

---

14) 신영욱, “베트남 보트피플에 비추어 본 탈북민의 역할”, (2016년 1월 27일 황부기 통일부 차관의 인천 방문 시 오찬 간담회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을 사후에 통일부 요청에 의해 정리 보완한 자료), p. 4.

치를 설명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눅 2:14) 깊이 묵상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갖는 평화의 능력을 실행할 수(마 5:9) 있도록 해야 한다.

## 2. 평화교류시기에 교회 내 통일선교부서 또는 대북교류부서 만들기

남북평화교류시기는 궁극적으로 남북간 자유왕래를 실현하고자 함이다. 우선적으로는 기업 중심의 한반도 경제살리기 운동이 일어나겠지만 민간차원으로는 관광이나 향후 개인 비즈니스 등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북한복음화의 간접선교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북한 간접선교를 하게 될 때에는 북한주민을 최대한 많이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열린 공간 즉 관광지나 비즈니스 현장으로 최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독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금강산이나 개성관광이 열리면 교회 모임을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회 내에 북한관련 부서를 만들어서 실제적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서를 통해서 교회 내에서 평화교류와 통일선교에 관한 교육을 함께 병행하게 하여 향후 북한 복음화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3. 사역자 준비하기

평화교류시기의 종착점은 통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통일의 시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갑작스러운 통일이 될 수도 있거나 영구 분단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준비하는 자의 손에 있다는 말을 믿으며 한국교회는 통일 이후의 북한교회를 세울 사역자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사역자의 준비는 크게 두 방향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 1) 탈북민 사역자 준비

평화교류시기에는 탈북민의 역할이 제한적이나 통일 이후에는 탈북민이야말로 북한복음화와 교회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주체가 될 것이다. 현재 탈북민 목회자들은 '북한기독교총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모여 있는데 이곳에 소속된 신학생, 목회자들이 100여명 정도 된다. 40여명 정도가 교회를 개척하였고, 나머지는 신학생이거나 일반 사역을 하고 있다.

### 2) 남한 사역자 준비하기

위에서 보듯이 탈북민 사역자들이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기에 북한교회 세우기에는 남한사역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남한사역자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것은 교회와 신학교가 함께 연동하여 양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신학교내에 북한선교나 통일목회 관련하여 학과가 개설되어 있거나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신학교는 거의 없다. 최근에 송실대에서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의 석

박사 과정을 개설하였지만 신학교 과정이 아니기에 각 교단 신학교 내에 향후 북한교회 세우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정을 개설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이 과정을 마치면 한국교회 내에 개설된 북한, 통일 관련부서 사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교단 내의 관련 기관에서 연결시키는 일을 한다면 교학협력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 4. 통일한반도교회 준비

지난 20년 동안에 한국교회에 탈북민의 등장과 그들과의 목회적 경험은 현재 남한교회 중심의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론이란 성경적 교회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문화 중심의 교회를 일컫는다. 향후 통일한반도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현재의 남한교회에서 통용되어지는 관습이나 제도가 북한주민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몇 가지 향후 논의 과제들을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 4.1) 복음과 교회의 본질에 대한 고민

남북의 이질적 문화를 마주하게 되면서 다시금 복음의 본질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된다. 다른 것을, 원수 된 것을 하나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시 목상하며 이를 담아낼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한반도교회론을 만들어 가야 한다.

##### 4.2) 교회의 공동체성 갱신

한국사회의 특징이 개인주의이며 심각한 가정의 해체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집단주의에 기반한 사회이다. 온전한 가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남한사회와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북한주민을 포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 4.3) 이질적 언어와 감성으로 인한 성경, 찬송 사용에 대한 문제

남북의 언어가 많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역본의 성경을 사용할 것 인지를 준비해야 한다. 찬송가도 남북의 정서를 반영하여 새롭게 개정되어야 한다.

##### 4.4) 사회주의체제의 폭력성으로 인한 개인의 상처 치유 문제

탈북민들의 대부분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갖고 있다. 이들이 탈북과정에서 이런 상처를 갖지만 기본적으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폭력성 역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처를 주고 있다. 통일한반도교회는 하나님 안에서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을 소유해야 할 것이다.

#### 4.5) 다접경국가를 갖는 선교적 교회

통일한반도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육지로 접경을 두게 되는 나라이다. 이럴 경우 한국교회가 이전까지 행해오던 타문화 선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공향중심의 선교적 행위들이 철도나 차량 중심의 선교적 언어들도 변모하게 된다. 기존 한국교회의 선교적 행위를 더욱 역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시대적 변화에 한국교회의 선교성의 강화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선교는 분단 이후인 90년대부터 성장해 왔는데 통일이라는 변수 앞에서 다시금 선교적 행위들을 재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 5. 한국교회의 대북선교연합기구 준비

평화교류 시기에 대북접촉은 개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에 걸친 큰 그림이 필요한 준비과정이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현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1) 한국교회의 통일선교를 위한 연합체구성

현재 한국교회는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일치된 연합기구가 존재하지 못한 실정이다.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선교를 위한 연합체는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평화교류시기 이후에 통일과정에서 남한정부의 주도 하에 통일이 되어지거나 UN 산하의 통제를 받게 될 때 제한적 왕래를 당분간 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기독교계에 북한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인원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대북선교연합체에서 일정 정도의 인원을 쿼터제로 합의하여 각 교파별, 교단별로 그들을 미리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

#### 2) 한국교회의 통일선교에 대한 정책공유

한국교회 내에 연합체가 제대로 세워진 후에는 통일한반도교회에 대한 정책을 다시금 논의할 필요가 있다. 90년대 합의한 '북한교회 재건의 3원칙'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여 새롭게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sup>15)</sup> 이를 위해 각 교단 내에 통일한반도교회를 논의하는 기구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기구에서 구체적인 교단별 실행방안을 가지고 연합체 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

15)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북한교회재건위원회, “한국교회 북한교회재건백서”, (서울: 진리와자유, 1997년) p. 88-92. 한국교회는 1990년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내의 북한교회재건위원회를 중심으로 북한교회재건의 세 가지 원칙을 합의하였다. “1) 창구단일화, 2) 단일교단, 3) 북한교회는 독립적, 자립적 교회로 세운다”의 원칙이다.

### 3) 통일 사역자 준비

한국교회 통일선교 연합체에서는 한국교회가 공신하는 단체나 학교에서 통일선교사역자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각 교단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각 교단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일선교사역자들을 배출해내면 한국교회연합체에서는 이를 인정하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다시금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자격증(라이선스)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일꾼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 정부의 허락하에 북한으로 올라가서 3유형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한국교회의 인준 하에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 VII. 나가면서

한국교회는 지난 70여년 간의 남북분단시기 동안 같은 형제간에 서로 반목하며 다투어왔던 대결의 시기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는 마치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종살이 시기와 비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애굽의 모든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시기였다. 이제 분단구조의 해체시기를 맞고 있다. 이는 애굽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 여정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애굽의 모든 수치와 굴레가 떠나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간을 보낸 것처럼 한반도에 전개될 평화교류시기는 광야의 시기와 같을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서로 싸운 이 민족이 다시 하나되는 통일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북평화교류의 시기가 광야의 기간이라면 이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의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광야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백성으로 서게 되고 율법, 성막, 제사장이 주어져서 가나안에 들어갈 모든 법적, 영적 준비를 한 것처럼, 한국교회도 평화교류의 시기 동안에 통일한반도교회를 세울 영적, 제도적 준비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통일이 가나안의 축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른 결과를 낳을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올라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실천신학계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영역은 매우 다양하고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설교학에서는 남북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설교에 대한 연구, 예배학은 통합 성경, 통합 찬송가의 제정과 남북이 함께 하는 예배에 대한 연구, 전도학에서는 북한 주민 전도에 관한 연구, 목회상담학은 상처받은 북한주민의 트라우마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준비해야 한다.

이제 평화구축과 평화교류라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게 될 한반도 상황

에서 한국교회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아무쪼록 한국교회가 이제라도 분열을 극복하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 가고 통일의 구체적인 준비를 감당해 나가길 소망해 본다.



김선일 (웨신대)

## “통일의 시대를 위한 환대의 실천신학”

### 들어가는 말

우리는 지금 남북의 통일과 평화가 이전보다 가시화되어 가는 시대로 들어섰다. 통일이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할 때, 이 통일의 과정을 특징짓는 관계는 평화이다. 이 평화를 위해서는 화해와 협력의 교류가 선행될 것이고, 현재의 비핵화 논의와 평화 협정이 궤도에 따라 진행된다면 서로의 관계에서 더욱 구체적인 이슈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서로를 더 알아야 하고, 서로 함께하는 삶이 무엇이지를 배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요청 앞에서 신학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 나는 이 논문에서 신학적 환대를 통일의 시대를 위한 기독교적 삶의 핵심적 실천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미시적 민주화와 소수자 배려의 이슈가 부각하면서 타자에 대한 태도로서 환대의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다. 환대는 사적이고 일상적인 의미를 넘어서 자아와 타자의 동등한 상호 관계를 모색하는 공공적 개념이기에, 남북한의 평화적 관계 발전에도 유력하게 적용될 수 있다. 윤리철학에서 논의된 환대의 개념은 그동안 주로 진보적 성향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보편적 의제로 수용되어왔다. 본고는 복음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환대를 이해하고 담론을 보완하며, 통일이라는 남북 통합의 과정에서 교회의 환대적 실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환대, 통일의 시대를 위한 삶의 덕목

통일이 사건이 아닌 과정이라고 할 때, 통일의 시대는 그 과정을 준비하는 삶을 요청할 것이다. 지난 70년을 적대적인 체제와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살던 남과 북이 더욱 많은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정치, 경제적인 차이 뿐 아니라 정서적, 문화적 가치관과 방식에서의 차이를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내에 3만 명을 넘어서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고 적응하는 과정과 그들을 향한 우리의 통념적 인식은 앞으로 남북의 교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보여줄지도 모른다. 이는 남북의 우호적 교류를 통한 사회적 통합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견하게 해줄 것이다.

### 1) 북한 인식의 문제

극한의 적대적 대립과 북한의 위협 가운데 살던 냉전 시대에,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표적 용어는 ‘귀순 용사’였다. 그들은 남한의 체제가 우월함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극진히 대접받기도 했다.<sup>1)</sup> 그러나 냉전 체제가 와해된 이후, 생존의 문제로 북한을 이탈하는 이들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더 이상 용사가 아닌 ‘탈북자’ 내지는 ‘새터민’으로 불리게 된다.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해서 정부는 1997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제정하고, 1999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을 설립한다.<sup>2)</sup> 탈북인들을 위한 정착 지원과정은 경제적 지원 외에도 상처를 치유하는 심리상담과 남한의 언어와 자본주의 체제에의 적응 교육까지 포함한다. 탈북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생활방식을 배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인식은 남한의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있는 경제주의 논리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민족의 화합이라는 당위성 외에 경제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에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sup>3)</sup> 그렇다면 통일의 시대에서 남과 북이 교류하고 상호관계에 이루는데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리라고 예견할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 생활양식을 선점한 남한 사람들이 최근 들어 경제 발전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 북한 사람들에 대해 우월의식을 느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선점과 우월의식이 경계심과 배제로 이어지리라는 우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현재 대한 민국사회에서 탈북인들 뿐 아니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난민 등과 같은 경제적 이주민들에 대한 태도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앞으로 통일을 향한 남북 관계 개선이 진행될 경우,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동반자라는 인식을 유지할 수 있을까?<sup>4)</sup> 이를 위해 교회는 신학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어떻게 책임 있는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

### 2) 통일의 단계에 따른 리더십

---

1) 박영신, “사회구조, 통일, 사회통합: ‘탈북인’ 이해의 문제”, 「신학과 실천」 19호 (2009), 8.

2) Ibid., 11.

3) Ibid., 13-14. 탈북인들의 의식 조사에서도 대다수(75.7%)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돈만 있으면 북한도 살만한 곳’이라는 의견도 68.7%에 이르렀다. 이는 북한의 체제를 경험하고 이탈한 이들이 경제적인 동기를 정치, 사회적 동기보다 더욱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4) 정은미, 송영훈, “북한주민의 통일외식과 남한사회의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4권 1호 (2012년 5월): 221-254. 이 연구에 의하면 남한주민들은 북한주민들에 비해 통일에서 집단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으며, 탈북민들에 대해서 덜 포용적으로 나타난다.



리더십은 우월한 지위에 놓인 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술이 아니다. 리더십은 일반적 상황 뿐 아니라, 특수하고 변혁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공동체적 기능이다.<sup>5)</sup> 지금 남북의 관계는 오랜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통일과 평화의 상황으로 들어서는 기로에 와 있다. 이는 전례 없는 특수한 상황일 뿐 아니라, 구습의 극복이 요청되는 변혁적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독교적 리더십의 적절한 역할은 현 상황에서 통일의 시대에 필요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광건은 통일의 단계에 따른 변혁적 리더십을 구경계화 단계, 신경계화 단계, 탈경계화 단계, 초기 통합 단계, 신경계화 단계, 후기 통합 단계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제시한다.<sup>6)</sup> 이 단계들이 한반도의 상황과 도식적으로 일치할 수는 없고, 또 개인과 이해집단에 따라 다를 것이다. 어느 한 단계로 사회 전체가 규정될 수도 없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여론에 비추어 볼 때, 필자는 현재의 남북 상황은 탈경계화를 지나 초기 통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통일의 시대를 염두에 둘 때는 신경계화를 전망해야 한다고 본다. 구경계화의 단계는 긴장과 적대의 관계인데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발표 이후 꾸준히 진척되어 왔다. 2000년과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 전후에 이루어진 상당한 교류를 통해 우리 사회는 이미 탈경계화의 단계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북의 핵실험으로 지난 보수정권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긴 했으나 민족 통합의 비전이라는 대세가 바뀔 수준은 아니었다. 또한 비핵화의 실현과 남북의 교류 확대에 대한 열망이 더욱 높아지는 현 시기는 초기 통합의 단계로 나아가는 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필자가 생각하는 통합은 남북 체제의 제도적, 물리적 통합 보다는 남북 간에 사회적으로 평화롭고 자유로운 관계가 정착되는 상황이다.<sup>7)</sup>

김광건에 의하면, 탈경계화 단계에서는 새로운 상황을 혼란과 부적응이 아닌 긍정적인 소망과 두려움을 넘어서 변화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며 인격적인 감화력의 리더십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sup>8)</sup> 2018년에 들어서 새롭게 펼쳐진 남북관계의 개선은 완전한 탈경계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다음 단계인 초기 통합적 상황은 비핵화와 대립관계의 종식 이후에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이러한 초기 통합을 이루진 못했으나, 이를 향한 여정은 이미 남북미 간에 합의 하에 시작된 상태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를 넘어서 공동체적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데, 특히 기독교적으로는 사랑, 긍휼, 용서

5) 김광건, “한반도 통일 상황에서의 단계별 리더십 유형에 대한 고찰”, 「신학과 실천」 46호 (2015년), 674.

6) Ibid., 684-685.

7) 정재영, “사회 통합 관점에서 통일 후 기독교의 역할”, 「복음과 실천」 (2005년 봄호), 395. 정재영은 정치, 경제의 체제적 통합과 구분해서 인간적, 사회적 통합이라는 측면을 제시한다.

8) Ibid., 687.

치유 등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적 리더십이 요청된다고 한다.<sup>9)</sup> 남북의 통합적 화해가 가시화되었을 때, 유념하고 준비해야 할 단계가 바로 신경계화 상황일 것이다. 김광건은 이 단계의 목표는 “새로운 경계들의 형성으로 말미암은 갈등의 해소와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것”<sup>10)</sup>이라고 한다. 남북 간에 교류가 무르익고 자유로워지면서 새로운 갈등의 경계들이 생겨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적 차원에서는 교차문화적 리더십, 즉 다양한 문화들을 포용하는 리더십이 요청될 것이다.<sup>11)</sup>

위의 통일 단계에서 남북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생겨날 수 있는 신 경계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 교차 문화적이고 다문화적 포용이 요청된다는 인식은 본 논문의 주제인 환대의 비중을 더욱 부각시켜준다. 환대는 화해, 사랑, 긍휼, 포용의 가치를 기반으로 타자와 타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배려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환대의 개념이 기독교 공동체의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적 정립을 필요로 하게 된다.

## 2. 현대 사회에서의 환대에 대한 관심

### 1) 환대 개념의 발전

최근 환대(hospitality)의 개념은 현대 사회에서 인간관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데 빈번하고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오늘날 영토를 넘어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서로 접촉하고 교류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정체성과 타자에 대한 이해는 동등한 상호작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토대로 작용한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깊어지면서, 주류 의식에서 부차적인 존재로 취급하거나 배제해왔던 집단을 대하는 기본 태도로서 환대가 자주 거론된다. 여성, 장애인, 아동,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등은 이와 같은 환대적 이해와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인식해야 할 대상이다.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의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화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타자를 우리에게 노출시킨다.

환대는 일반적으로 손님 대접을 포함해서 구제와 긍휼의 사역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왔다. 그런데 현대 도덕철학의 영역에서 환대는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성찰적 관점이자, 자신과 타자의 관계에서 은연중에 벌어지는 일상의 차별과 소외를 예리하게 인식하며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고 대하는 섬세한 노력을 의미한다.

---

9) Ibid., 690.

10) Ibid.

11) Ibid., 691.

레비나스(E. Levinas)와 데리다(J. Derrida)는 이 환대를 주요한 철학적 주제로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유대인으로서 나치의 인종학살을 목도한 레비나스는 형이상학적 철학에서 관계적 윤리의 철학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는 서양 철학의 존재론이 타자를 내재화시키고 동화시키려는 시도로 이어지면서 폭력적 양상을 갖게 되었다고 진단하면서, 타자에 대한 절대적 개방과 환대를 모색한다.<sup>12)</sup>

데리다는 환대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그는 서구 역사에서 환대가 자민족 중심주의로 전락하면서 배제와 소외를 야기했음을 지적한다. 특히 레비나스는 타인을 적대함이 없는 무조건적 환대를 은유적, 이상적 환대로 제시하면서, 현실에서는 조건적 환대의 필연성을 언급한다. 이러한 조건적 환대는 결국 사람을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하며 특정집단에게는 혐오적 정서를 용인하게 된다.<sup>13)</sup> 그가 이상향으로 제시하는 무조건적 환대는 타자의 (비록 그가 낯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름과 출신을 물어보지 않는 것이다. 이름과 출신을 물어보는 것은 상대를 조건에 의해서 규정하고 환대의 범주를 제한하고,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영역이 침범될 수 있다고 느낄 경우 환대는 적대로 변모할 수 있다.<sup>14)</sup> 환대와 적대의 동시성은 영어 hospitality의 라틴어 어원에 속하는 호스페스(hospes)는 주인(host), 손님(guest), 또는 낯선자(stranger)라는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 같은 어원을 지닌 호스티스(hostis)는 적을 의미하면서, 영어 hostility는 ‘적대’라는 단어로 발전되었다. 환대와 적대는 이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데리다의 이러한 무조건적 환대 개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상적 환대의 기준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 속에서 늘 지향해야 할 환대의 덕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삶의 통찰이다.<sup>15)</sup> 이와 같이 환대의 논의를 통해서 데리다는 절대성과 이상을 가리키기에 신학적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 2) 환대의 사회적 의미와 실천

환대를 좀 더 실존적 상황과 접목하기 위해서 그 사회적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김현경은 『사람 장소 환대』에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장소를 갖는 것이며, 환대는 자리를 주는 행위라고 한다.<sup>16)</sup> 김현경의 논의는 환대의 가치가 당위와 명분 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람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회에서, 그리고 매일

12) Emmanuel Levinas, *Totality and Infinity: An Essay on Interiority*, trans. Alphonso Lingi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1969), 194.

13) 데리다, 『환대에 대하여』남수인 역 (동문선, 2004), 88-89.

14) Ibid., 71페이지 이하.

15) 이은정, “데리다의 시적 환대: 환대의 생성적 아포리아” 『인문과학』 44집 (2009년 8월), 107.

16)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5), 26.

매일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받는 대접과 나누는 대화를 그 사회에서 그의 지위와 가치가 규정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 그에게 특정한 사회에서 소속감을 넘어서는 성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는 사회적 성원권이 부여되지 않은 대표적인 유형으로 태아, 노예, 군인, 사형수의 예를 드는데, 그중 군인에 대한 서술은 흥미롭다. 그는 군인은 생명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인격을 박탈당하고 물건처럼 사용되며, 사람다움의 권리가 유보된 채 사회와는 분리된 병영이라는 수용소에서 지낸다.<sup>17)</sup> 그동안 전시상황과 같은 현대사를 살아온 남북한의 다수 남성들은 성원권 박탈을 경험한 셈이다. 따라서 배제의 의례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환대의 덕목과 실천은 새로운 학습이며 도전이 될 것이다.

김현경은 성원권을 소속감과 구분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성원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반대로 본인은 공동체적 소속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성원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sup>18)</sup> 사회적 성원권은 법적 지위와는 구별된다. 양자 간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으나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성원권은 오직 타인의 환대에서만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와 태도의 문제인 것이다.<sup>19)</sup> 따라서 우리와 다른 조건의 사람에게 사회적 성원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법적이고 제도적인 조치보다는 그에 대한 시선과 대우를 통해서 드러난다. 조건적 환대는 그 사람의 이름, 출신, 자격 등을 물으며 환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반면 무조건적 환대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지 않는 것이다.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환대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의례로 나타난다. 의례는 관습적 행위이자 상호작용의 구조라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성원권은 바로 이 반복적인 의례를 통해서 확인된다고 그는 말한다.<sup>20)</sup>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조건적 환대가 차별적 의례의 모습으로 나타난 현상은 최근에 발생했던 고양저유지 화재사건이라고 본다. 원인 불명의 대화재가 일어난 다음, 경찰은 실화 혐의로 한 외국인을 체포했다. 경찰과 언론은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외국인의 국적과 직종, 실명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심지어 ‘테러리즘의 가능성은 적다’는 식으로 사건을 이해하는데 거의 연관성 없이 불안감과 편견을 건드리는 기사까지 나왔다. 관련 기사 댓글 게시판에는 외국인 전체와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성 표현들이 넘쳐났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실화 혐의를 받았다면 그렇게 개인의 신원을 드러

---

17) Ibid., 43.

18) Ibid., 64. 김현경은 전자는 외국에서 교육받은 엘리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으며, 후자의 예는 나치 치하의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겪은 경험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19) Ibid., 65.

20) Ibid., 144.

내는 보도와 편견적 댓글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물론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 비해 다문화에 대한 관용과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외국인을 포함한 손님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에 누구도 쉽게 이의를 제기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환대는 단순히 우호적인 몸짓을 넘어서는 더 깊은 차원의 우정이다. 김현경은 환대를 증여와 구분한다. 증여와 환대는 모두 베푸는 것이지만, 증여는 인정과 선행의 기억 속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 반면 환대는 증여보다는 재분배에 가깝다. 환대 역시 주는 행위이지만 증여와 달리 상대방과 상호작용의 질서를 이루는 것이다. “환대란 주는 힘을 주는 것이며, 받는 사람을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sup>21)</sup>

김현경의 환대에 대한 고찰은 기독교적 이웃사랑에 대해서 성찰할 거리를 준다. 그는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를 인용하며 “기독교적 사랑은 타자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자에게 무관심하며 어떤 의미에서 타자를 이용한다. 타자에 대한 그 같은 헌신 밑에 있는 것은 증여를 통해 자아의 결핍을 메우려는 욕망”이라고 일갈한다.<sup>22)</sup> 그가 증여와 환대를 구분하면서 증여가 위계적 관계에서 상대방이 사회 안에서 자리를 갖고 사람으로서 연기를 하게 하기보다는 일방적 베품으로 자아의 인정과 결핍을 채우는 수단이 된다고 지적한다.<sup>23)</sup> 이러한 진단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환대의 실천들인 사회봉사와 구제의 내적 동기를 더욱 겸손하고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 김현경은 신원을 묻지 않으며, 보답을 요구하지 않고, 복수를 하지 않는 절대적 환대를 제시하는데,<sup>24)</sup> 이처럼 순수한 환대의 특성들이야 말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 아닌가?

### 3. 신학적 환대의 모색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환대를 통일의 시대에 기독교적으로 전유하기에 앞서 신학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강남순은 코스모폴리터니즘이라는 개념으로 신학적 사유와 기독교의 실천을 제안하는데, 여기서도 환대는 핵심적 삶의 태도로서 연대와 사랑의 범주를 급진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우주적, 지구적이라는 코스모폴리터니즘의 담론을 국가, 민족, 성별, 계층, 인종의 범주를 넘어서 모두에게 적

---

21) Ibid., 197.

22) Ibid., 175.

23) Ibid., 193.

24) Ibid., 209-228.

용되지만, 동시에 인간의 개별성을 중요한 도덕적, 규범적 근거로 보며 모든 개별인을 신의 형상을 닮은 얼굴로 바라보며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sup>25)</sup> 이는 인간을 코즈모폴리탄적 정체성의 관점에서 대하는 방식인데, 이는 서로의 차이를 토대로 나와 우리, 너와 그들이라는 이원론적이고 폐쇄적인 사유 방식과 구별된다. 강남순은 이러한 지구적 관점에서의 보편주의적 인간 이해에 기독교는 억압의 제도에서 자유와 해방 뿐 아니라 포괄과 연대의 사상으로 동참할 수 있다고 본다.<sup>26)</sup>

강남순은 코즈모폴리탄 시선이야말로 예수의 시선으로서 그가 죄인들 및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치고 실천한데서 잘 나타난다고 한다. 이는 나와 다른 이들을 국적, 종교, 성적 성향, 성별과 관계없이 고귀한 ‘동료 인간’으로 보는 ‘연민의 시선’이다.<sup>27)</sup> 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교리를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따라라고 말한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길은 무조건적인 이웃사랑과 환대, 용서의 길이다.<sup>28)</sup> 이와 같은 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러한 불가능성의 요구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도 말한다. 이 주장은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환대의 불가능함과 관계 맺음으로 자신을 변형의 가능성 앞에 놓이게 한다는 환대의 철학적 담론과 일맥상통한다.<sup>29)</sup>

바울의 사상에서도 기독교 교리의 집대성보다는 코즈모폴리타니즘이 주류를 이룬다. 로마서 2:11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고 신적인 차별 철폐를 말하며, 갈라디아서 3:28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선언한다. 바울의 환대적 가르침은 로마서 12:13과 15:7, 에베소서 2:19에서도 거듭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강남순은 말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심오한 의미는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서 “타자를 향한 사랑과 환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책임과 연대의 삶”을 말하며, “나를 바라보고 있는 타자들을 신의 이름으로 돌보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sup>30)</sup> 환대가 사회적 성원권을 얻는 것이라면, 그것은 인간이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사회에서 동등하게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타자들과 함께하는 그들을

25) 강남순, 『코즈모폴리타니즘과 종교』 (서울: 새물결, 2015), 20-22.

26) Ibid., 34.

27) Ibid., 131.

28) Ibid., 148.

29) 김현경, op cit., 192.

30) 강남순, op cit., 137-138.

위한 존재'를 의미한다.”<sup>31)</sup>

강남순은 성경을 코즈모폴리탄적 현대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며, 기독교 공동체가 유념해야 할 구체적 실천들을 제안한다. 페미니즘이나 탈식민주의 이론에서 절대적 희생자를 가리키는 '서발턴'(subaltern) 개념을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딸들과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의 첩이 남성에게 의해서 존재감이 박탈되는 모습에 적용하면서, 서발턴은 자신이 희생되었고 배제되었음을 말할 수 없는 존재였다고 지적한다.<sup>32)</sup> 그는 예수와 삭개오의 만남은 스스로를 말하지 못하고 드러낼 수 없던 서발턴이나 다름없던 삭개오를 직업이나 종교를 묻는 문지방 물음이 아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했던 예수의 환대를 보여준다고 한다.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삭개오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삶의 긍정과 변혁의 주체가 된다(눅 19:8).<sup>33)</sup>

강남순의 코즈모폴리탄 현대 개념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시적, 미시적 갈등과 분쟁, 차별과 저항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는 통일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름과 오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실천적 덕목으로서 환대를 보게 해준다. 다만,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현대의 신학적 구성을 위해서 논의의 보완이 필요하다.

#### 4. 복음주의적 현대 신학의 정립

앞에서 필자는 현대의 기초적 발상을 소개하고, 한국에서 이 개념을 사회, 윤리학적으로 서술한 김현경의 논의와 종교, 신학적 차원에서 정립한 강남순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환대를 복음주의 신앙 공동체의 실천적 담론으로 제안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수반되는 이슈들과 신학적 고려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1) 복음주의자들의 현대 담론

그 동안 현대는 철학적 윤리의 주제였으며, 이를 진보적 신학계에서도 논의해왔다. 기독교계에서는 영성적 삶을 다루는 헨리 나우엔(Henry Nouwen)이나 장 바니에(Jean Vanier), 교육적 관점에서 인간의 성장을 논하는 파커 파머(Parker Palmer)의 저작들에서 다뤄지긴 했다. 단순한 손대접의 실천으로서 현대는 기독교

---

31) Ibid., 139.

32) Ibid., 181-185.

33) Ibid., 191.

사역자들에 의해서 자주 강조되어왔던 바다.<sup>34)</sup>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의 크리스틴 폴(Christine Pohl)이 저술한 『손대접』은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전통에서 나타난 환대의 역사를 다루며, 소외된 자와 약한 자들을 환대하는 기독교 공동체들을 소개한다. 이 책은 비록 차이와 타자에 대한 담론을 직접 다루진 않지만, 환대의 실천이 얼마나 핵심적인 교회 공동체의 과제였음을 상기시켜주었다. 그에 의하면 역사적 기독교에서 환대는 그리스도인의 선택 사항이 아니며, 특별한 은사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사항도 아니었다. 환대는 신앙 공동체에 필수적인 실천이었다.<sup>35)</sup> 미로슬라브 볼프의 『배제와 포용』은 소외와 배제에 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적 통찰을 제시하면서 복음주의 신학자들에게도 환대적 담론을 상기시켰다. 볼프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폭력의 희생자들과 동일화하셨다는 그의 스승 몰트만의 논지를 발전시켜서, “원수를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 주시며 그들을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신다”면서 원수사랑의 환대적 제안을 내놓는다.<sup>36)</sup> 그는 이러한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의 위로만 취하고 그분의 (원수사랑의) 길은 거부한다면 그것은 값싼 은총과 기만적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sup>37)</sup> 볼프는 사회 문제에 대한 진정한 기독교 성찰을 십자가 중심으로 풀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현대인들은 타자에 맞서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거나, 타자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 자극적이며 불안한 쾌락의 유혹에 이끌린다. 또는 엄격하며 냉혹한 법의 지배에 의해 압력을 받는다.”고 지적하며,<sup>38)</sup>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중심을 벗어난 중심’, 즉 가장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 있는 동시에 가장 철저하게 개방적인 중심이 자아와 타자의 화해를 이룬다고 주장한다.<sup>39)</sup>

이러한 볼프의 주장은 환대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지만, 환대적 사유와 실천에서 중요한 신학적 논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기독교적 환대의 기초는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점이다.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간주됐던

---

34) 예를 들어, 카렌 메인스(Karen Mains)의 『행복으로 초대하는 오픈홈』(서울: IVP, 2004)이 환대와 접대를 구분하며 기독교 가정의 중요한 실천사항으로 다룬다. 최근에는 로사리아 버터필드(Rosaria Butterfield)의 *The Gospel Comes with a House Key* (Crossway, 2018)와 같은 책이 이웃을 초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유력한 통로로서 환대의 사례들을 든다.

35) 크리스틴 폴, 『손대접』(서울: 복있는사람, 2002), 39.

36) 미로슬라브 볼프, 『배제와 포용』(서울: IVP, 2013), 34.

37) Ibid., 35.

38) Ibid., 105.

39) Ibid., 108.



무조건적 환대는 타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숭고한 의식의 전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근거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환대적 헌신에 참여하도록 요청받는다. 볼프는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서 만연한 배제와 적대에 맞서는 힘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자기를 내어 주는 자아를 빚어주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sup>40)</sup> 십자가에서의 환대야말로 가장 급진적이고 전복적인 환대다. 우리의 역량과 열정으로 급진적 이웃사랑과 원수사랑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핵심에는 타자가 적으로 남아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자신 안에 가해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그리스도의 태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sup>41)</sup> 인간의 적의와 배제를 넘어서는 힘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이 신비한 교제에 그리스도인이 참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환대적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한 그 은총의 실행자로 재창조되기를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sup>42)</sup> 우리는 환대를 입는 동시에 환대를 베푸는 자로 부름 받았다. 볼프의 이러한 논의는 현대 사회에서 대두되는 배제와 포용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기독교의 전통적이고 초월적인 십자가 사건과 속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타자를 수용하고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긴밀한 연결점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예큐메니컬 진보신학에서 신적 환대를 논하면서도 인간의 정의롭고 숭고한 헌신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볼프는 이를 십자가의 은총에 견고히 정치시키고 있다. 그런 면에서 환대와 속죄의 관계에 대해서는 복음주의적 논의의 가치가 있다.

## 2) 환대와 속죄와 폭력

캐나다 리젠트대학의 제임스 패커 석좌교수인 한스 부르스마(Hans Boersma)는 환대의 논의 핵심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화해가 놓여 있다고 본다. 그는 우리의 환대는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선적 환대에 비추었을 때만 의미 있다고 주장한다.<sup>43)</sup> 그는 전통적인 속죄 논쟁에서 제기되는 선택, 구원, 유기, 심판과 같은 주제들은 필연적으로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환대 뿐 아니라, 어떤 인간들을 버리시는 배제, 즉 폭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환대 담론에서 민감한 쟁점이 된다고 본다. 그는 전통적인 속죄론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폭력 때문에 폐기될 필요는 없으며 종말의 무조건적 환대적 비전을 향한

40) Ibid., 142.

41) Ibid., 199.

42) Ibid., 204.

43) Hans Boersma, *Violence, Hospitality, and the Cross: Reappropriating the Atonement Tradition* (Grand Rapids: Baker, 2006), 15.

구속적 폭력이라는 역설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44)</sup>

부르스마는 개혁주의 전통의 제한적 속죄는 조건적 환대를 유발하고 이는 배제와 폭력의 비판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물론 레비나스와 데리다도 현실에서 현실에서는 나르시시즘 성향의 환대가 폭력과 배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무조건적 환대는 은유적 이상의 영역으로 보았다. 그러나 부르스마는 신적 환대에서 폭력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유한한 시공간으로 들어오실 때는 불의와 모순의 한계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를 전제로 하듯, 하나님의 환대는 폭력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인간과 같은 자아 중심적 성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제한과 한계가 아니라, 종말에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환대의 완성에 이르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거룩하심을 보호하는 조건적 장치이다. 그는 하나님의 유기와 심판과 같은 폭력의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 속 환대적 속성을 지켜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동참하는 영원한 생명의 신비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한다.<sup>45)</sup>

그러한 의미에서 부르스마는 선택과 배제가 수반되는 하나님의 환대를 ‘우선적 환대’(preferential hospitality)라고 정의하며, 이는 선교적 역할을 위한 것이라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배제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약자를 보호하는 공흠에 동참하기 위함이었다. 신명기 10:18-19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환대가 타자를 향한 환대의 동기임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선택과 가나안의 배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적인 환대의 목적은 이스라엘과의 친밀한 관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피조세계와의 화해를 위한 것이었다.<sup>46)</sup>

부르스마의 논의는 환대의 규범적 담론을 신학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해준다. 모든 배제와 경계를 거부하며 있는 그대로의 포용과 수용을 이상적으로 그리는 환대적 실천에 비추어볼 때 심판과 정죄를 수반하는 기독교의 속죄와 구원은 적대성을 띠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부르스마는 칼빈주의 전통의 제한적 속죄론이 절대적 비폭력을 급진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오늘날의 환대 논의와 관련해서 폭

---

44) Ibid., 17.

45) Ibid., 76.

46) Ibid., 86-87.

력의 문제를 생략하고 딜레마로부터 쉽게 비껴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을 지닌다고 한다.<sup>47)</sup> 칼빈주의는 이를 신성한 미궁, 즉 하나님 임재의 신비로 보며 우리에게 겸손과 부족함을 일깨워준다. 폭력과 제한적 환대의 딜레마는 이성적으로 규명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피조세계의 한계와 죄의 영향력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의 폭력을 감내하며 인류와 모든 피조세계를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종말적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과 용기의 문제인 것이다.<sup>48)</sup>

#### 4. 환대의 실천신학

볼프와 부르스마는 현대의 환대 담론을 기독교 고유의 내러티브 및 전통적 교리에 대화 속에서 전개하고자 했다. 타자에 대한 돌봄과 수용으로서 환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이자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표현된 복음, 그리고 교회의 실천적 중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대는 기독교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핵심적 실천으로서, 현대문화에 대응하는 실천신학의 주요한 주제일 것이다.

레티 러셀(Letty Russell)은 환대가 관념이 아닌 실천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면서 환대의 틀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첫째, 환대가 차모임이나 가정의 일 등과 같이 말초적 섬세함과 관련된 일로 여겨지고 있으며, 둘째, 우리는 동질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려는 경향이 있고, 셋째, 타자를 동반자보다는 우월한 자의 관대함으로 대하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sup>49)</sup> 여기서 러셀의 지적은 환대가 단순한 호의나 접대가 아니라 타자와의 차이를 직접 마주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자기 성찰과 변혁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환대는 그 안에 심오하고 내밀한 타자에 대한 관점과 인간의 동등한 상호 교류를 추구하기에 기본적으로 신학적 사유로부터 정립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대는 소비주의적 마케팅이나 고객 중심의 서비스 산업에서 지지하는 예의 관행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이것이 지금까지 환대의 신학적 논의를 살펴본 이유이기도 하다.

실천신학은 기독교 공동체가 구현하는 실천의 근원과 목표를 정립해 준다. 환대의 근원이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다면, 환대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근원과 목표를 준거 틀로 했을 때,

47) Ibid., 92. 예수의 사역을 전적 비폭력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시도가 있지만, 부르스마는 복음서에서 예수의 행함과 가르침에는 성전청결사건이나 최후 심판의 메시지와 같이 ‘폭력적’ 요소가 명백하게 있음을 지적한다.

48) Ibid., 94-95.

49) 레티 러셀, 『공정한 환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127-128.

환대의 실천이 왜곡될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 뉴먼(Elizabeth Newman)은 현대인의 집 없음(homelessness)이라는 처지가 환대를 왜곡하는 사례들을 열거하는데,<sup>50)</sup> 첫째는 감상적 환대로서 진리와의 대면을 기피하고 회개를 요청하지 않는 유형이다. 둘째는 사사화된(privatized) 환대로서 가정 개방, 식사 초대 등의 개인적 여흥에 머무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당히 중대한 신학적 의미도 있지만, 자칫 인격 보다는 외양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 셋째는 마케팅 방법으로서의 환대다. 이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와 접대의 수준에 머무는 환대인데, 사실 오늘날 교회들의 환대도 접대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넷째는 포함(inclusivity)의 환대로서 다양성과 이질성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실천이다. 이는 오늘날 가장 많이 요청되고 깊이 논의되는 환대의 유형이다. 그러나 뉴먼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예수가 요구함이 없는 무조건적 환대를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분의 사랑스러운 환대는 다른 방식의 삶을 요구하기도 했다. 성경은 다양성의 수용 그 자체가 아니라 다양성을 통해서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를 이루며 그와 교제함을 목표로 한다.<sup>51)</sup>

나는 논의되는 환대의 여러 유형들 가운데 통일의 시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실천에 주목한다. 그것은 참회적 환대(penitential hospitality)와 통합적 환대(unifying hospitality)이다.<sup>52)</sup> 참회적 환대는 환대가 경계 없는 무조건적 수용이 아니며, 죄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고백해야 함을 의미한다. 신약신학자 리처드 헤이스(Richard Hays)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용성으로 축소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회개, 훈련, 희생, 변화로 부른다.”고 말한다.<sup>53)</sup> 참회적 환대는 타자에 대한 포용과 관용으로 실천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음에 기초를 둔다. 이는 향후 남북의 교류 확대를 예상하면서 환대적 실천을 내디딜 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함을 상기시켜준다. 북한에게도 이 참회적 환대의 실천을 보여주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참회적 환대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환대를 일으키는 근원에 해당된다면, 통합적 환대는 남북의 통일을 향한 교류와 협력에서 목표로 삼아야 할 가치가 된

50) Elizabeth Newman, *Untamed Hospitality: Welcoming God and Other Strangers* (Grand Rapids: Brazos, 2007), 19-33.

51) Ibid., 31-32.

52) 참회적 환대라는 용어는 Boersma가 *Violence, Hospitality, and the Cross*에서 논하며(222쪽 이하), 통합적 환대는 Newman이 *Untamed Hospitality*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성찬과 연결시키며 제시한 개념이다. 이 두 용어 모두 각 저자가 초점을 맞추는 환대의 특성에 상응한다.

53) 리처드 헤이스, 『신약의 윤리적 비전』 (서울: IVP, 2007), 320.

다. 환대는 타자에게 장소를 내어주고 그가 자율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에 이르는 과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 자신을 내어주는 환대는 개인주의적이고 상호 불간섭적인 환대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타자를 발견하고, 타자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통합적 비전을 갖게 된다. 남북한의 관계에서 사회, 정치적 통합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장기적인 과업이자 열망이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 됨이라는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과제에 충실해야 한다. 먼저 남한의 교회들이 통일을 향한 통합적 환대의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향후 예상되는 북한 교회들과의 관계 및 교류에서 공유해야 한다. 통합적 환대를 위해서는 편견 없는 이해와 경청, 용서, 그리고 화해의 여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의 의례와 실천이 필요하다.

나는 참회적 환대와 통합적 환대라는 두 유형의 실천이 남북의 통합을 위한 여정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본다. 이 두 개념 안에 환대 담론의 일반적 교훈들과 신학적 고려사항들을 함께 연결시킬 수 있다. 이를 기독교 공동체의 실천으로 삼기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실행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5. 통일의 시대를 위한 환대의 실천

### 1) 마음의 습관으로서의 환대

환대는 하나님의 구속적 환대를 경험함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먼저 연약한 손님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환대를 받았기에 진정한 환대는 우리로 하여금 주인과 손님의 경계를 흐려지게 한다. 우리는 환대를 받았으므로 환대할 수 있다. 이 환대는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 실천이자 훈련이어야 한다. 최근 한국사회에는 여성, 장애인, 외국인, 동성애자 등의 소수자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필자는 성경이 비록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긴 하지만, 모든 소수자의 정체성을 차별 없이 전적으로 수용하라고 명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모든 경계(境界)가 다 부정적이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일각에서 나타나는 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환대 보다는 적대에 가까운 경우가 있었다. 의심과 경계(警戒), 심지어는 사실과 다른 루머들이 신자들 가운데서 빈번하게 회자되기도 했다. 종교 다원주의와 성 정체성에 관한 복음주의적 입장을 명료하게 하는 작업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는 가운데 환대가 기독교 공동체의 중심적 표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의 선교적 사명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라는 성경의 권면에도 역행한다. 타종교와 동성애에 관한 수세적이고 배타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작 그 문제의 이면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다원주의와 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교회가 정교

하게 파악하고 기독교적으로 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교회의 확대적 실천이 새로운 신자나 방문자를 접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차이의 존재들을 품고 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소외된 이웃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미혼모 등의 다양한 이웃으로 확장되는 확대여야 한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실질적 확대를 넘어서 확장된 확대를 공동으로 실천하는 습관을 배우고 개발해야 한다. 이미 사회에서는 통일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커리큘럼에 적대적 생활문화를 극복하고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는 소통방식을 편성하고 있다.<sup>54)</sup>

## 2) 경청의 확대

앞서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배제된 계층인 서발턴(subaltern)은 스스로 말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확대는 타자에게 말을 걸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 뿐 아니라, 그들로 말을 하게 하는 것이다. 확대란 타자를 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자로 하여금 먼저 말하게 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상호 간의 진실하고 동등한 교류이다. 교회에서 통일 선교를 위한 행사나 교육을 하는 자리에서 탈북민들로부터 직업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본주의와 한국교회의 시각에서 평가된 북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의 상황과 관점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듣는 일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남북한의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북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이는 편견과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그대로 듣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인내와 관용이 필요하다. 2003년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대표자들이 서울의 S교회를 방문하여 예배에 참석하고 인사말을 하는 도중에 국제정세와 관련된 민감한 발언이 나오자 회중석에서 소란이 일어났고 결국 진행이 중단된 사태가 있었다. 나는 여기서 양측 모두가 서술적 언어가 아닌, 평가적 언어를 사용했다고 본다. 북측의 대표는 미국의 핵전력을 부당한 위협으로 규탄했고, 일부 회중은 그와 같은 발언을 즉각 제지하면서, 연합을 위한 확대적 경청과 대화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상호 확대를 위해서는 상호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입장과 견해를 조절하고 자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 더 필요하다. 경청은 편견의 방해 받지 않고 타자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타자에 대한 깊고 넓은 이해는 우리 자신을 더욱 견고하게 성장시킬 것이다.

## 3) 북한의 인권과 선제적 확대

북한과의 교류에서 늘 거론되는 논쟁점 중에 하나가 북한의 인권 문제다. 북한의 인권은 그들의 사회주의적 통제 체제 하에서 발생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에 이를

54) 차문석, “힐링(healing)으로서의 통일교육: 분단의 비극과 상처의 치유”, 『통일문제연구』 28권 2호 (2016), 221.

통합의 선결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데 어려움은 있다. 그렇지만 복음주의 신학적 환대는 경계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인권의 문제는 간과하거나 마냥 연기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다.<sup>55)</sup> 참회적 환대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 앞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을 성찰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참회적 환대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회들이 먼저 타자와 소수자를 공정하게 환대했는지를 먼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자기 성찰적 참회적 환대가 북한을 향한 교회의 실천이 되어야 하며, 그들도 환대에 동참하게 해야 한다. 현재 북한의 체제는 사람들을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으로 분류하는 적대적이며 차별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타자를 동등한 사회적 성원으로 대하는 것이 환대라고 할 때, 환대의 실천은 단순히 북한의 현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혁을 향한 조건적 환대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통합을 위한 환대의 공유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먼저 우리의 환대적 실천을 통해서 본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신명기 10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환대의 명령은 이스라엘이 먼저 환대의 본을 보임으로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베푸신 무조건적 환대는 그로 하여금 자발적인 회개와 변화로 나아가게 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선제적 환대의 모델로 부름 받았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한국사회 안에서와 남북의 교류 가운데서 실천하는 선제적 환대가 북한에서도 참회적 환대를 일으키는 촉매의 역할을 하리라는 비전이 필요하다.

## 나가는 말

지금까지 통합의 여정을 위한 환대의 적용과 신학적 환대 담론, 그리고 환대 담론의 복음주의적 교정 방향과 실천적 제언들을 논의했다. 나는 통일의 시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자와 차이, 이질성으로 인한 혼란을 예상할 때, 환대에 관한 심오하고 확대된 논의는 긴급하게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 불가능성 속에서도 환대를 무조건적이며 전적인 수용으로 접근하는 관점은 신학적 환대가 수반하는 죄에 대한 형벌과 악에 대한 배제라는 불가피한 '폭력적' 요소를 간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기독교의 속죄 및 구원론은 환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조건적이며 우선적 환대로 이해하면서, 이를 불가능성에 대한 감내가 아니라 종말에 완성될 절대적 환대로 전망하게 해준다. 복음적으로 균형 잡힌 환대는 시공간 속에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환대는 회개와 회심이라는 조건을 지닐 수밖에 없고,

55) 윤은주, “북한선교패러다임에 따른 북한인권 접근 방식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26권 (2012 가을), 164. 윤은주는 선교적 측면에서도 북한주민들의 기본적 자유권을 남북 간의 총체적 협력 증진이라는 틀에서 국제적 인권 표준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억압과 고난에 맞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인권을 우선하는 환대의 특성을 띠게 된다. 나는 환대가 복음주의 전통에서 그동안 잊혀왔던 언어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복음주의 신학이 환대의 언어를 회복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의 통합 뿐 아니라 통일의 시대를 위해서도 신학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환대는 성경에서 충실하고 풍성하게 제시되었으며, 교회의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이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환대하셨다. 이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희망적인 환대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배종열 (개신대)

##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문 구성 분석”

### 1. 서론

미 대륙의 부흥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는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다. 그는 1734-1735년에 자신의 목회지인 노샘프턴(Northampton)에서 많은 이들의 회심을 목격했다.<sup>1)</sup> 이 사건은 부흥운동사의 서막이 되었고, 제1차 대각성운동(大覺醒運動, Great Awakening, 1735-1755)으로 이어졌다. 이 부흥운동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은 설교였다.<sup>2)</sup>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연구뿐만 아니라<sup>3)</sup> 그의 설교에 대한 연구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up>4)</sup> 그의 설교문 구성(본문-교리-적용)에 대한 관심은 필연적이다. 랄프 턴불(Ralph G. Turnbull)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문

- 
- 1) 조나단 에드워즈, 『놀라운 회심 이야기』 정부흥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2) 윌슨 김나흐, 케네스 민케마, 더글라스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백금산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5), 11; 이승진,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연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설교,” 『복음과 실천신학』 10(2005): 21-23; Jim Ehrhard, "A Critical Analysis of the Tradition of Jonathan Edwards as a Manuscript Preacher,"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60(1998): 73.
  - 3) 예일대학교 출판부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들과 학자들의 논문들을 모아 현재 26권을 전집으로 출간한 바 있다. 그의 신학과 사상적 배경에 대하여는 주도홍, 『대각성 운동의 기수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 (서울: 이레서원, 2001); 양낙홍, 『체험과 부흥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 생애와 사상』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3); 스테펜 J. 니콜라스,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와 사상』 채천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조지 M. 마즈던, 『조나단 에드워즈 평전』 한동수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3)을 참조하라.
  - 4)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의 특징에 대하여는 Ralph G. Turnbull, *Jonathan Edwards the Preacher*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8); Jim Ehrhard, "A Critical Analysis of the Tradition of Jonathan Edwards as a Manuscript Preacher," 71-84; John D. Hannah, "The Homiletical Skill of Jonathan Edwards," *Bibliotheca Sacra* 159(2002): 96-107; John Carrick, *The Preaching of Jonathan Edwards*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2008); Clint Heacock, "Rhetorical Influences upon the Preaching of Jonathan Edwards," *Homiletic* 36(2011): 17-29; 류응렬, “열정에 사로잡힌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연구,” 『개혁논총』 17(2005): 155-184; 이승진,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연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설교,” 19-46; 박현신,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분석을 통한 적용 패러다임 연구,” 『개혁논총』 25(2013): 283-321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구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장르별로 분류한다.<sup>5)</sup> 그는 교리설교, 심판설교, 복음설교, 윤리설교, 장례설교, 임직설교, 목회설교 등으로 나누고, 해당 장르에 속한 설교의 내용을 구성에 따라서 분석하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본문		교리	적용	
턴볼	서론, 명제		교리	적용	
	서론		명제		
	서론, 관찰				
	서두	서론, 명제		적용	결론

턴볼은 에드워즈의 설교문 구성을 삼 단계 혹은 오 단계로 보기도 하고, 용어도 장르에 따라서 각각 달리 말한다. 하지만 턴볼의 분석에서 설교의 장르 구분은 임의적이다. 카테고리 분류에 대한 근본적인 기준이 없어서 서로 겹쳐 보인다. 또한 구성에서도 모든 경우수를 포함하지 않고 몇 가지 사례만을 제시하여 체계적이지 않게 보인다.

존 캐릭(John Carrick)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문을 분석하여 설교의 주요 주제들뿐만 아니라 삼 단계의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설교문의 구성요소를 “Introduction,” “Doctrinal Exposition,” “Conclusion,” “Different Categories of Hearers,” “the Use of Instruction,” “the Use of Self-Examination,” “the Use of Exhortation”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sup>6)</sup> 하지만 구성요소들에 대한 그의 설명은 부분적이다. 그가 설교구성의 각 단계에서 열거하는 경우들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몇 가지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교리 단계에서 에드워즈가 주장하는 교리가 어떻게 발전되는가에 대하여 캐릭은 개념 분석이라는 경우만을 내세운다.<sup>7)</sup> 그런데 교리 단계에는 개념 분석이라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경우들도 있다. 그는 전체 사례들 가운데 일부만을 예로 들고 있어서 전체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이 논문은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문의 단계별 구성인 본문(text)-교리(doctrine)-적용(application)에 대한 연구이다.<sup>8)</sup> 현대 설교자가 이러한 용어만을 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설교문을 작성하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것은 각 단계를 나타내는 용어들이 그 자체로는 분명한 것 같지만 에드워즈의 설교에 있는 광범위하고 역동적인 내용을 담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근본적인 질문은 조나단 에드워즈는 설교문을 어떻게 구성했을까 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5) Ralph G. Turnbull, *Jonathan Edwards The Preacher*, 163-175.

6) Carrick, *The Preaching of Jonathan Edwards*, 121, 131, 175, 243, 271, 299, 317.

7) Carrick, *The Preaching of Jonathan Edwards*, 139-141.

8)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15; Wilson Kimnach, ed., *Jonathan Edwards: Sermons and Discourse 1720-1723*, vol. 10 (New Haven: Yale University, 1992), 32; Carrick, *The Preaching of Jonathan Edwards*, 121.

가지 연구 질문들이 대두된다. (1) 조나단 에드워즈 이전의 설교자들은 설교문의 단계별 구성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2) 에드워즈 설교문에서 단계별 구성 요소들의 종류는 무엇이며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가? (3) 에드워즈 설교문을 현대에 활용하려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이 연구 질문들의 초점은 에드워즈 설교의 단계별 구성 요소들에 대한 형식적인 틀이지, 근본적인 원리(본문 단계에서 성경해석이나, 교리 단계에서 논증이나, 적용 단계에서 다양한 적용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설교학에 대한 책을 쓰지 않았으나 약 1,200편의 설교를 남겼다.<sup>9)</sup> 이 논문에서 표본으로 삼은 설교문은 주로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에 있는 설교문이다. 그 이유는 이 설교들이 에드워즈의 생애의 한 부분에만 했던 설교가 아니라 전 생애에 골고루 했던 설교이기 때문이다.<sup>10)</sup> 또한 위의 설교집에 있는 14편 가운데 13편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그 이유는 제외한 한 편의 설교인 “성경의 빛”은<sup>11)</sup> “본문, 교리, 적용 같은 구분이 없고 교리에 대한 공식적인 진술도 없”어서<sup>12)</sup> 그의 설교문의 구성을 살피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 2. 조나단 에드워즈 이전의 설교문 구성에 대한 이해들

조나단 에드워즈의 본문-교리-적용이라는 설교문의 단계별 구성은 조나단 에드워즈 이전의 설교자들의 관심이기도 했다. 설교문 구성에 대한 연구는 영국, 화란, 미국에서 청교도뿐만 아니라 국교도 가운데서도 진행되었다. 그들의 설명은 매뉴얼처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에 영향을 끼친 이들이나 책들이 더러 있으나<sup>13)</sup> 여기에서는 설교문의 구성에 한정하여 윌리엄 퍼킨스

9)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7.

10)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이 책에 수록된 에드워즈 설교의 연표는 다음과 같다: “거룩의 길”(1722), “신앙의 즐거움”(1723), “구속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1730), “신적이며 영적인 빛”(1734), “그리스도의 탁월하심”(1738),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1738), “신학 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1739), “회심의 실재”(1740),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심”(1740),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1741), “불우이웃돕기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다”(1741), “심판 날 다시 만날,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1750), “성경의 빛”(1751),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1751). 마지막 두 편의 설교는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이다.

11)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41, 192.

12)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41.

13) 윌슨 김나흐에 따르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는 두 가지 방면으로 영향을 받았다(Kimnach, ed., *Jonathan Edwards: Sermons and Discourse 1720-1723*, 10-21). 첫째는 두 분의 실제적인 현장 선생님들이다. 한 분은 그의 아버지인 티모시 에드워즈(Timothy Edwards, 1669-1758) 목사이고, 다른 한 분은 그의 외할아버지인 솔로몬 스토다드(Solomon Stoddard, 1643-1729)이다. 이 두 분은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설교의 진면목을 직접 보여 주었다.

둘째는 두 책 John Edwards, *The Preacher* vol. 1 (London, 1705); Cotton Mather, *Manudictio ad Ministerium* (Boston, 1726)이다. 전자는 설교의 내용과 방법을 논한다고 하지만

(William Perkins, 1558-1602),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 1576-1633), 존 윌킨스(John Wilkins, 1614-1672)를<sup>14)</sup> 살펴볼 것이다. 설교문의 구성에 대하여 퍼킨스는 초석을 놓았고, 퍼킨스의 제자인 에임스는 더 발전시켰으며, 윌킨스는 정교하게 체계화했다.

첫째, 영국 청교도 운동을 이끈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인 윌리엄 퍼킨스이다. 퍼킨스에 따르면 설교문 준비에는 이 단계, 즉 해석(interpretation)-분해(cutting 또는 dividing)가 있으며, 분해에는 다시 분석(resolution)-적용(application)이 있다.<sup>15)</sup> 해석은 의미를 발견하는 주석의 단계이고, 분석은 교리를 찾아내는 단계이고, 적용은 그 교리를 적용하는 단계이다.<sup>16)</sup> 퍼킨스는 적용을 대상중심 적용과 내용중심 적용으로 나눈다. 대상중심 적용에는 일곱 가지가 있고, 내용중심 적용에는 이론적(mental) 적용과 실천적(practical) 적용이 있다.<sup>17)</sup> “이론적인 적용은 지성과 관계되며, 바른 교훈(doctrine)과 책망(reproof)을 포함한다.”<sup>18)</sup> “실천적인 적용은 생활양식 및 행동과 관계가 있고 지침(instruction)과 교정(correction)을 포함한다.”<sup>19)</sup> 퍼킨스는 특히 분석의 단계를 적용 단계로 묶음으로써 교리는 적용을 위해 있음을 강조한다. 퍼킨스의 설교문 준비단계는 크게는 이 단계지만 작게는 삼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윌리엄 퍼킨스의 제자인 윌리엄 에임스이다. 그는 영국에서 배우고, 화란에서 사역한 청교도이다. 에임스도 설교문을 크게 이 단계로 나눈다. 에임스에 따르면, 설교문에는 본문에 있는 것들(진리)의 언명(declaration)-적용(application)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sup>20)</sup> 그 이유는 신학적 원리(theological axiom)에 추론과

---

(John Edwards, *The Preacher*, vol. 1, 23, 157, 160) 설교의 방법에서는 설교문의 구성이 아니라 설교의 일곱 가지 법칙을 설명한다(John Edwards, *The Preacher* vol. 1, 163, 176, 197, 211, 275, 287, 305). 이 법칙은 설교에 대한 가치나 태도에 대한 언급들이다. 또한 후자는 설교의 주제, 혹은 설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리와 설교자의 마음과 태도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두 책 모두 설교문의 구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언급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14) 스테판 J. 니콜라스,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와 사상』, 203; Ralph G. Turnbull, *Jonathan Edwards The Preacher*, 106; Kimnach, ed., *Jonathan Edwards: Sermons and Discourse 1720-1723*, 10, 28; Heacock, “Rhetorical Influences upon the Preaching of Jonathan Edwards,” 23-24.

15) 윌리엄 퍼킨스, 『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사명』 채천석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6), 58, 81. 이 책은 1592년에 라틴어로, 그리고 1606년에 영어로 출간되었다.

16) 윌리엄 퍼킨스, 『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사명』, 58, 82, 89.

17) 윌리엄 퍼킨스, 『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사명』, 91-99. 퍼킨스가 분류한 일곱 대상 적용은 (1) “불신자이며 성경에 무지하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적용,” (2)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만 무지한 사람들에게 대한 적용,” (3) “지식은 있지만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적용,” (4) “이미 겸손해진 사람들에게 대한 적용,” (5)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적용,” (6) “믿음에서 실족한 사람들에게 대한 적용,” (7)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있는 교회에 대한 적용” 이다.

18) 퍼킨스, 『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사명』, 99.

19) 퍼킨스, 『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사명』, 100.

연역이라는 논리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추론된 신학적 원리는 언명과 연관이 있고, 연역된 신학적 원리에는 적용과 관련이 있다. 전자는 교리(doctrine)를, 후자는 교리의 활용(its use)을 각각 가리킨다.<sup>21)</sup> 언명은 교리를 발견하고 교리를 논증하는 단계이고, 적용은 판단(judgement)과 실천(practice)의 단계이다.<sup>22)</sup> 판단에는 교시(information)와 갱신(reformation)이 있고,<sup>23)</sup> 실천은 교훈(instruction)과 교정(correction)으로 이루어진다.<sup>24)</sup> 그는 적용의 목적으로 세 가지 대상을 제시한다.<sup>25)</sup> 놀린 자에 대하여는 위로(consolation)가 있고, (2) 선이 핍박 받음으로 좌절된 자에 대하여는 권면(exhortation)이 있고, (3) 악을 피하는데 좌절된 자에 대하여는 경고(admonition)가 있다.<sup>26)</sup> 적용에서 에임스는 교리의 발견을 주석에 해당하는 언명의 단계에 둬으로써 그 주석의 목적이 바로 교리의 발견임을 분명히 한다.

셋째, 영국의 국교도 존 윌킨스이다.<sup>27)</sup> 그는 앞에서 언급한 윌리엄 퍼킨스나 윌리엄 에임스가 설교문의 과정을 이 단계로 이해한 것과는 달리 명확하게 삼 단계로 제시한다.<sup>28)</sup> 그 이유를 하나님의 대언자에게 있는 세 가지 영역에 두고 있다. 이 영역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강하게 확신을 시키고, 능하게 설득하는 것이 있는데<sup>29)</sup> 이 세 가지가 설교문에서 해설(explication)-확신(confirmation)-적용(application)이라는 삼 단계로 드러난다는 것이다.<sup>30)</sup> 첫 단계인 해설에는 본문(text)과 교리(doctrines)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난해한 글들의 의미를 밝히고, 글의 구성을 파악하도록 본문을 나눈다.<sup>31)</sup> (본문에서 추론한) 교리에서는 교리적(doctrinal) 측면과 실천적(practical) 측면에서 주제의 의미(sense, meaning)를 논한다.<sup>32)</sup> 윌킨스는 해설 단계의 교리 과정에서 구분된 교리적 측면과 실천적 측

20) 윌리엄 에임스, 『신학의 정수』 서원모 옮김 (서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1992), 250. 이 책은 먼저 1623년에 라틴어로, 그리고 1642년에 영어로 출간되었다. 윌리엄 퍼킨스와 그의 제자 윌리엄 에임스의 설교비교에 대하여는 주도홍, “청교도 설교의 이해: 퍼킨스와 에임스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67(2013): 235-59를 참조하라.

21) 에임스, 『신학의 정수』, 251.

22) 에임스, 『신학의 정수』, 251-252.

23) 에임스, 『신학의 정수』, 252.

24) 에임스, 『신학의 정수』, 253.

25) 에임스, 『신학의 정수』, 253-254.

26) 에임스, 『신학의 정수』, 253-254.

27) Kimnach, ed., *Jonathan Edwards: Sermons and Discourse 1720-1723*, 28.

28) John Wilkins, *Ecclesiastes: or, A Discourse concerning the Gift of Preaching as it falls under the Rules of Art* (London: 1679), 7. 이 책 *Ecclesiastes*은 1646년에 첫판, 그의 사후 1679년에 6쇄, 1693년에 개정증보 7판이 발간된 바 있다.

29) Wilkins, *Ecclesiastes*, 7.

30) Wilkins, *Ecclesiastes*, 8-13.

31) Wilkins, *Ecclesiastes*, 8.

32) Wilkins, *Ecclesiastes*, 8-9.

면이 확신 단계와 적용 단계에서도 드러난다. 적용 단계에서도 교리적 측면은 일반적 지식과 특별한 지식으로 나뉜다.<sup>33)</sup> 일반적 지식은 교훈적(didactical) 지식과 변증적(elenctical) 지식으로 구성되고, 특별한 지식은 원인, 결과, 속성으로부터 얻는다. 실천적 측면에는 책망(reproof), 위로(consolation), 권면(exhortation)이 있다.<sup>34)</sup> 실천적 측면의 세 가지는 세 가지 대상에 대한 적용이므로 대상적용이다.<sup>35)</sup>

윌리엄 퍼킨스, 윌리엄 에임스, 존 윌킨스의 설교문 구성은 대체로 비슷하나 제 각각 독특한 점이 있다. 그들의 각 구성의 단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설교문의 단계별 구성				
퍼킨스	해석(의미 발견)	분석(교리 발견)	분해	
			대상	적용 내용(이론, 실천)
에임스	언명(교리 발견, 교리 논증)		적용	
			대상	내용(판단, 실천)
윌킨스	해설(본문[의미 규명], 교리[주제 논의; 교리, 실천])	확신(교리, 실천)	적용	
			교리(내용), 실천(대상)	

퍼킨스는 해석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이에 근거하여 분석에서 교리를 발견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에임스는 퍼킨스의 해석-분석을 언명의 일부로 삼는다. 그리고 언명의 다른 일부는 발견한 교리를 논증하는 것까지 나아간다. 하지만 윌킨스는 퍼킨스와 에임스의 이론을 종합하여 본문에서 의미를 규명하고 교리까지 논의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교리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단계를 둔다. 적용 단계에서는 퍼킨스와 에임스는 대상중심과 내용중심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윌킨스는 퍼킨스와 에임스와 근본적으로 이론과 실천, 판단과 실천과 같이 교리와 실천으로 나누지만, 교리를 내용중심의 적용으로, 실천을 대상중심의 적용으로 설명한다.

퍼킨스, 에임스, 그리고 윌킨스의 설교문 과정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용한 삼단계 본문-교리-적용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설교문의 단계별 구성						
	본문	교리	적용			
			대상 중심	내용 중심		
퍼킨스	해석(의미 발견)	분석(교리 발견)	일곱 가지	이론	실천	
에임스	교리 발견	교리 논증	세 가지	판단	실천	
윌킨스	본문(의미 규명)	교리(주제 논의: 교리, 실천), 확신(교리, 실천)	실천(세 가지)	교리		특별
				일반		
				교훈	변증	

33) Wilkins, *Ecclesiastes*, 13.

34) Wilkins, *Ecclesiastes*, 13.

35) Wilkins, *Ecclesiastes*, 13.

조나단 에드워즈의 본문 단계는 퍼킨스의 해석, 에임스의 교리 발견, 윌킨스의 본문에, 그리고 교리 단계는 퍼킨스의 분석, 에임스의 교리 논증, 윌킨스의 교리와 확신에 각각 해당한다. 적용 단계는 모두 적용으로 같다.

### 3. 에드워즈 설교문의 구성 요소들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문의 구성요소인 본문-교리-적용에 나타난 구성요소들의 역할과 종류를 살펴보자.

#### 3.1 본문-교리-적용의 역할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문에서 삼 단계인 본문-교리-적용의 역할을 보자. 그 역할을 목적과 방법과 논리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문	교리	적용
방법	본문 관찰	교리 전개	적용 제시
목적	주제/교리를 확정	주제/교리로 설득	주제/교리에 따름
논리	귀납법	연역법	연역법

먼저, 에드워즈의 설교문 삼 단계를 방법의 관점에서 말하면 (1) 본문 단계에서는 본문을 관찰한다.<sup>36)</sup> 그리고 관찰하여 얻은 소주제들을 근거로 주제/교리를 확정한다.<sup>37)</sup> (2) 교리 단계에서는 확정된 주제/교리를 전개한다.<sup>38)</sup> 전개하면서 그 주제/교리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확신을 시키게 한다. (3) 적용 단계에서는 전개된 주제/교리에 근거하여 적용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에드워즈의 설교문 삼 단계를 목적의 관점에서 말하면 (1) 본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한 본문의 주제/교리를 확정하는 과정이다.<sup>39)</sup> 이 주제/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확정한다. (2) 교리 단계는 확정된 주제/교리를 가지고 회중을 설득하는 과정이다.<sup>40)</sup> (3) 적용 단계는 설득한 주제/교리에 따르도록 하는 과정이다.

끝으로, 에드워즈의 설교문 삼 단계를 논리의 관점에서 말하면 (1) 본문 단계는 귀납법적이다. 관찰을 함으로써 사실들에 근거하여 주제/교리를 찾아 가기 때문이

36)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312; Carrick, *The Preaching of Jonathan Edwards*, 121,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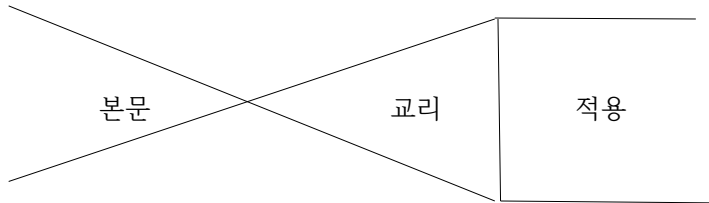
37)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93, 122, 145, 215, 265.

38)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215. Carrick, *The Preaching of Jonathan Edwards*, 137.

39)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215.

40)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168.

다. (2) 교리 단계는 연역적이다. 찾은 주제/교리를 전개시키기 때문이다. (3) 적용 단계도 연역법적이다. 전개된 주제/교리에 대하여 적용을 제시하기 때문이다.<sup>41)</sup>



### 3.2 본문 단계에 나타난 요소들의 종류

본문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본문을 관찰함으로써 소주제들을 얻고, 소주제들을 근거로 하여 주제를 확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성경본문 배경 해설, 둘째는 소주제들 확인, 셋째는 주제 확정이다.

소주제들과 주제에 대해 언급을 시작할 때는 주로 쓰이는 말들이 있다. 소주제들에 대하여 에드워즈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 논의가 시작됨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sup>42)</sup>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sup>43)</sup>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sup>44)</sup>

저는 ...에서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려고 합니다.<sup>45)</sup>

이제 이 본문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sup>46)</sup>

여기에는 4가지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sup>47)</sup>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음의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sup>48)</sup>

이 본문에서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지만...에 대해서만 주목하려고 합니다.<sup>49)</sup>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택한 ... 라는 표현은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심판과 멸망을 함축하고 있습니다.<sup>50)</sup>

41) Carrick, *The Preaching of Jonathan Edwards*, 135, 137.

42)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145.

43)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312.

44)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93.

45)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366.

46)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213.

47)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331.

48)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78.

49)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265.

50)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121.



여기에 주로 나타난 표현은 몇 가지 사실이나 의미에 대한 발견, 관찰, 살핌, 주목 등이다. 이런 표현들은 에드워즈가 소주제들을 나타낼 때 주로 많이 쓰는 표현들이다.

또한 주제에 대하여 에드워즈는 그 논의가 시작됨을 다음과 같은 말로 보여준다.

본문을 관찰함으로써 이제 저는 다음 사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sup>51)</sup>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설교의 주제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sup>52)</sup>  
이런 관찰을 바탕으로 저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sup>53)</sup>  
이 네 가지 항목 속에 모두 내포되어 있으며, 본문의 모든 부분 속에 담겨 있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sup>54)</sup>

여기에 주로 나타난 표현은 주제에 대한 주장, 전개, 말씀 등이다. 이런 낱말들은 에드워즈가 주제를 확정할 때 대체로 쓰는 표현들이다.

### 3.2.1 본문 배경 해설

조나단 에드워즈는 본문 단계에서 성경본문에 대한 배경을 세 가지로 해설한다.<sup>55)</sup> 첫째, 성경본문 배경 해설을 생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불우이웃돕기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다”라는 설교가 있다.<sup>56)</sup> 이 설교는 사도행전 10:4-6을 본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sup>57)</sup>

이 말은 소주제들을 확인할 때 시작하는 말이다. 이 설교에서는 설교할 본문의 배경적 설명 없이 곧바로 소주제들을 확인함으로써 설교를 시작한다.

둘째, 성경본문에 대한 원접 배경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믿는 자는 구원 받을 것이다”는 설교가 있다. 이 설교는 마가복음 15:15-16을 성경본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

51)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122.

52)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215.

53)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265.

54)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332.

55) Carrick, *The Preaching of Jonathan Edwards*, 126, 129, 130.

56) 다른 예로는 “신학 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 “회심의 실재,” “심판 날 다시 만날,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등의 설교가 있다.

57)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312.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는 유대인의 나라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다는 모든 나라는 해나 달이나 별을 예배하며, 각종 형상을 예하고 마귀를 예배했습니다... 그런 홍수 후 2-3백 년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은 점점 더욱 악해지고 참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세상의 다른 지역에서 그를 분리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그를 양육하시며,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참 신앙을 주셨습니다.<sup>58)</sup>

에드워즈는 마가복음 16장에 대한 근접 배경 설명이 아니라 노아홍수, 아브라함 등 원접 배경 설명으로 시작한다.

셋째, 성경본문에 대한 근접 배경 설명하는 것이다. 근접 배경 설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 (1) 본문 구절을 중심으로 연관된 단락의 문맥을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에드워즈의 설교 “구속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은<sup>59)</sup> 고린도전서 1:29-31을 성경본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설교를 시작한다.

바울 사도에게서 이 편지를 처음 받은 성도들은 인간의 지혜를 숭상하던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고린도는 여러 세대 동안 세상에서 철학과 학문으로 가장 유명한 장소였던 아테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sup>60)</sup>

에드워즈는 본문에 관한 고린도 지역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2) 본문 구절을 중심으로 연관된 단락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구원의 길”은 이사야 35:8을 성경본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설교를 시작한다.<sup>61)</sup>

이사야서는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탄생, 삶, 기적, 수난과 복음에 대해 언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35장에는 복음적 상태에 대한 영광스러운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 1. 이사야 35장 1-2절은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을 언급된 이방 나라의 회심과 구원을 통한 그리스도 왕국의 영광스러운 상태를 묘사합니다.

내용 2. 이어지는 이사야 35장 3-7절에서는 복음의 위대한 특권과 귀중한 혜택인 강함, 용기, 보상, 구원, 빛과 이해, 위로와 기쁨 등을 아주 잘 묘사합니다.

내용 3. 복음의 본질과 구원의 길이 잘 나타납니다. 첫 번째 특성은 이사야 35:8-9절에 나타난 것처럼 거룩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이사야 3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기쁨

58)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199-200.

59) 다른 예로는 “거룩의 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 “신적이며 영적인 빛,”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심,”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등의 설교가 있다.

60)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144.

61) 다른 예로는 “신앙의 즐거움”의 설교가 있다.

입니다.<sup>62)</sup>

에드워즈는 설교할 성경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배경을 설명한다.

### 3.2.2 소주제들 확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보통 성경본문 배경을 해설 후 성경본문에 근거하여 소주제들을 확인한다. 성경본문과 소주제들의 관계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소주제들이 성경본문을 드러낼 때 전체를 드러내느냐, 부분을 드러내느냐 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명시적으로 보여주느냐, 함축적으로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있다. 명시적이라 할 때는 “사실”<sup>63)</sup> 즉 직접적인 표현을 말하고, 함축적이라고 할 때는 “함축”<sup>64)</sup> “의미”<sup>65)</sup> 즉 함축적 의미를<sup>66)</sup> 말한다.

첫 번째 측면은 소주제들이 성경본문의 전체를 보여주느냐, 아니면 부분을 보여주느냐이다. (1) 많은 경우 소주제들은 성경본문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회심의 실재”에서는 요한복음 3:10-11을 성경본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소주제들을 확인한다.

성경: 예수께서 가라시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요 3:10-11)

소주제 1. 니고데모는 이러한 교리를 알아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주제 2. 11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중생 교리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sup>67)</sup>

여기에서 소주제 1은 10절에, 소주제 2는 11절에서 각각 근거하고 있어서 이 소주제들은 성경본문 전체를 반영하고 있다.

(2) 하지만 어떤 설교에서는 소주제들이 성경본문의 일부분만을 담고 있다.<sup>68)</sup>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5:5-6을 성경본문으로 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의 설교가 있다.<sup>69)</sup>

---

62)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61-62.

63)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78, 331, 366.

64)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121.

65)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213.

66) Carrick, *The Preaching of Jonathan Edwards*, 136.

67)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167.

68) Carrick, *The Preaching of Jonathan Edwards*, 135, 137.

69) Carrick, *The Preaching of Jonathan Edwards*, 137.

성경: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때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계 5:5-6)

소주제 1. 그리스도는 사자로 불립니다.

소주제 2. 그리스도는 양으로 불립니다.<sup>70)</sup>

이 성경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사자이시며 양이시라는 소주제들 외에도 유대 지파, 다윗의 뿌리, 보좌, 일곱 뿔과 일곱 눈 등 다른 소주제들도 있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사자와 양,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본문에서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지만 현재 논의의 목적상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부르는 두 개의 독특한 호칭에 대해서만 주목하려고 합니다.”<sup>71)</sup> 에드워즈는 그리스도를 사자와 양으로 부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니 소주제들을 두 가지로 제한한다.

두 번째 측면은 소주제들이 성경 본문을 반영할 때 명시적으로 하느냐, 함축적으로 하느냐 이다. (1) 소주제들이 성경본문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설교는 마가복음 16:15-16을 성경본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소주제들을 확인한다.

성경: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5-16)

소주제 1.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소주제 2.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sup>72)</sup>

소주제 1의 “구원 받을 것”과 소주제 2의 “멸망을 받을 것”(정죄 받을 것)이 마가복음 16:15-16에 명시되어 있다.

(2) 소주제들이 성경본문을 함축적으로 반영하는 경우이다.<sup>73)</sup>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에서는 신명기 32:35을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소주제들을 들고 있다.

성경: 그들의 실족할 그 때에 갇으리로다(신명기 32:35)

소주제 1. 그들은 항상 멸망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소주제 2. 그들은 항상 예기치 못하는 순간 갑작스럽게 멸망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70)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265.

71)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265.

72)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200.

73)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121, 213.

소주제 3. 본문에 함축된 다른 의미는 다른 사람이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소주제 4. 그들이 아직 넘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sup>74)</sup>

이 설교에서 네 가지 소주제들은 성경본문의 명시적 의미가 아니라 함축적 의미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요약하면, 성경본문을 드러내는 소주제를 확인할 때 성경본문과 소주제들의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다.

	전체	부분
명시	전체-명시	부분-명시
함축	전체-함축	부분-함축

성경본문에서 소주제들을 전체-명시적,<sup>75)</sup> 전체-함축적,<sup>76)</sup> 부분-명시적,<sup>77)</sup> 또는 부분적-함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3.2.3 주제 확정

주제를 확정할 때 ‘3.2.2 소주제들 확인’에서처럼 소주제들과 주제의 관계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주제가 소주제들을 요약할 때 한편으로 전체를 하느냐, 부분을 하느냐 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명시적으로 하느냐, 함의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있다.

첫 번째 측면은 주제가 소주제들을 모두 포함하느냐, 일부분만을 포함하느냐 이다. (1) 소주제들의 전체를 종합하거나 요약함으로 주제를 확정한다. 예를 들면, “거룩의 길”이라는 설교에서는 주제를 확정할 때 소주제들을 종합하거나 요약한다.

소주제 1. 본문에서 언급한 주제는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소주제 2. 이 구원의 길은 거룩한 특성이 있음을 묘사합니다.

주제: 오직 거룩한 사람만 천국 가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sup>78)</sup>

74)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121.

75) 예를 들면, “거룩의 길,” “신앙의 즐거움,” “신학 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 “구속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회심의 실재,” “신직이며 영적인 빛,”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 “불우 이웃돕기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등이 있다.

76) 예를 들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 “심판 날 다시 만날,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 등이 있다.

77)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등이 있다.

이 설교에서는 확인된 소주제들 두 가지에 근거하여 “오직 거룩한 사람만 천국 가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주제에 도달한다. 소주제 1의 “구원에 이르는 길”과 소주제 2의 “거룩한 특성”이 주제에 녹아 있다.

(2) 소주제들의 일부만을 요약함으로 주제를 확정한다. 예를 들면, “불우이웃돕기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다”는 설교의 주제가 다음과 같이 확정된다.

소주제 1. 고넬료가 열심히 실천하는 두 가지 의무는 기도와 구제라는 것입니다.

소주제 2. 고넬료가 이 두 가지 의무를 실천하다가 큰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주제: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하는 것은 영적인 은혜를 얻는 방법이다.

소주제 1에서는 기도와 구제를 강조하고, 소주제 2에서는 이 의무로 큰 은혜를 받았음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큰 은혜를 받는 방법이 기도와 구제라고 주제를 확정해야 하는데 에드워즈가 확정한 주제에는 구제만이 등장한다. 소주제들 가운데 일부만을 주제로 삼은 예이다.

두 번째 측면은 주제가 소주제들을 요약할 때 명시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함축적으로 하느냐 이다. (1) 소주제들을 명시적으로 요약하여 주제를 확정한다. 예를 들면, “거룩의 길”이 있다.

소주제 1. 본문에서 언급한 주제는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소주제 2. 이 구원의 길은 거룩한 특성이 있음을 묘사합니다.

주제: 오직 거룩한 사람만 천국 가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sup>78)</sup>

소주제들은 이사야가 언급한 내용들이다. 이 소주제들을 근거로 얻은 주제는 소주제들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2) 소주제들을 함축적으로 요약하여 주제를 확정한다. 예를 들면, “심판 날 다시 만날,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이 있다.

소주제 1: 바울 자신의 양심이 이를 증거합니다.

소주제 2: 바울 사도는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증거가 되는 것처럼 지금 자신의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양심이 자기의 위로라고 말합니다.

소주제 3: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역의 수고와 고통을 통해 얻기를 원하는 복된 열매는 마지막 큰 심판의 날에 있을 고린도 교인들의 행복과 영광입니다.

소주제 4: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것에 대해, 자신의 재판장이 그 날에

---

78)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63-65.

79)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63-65.

자기의 신실함을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제: 목회자와 교인들은 심판 날 그리스도의 재판석 앞에서 반드시 서로 만나야 한다.<sup>80)</sup>

소주제들은 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사역과 그로 인한 결과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에드워즈는 이 소주제들을 근거로 하여 그 관계를 목회자와 교인들이라고 보고, 그들이 또한 재판석 앞에서 만나야 할 것을 주제로 삼는다. 이 주제는 소주제들을 함축적으로 얻은 결론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요약하면, 소주제들을 주제로 요약할 때 소주제들과 주제의 관계에 대한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다.

	전체	부분
명시	전체-명시	부분-명시
함축	전체-함축	부분-함축

소주제들에서 주제를 전체-명시적,<sup>81)</sup> 전체-함축적,<sup>82)</sup> 부분-명시적,<sup>83)</sup> 또는 부분-함축적으로<sup>84)</sup> 확정할 수 있다. 이것은 소주제들을 확인할 때와 같이 주제들 확정할 때도 유사한 방법이다.

### 3.3 교리 단계에 나타난 요소들의 종류

교리 단계에서는 본문 단계에서 제시한 주제를 가지고 청중을 설득한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네 가지 방식으로 주제를 전개한다. 첫째, 주제를 개괄한다. 예를 들면, “신학 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서는<sup>85)</sup> 주제를 다음과 같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제: 모든 성도는 신학 지식이 증가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개괄 1: 신학이란 무엇인가?

80)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331-333.

81) 예를 들면, “거룩의 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 “구속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등의 설교가 있다.

82) 예를 들면, “신앙의 즐거움,” “신학 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불우이웃돕기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다” 등의 설교가 있다.

83) 예를 들면, “회심의 실재,” “천국은 사랑의 나라다” 등의 설교가 있다.

84) 예를 들면, “신적이며 영적인 빛,”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심판 날 다시 만날,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 등의 설교가 있다.

85) 다른 예로는 “거룩의 길,” “신적이며 영적인 빛,” “불우이웃돕기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다,” “심판 날 다시 만날,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등의 설교가 있다.

개괄 2: 신학이란 어떤 지식인가?

개괄 3: 왜 신학 지식이 필요한가?

개괄 4: 왜 모든 성도가 신학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sup>86)</sup>

에드워즈는 이 설교에서 주제를 네 가지로 개괄하고 있다.

둘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개념을 분석한다.<sup>87)</sup> 예를 들면, “구속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에서는<sup>88)</sup> 주제와 관련된 개념을 분석하고 있다.

제목: 구속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주제: 구속받은 자들이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때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분석 1: 구속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좋은 것을 위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분석 2: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통해 높임과 영광을 받으십니다.<sup>89)</sup>

제목: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주제: 악한 사람은 어느 순간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이 악한 사람을 어느 한순간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외에는 없다.

분석 1: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라도 악인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분석 2: 악인들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분석 3: 악인들은 이미 지옥형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분석 4: 악인들은 이제 지옥의 고통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대상입니다.

분석 5: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기만 하면 어느 순간이든지 악인들을 덮쳐 악인들을 자기 소유로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석 6: 악인들의 영혼 속에는 지옥의 원리가 왕 노릇 하고 있습니다.

분석 7: 죽음이 임박했다는, 눈에 보이는 뚜렷한 징조가 없다는 것이 악인에게 한순간도 안전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분석 8: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불신자 자신의 신중함과 조심성과 다른 사람을 주의하는 것이 한순간도 안전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분석 9: 모든 악인이 계속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악인으로 남아 있으면서 지옥에 들어가지

---

86)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96.

87) Carrick, *The Preaching of Jonathan Edwards*, 139-141.

88) 다른 예로는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심,”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등의 설교가 있다.

89)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147.



않기 위해 행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는 한순간도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분석 10: 하나님은 한순간도 불신자에게 지옥 가지 않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심으로 스스로 책임지실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sup>90)</sup>

위의 첫 번째 설교에서는 주제에 명시적으로 있는 두 개념들을 분석하고, 두 번째 설교에서는 주제에 함축적으로 있는 개념들을 분석한다.

셋째, 주제를 증명하기 위해 이유나 근거를 제시한다. 예를 들면, “회심의 실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제를 전개한다.

주제: 중생 사건은 분명히 있다.

이유 1: 인간의 행복은 창조주와의 연합에 달려 있습니다.

이유 2: 이성인 인간이 거룩하지 않은 본성으로는 창조주와 연합할 수도 없고 기쁨을 누릴 수도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유 3: 경험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이유 4: 이성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창조주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면 변화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유 5: 이런 변화는 틀림없이 아주 큰 변화일 것입니다.

이유 6: 성경은 이런 큰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증언합니다.

이유 7: 수많은 사람의 삶 속에서 인간의 본성이 변화되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sup>91)</sup>

이 설교에서는 중생 사건이 분명히 있음을 일곱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한다.

넷째, 주제에 대한 반론에 대해 논박한다. 반론잡재우기를 한다. 예를 들면, “신앙의 즐거움”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제를 전개한다.

주제: 신앙의 즐거움이 있다면 신앙을 갖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논박 1: 신앙은 사람이 다양한 감각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논박 2: 신앙은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달콤하게 제공합니다.

논박 3: 악인들의 즐거움은 즐거움보다는 슬픔을 더 많이 주지만 신자들은 참된 즐거움을 누립니다.

논박 4: 신앙은 사람에게 새로운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더 많이 줍니다.

논박 5: 신앙인은 다른 누구보다 영적 즐거움을 더 크고 달콤하게 즐깁니다.<sup>92)</sup>

90)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123-129

91)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168-170.

92)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80.

“신앙을 갖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주제의 반론에 대해 다섯 가지로 논박한다.<sup>93)</sup>

### 3.4 적용 단계에 나타난 요소들의 종류

조나단 에드워즈는 위에서 언급한 세 설교자들처럼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적용과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적용으로 나눈다. 먼저, 대상중심 적용이 있다. 대상은 영적 상태, 나이, 성, 신분 등 다양하게 나뉠 수 있다.<sup>94)</sup> 예를 들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에서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젊은이들,” “회개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로 청중이 나열된다.<sup>95)</sup> 또한 “심판 날 다시 만날,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에서는 “경건한 신앙 고백자들,” “약간 각성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 “어린이들,” “모든 사람들”로 열거된다.<sup>96)</sup>

다음으로, 내용중심 적용이 있다. 내용 적용의 요소들은 추론(inference), 자기점검(self-examination), 교훈(instruction), 경고(admonition), 권면(exhortation), 지침(direction) 등이 있다.<sup>97)</sup> 이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내용 적용	1	2	3	4	5	6
	추론	자기점검	교훈	경고	권면	지침

내용중심 적용의 요소들이 모든 설교문에 모두 다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한 요소만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요소들이 결합하여 나오기도 한다. 실제 각 설교의 적용 단계에서는 그 경우의 수가 다양해 진다. (1) 추론-자기점검-권면의 경우로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거룩의 길”을<sup>98)</sup> 예로 들 수 있다. (2) 자기점검-권면의 경우로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sup>99)</sup> 있다. (3) 자기점검-교훈

93)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79-80.

94) Carrick, *The Preaching of Jonathan Edwards*, 244, 262.

95)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130, 142, 143.

96)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351, 355, 356, 357, 359.

97) 캐릭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적용에 나타난 “교훈 혹은 추론”을 근거로 하여 추론과 교훈을 동의어로 이해한다(Carrick, *The Preaching of Jonathan Edwards*, 271). 하지만 다른 설교들에서는 추론과 교훈을 분리하여 사용한다. 자기점검 전에 추론을 두기도 하고, 후에 교훈을 두기도 한다. 추론과 교훈은 다른 요소들이다.

캐릭은 에드워즈가 사용하는 적용의 요소들을 분류할 때 퍼킨스가 구분한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이라는 기준으로 분류한다. 캐릭은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을 지성(mind)과 의지(will)이라는 용어로 바꾼다. 그는 지성에는 교훈이 포함되고, 의지에는 권면이 속한다고 한다(Carrick, *The Preaching of Jonathan Edwards*, 279, 317).

98)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73.

-권면의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첫 번째 설교인 “모든 덕행의 총합으로써의 사랑”<sup>100)</sup> 그 예이다. (4) 교훈-경고-권면의 경우에는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sup>101)</sup> 예로 들 수 있다. (5) 권면-지침의 경우에는 “신학 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sup>102)</sup> “회심의 실재”<sup>103)</sup>가 그 예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문의 구성요소인 본문-교리-적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문 단계에서는 세 과정을 거치고, 교리 단계에서는 네 가지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며, 적용 단계에서는 크게 두 종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본문(귀납법)			교리(연역법)	적용(연역법)		
	1. 배경해설	2. 소주제들	3. 주제		대상중심	내용중심	
						이론	실천
요소	생략, 원접, 근접(문맥, 내용)	전체-명시, 전체-함축, 부분-명시, 부분-함축		개괄, 분석, 이유제시, 반론잠재우기	영적 상태, 나이, 성, 신분, 등	추론, 자기점검, 교훈, 경고,	권면, 지침

첫째, 본문 단계에서 세 가지 더 작은 단계로 나뉜다. (1) 성경본문의 배경에 대하여 해설할 때 생략하거나, 원접 배경으로 하거나, 근접 배경으로 할 때에는 성경본문의 문맥이나 내용을 설명하기도 한다. (2) 소주제들이 성경본문의 내용을 모두 담아내기도 하고, 일부만을 담아내기도 한다. 또한 소주제들이 본문에서 명시되기도 하고, 암시되기도 한다. (3) 주제를 확정할 때에도 소주제들을 모두 드러내기도 하고, 일부만을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주제가 소주제들에서 명시되기도 하고, 암시되기도 한다. 둘째, 교리 단계에서 본문 단계에 있는 주제를 발전시켜 청중을 설득시킬 때에도 그 전개 방식은 다양하다. 때로는 개념을 개괄하기도 하고, 개념을 분석하기도 하고, 이유를 제시하기도 하고, 반론을 잠재우기도 한다. 셋째, 적용 단계에서 대상중심 적용과 내용중심 적용이 있는데 후자에는 여섯 가지 요소가 있다. 여섯 가지 가운데 몇 가지들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그 결합의 경우의 수는 많아진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문이 본문-교리-적용을 거치면서 펼쳐지는 경우의 수는 무한하다. 각 단계의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다. 어떤 한두 가지 패턴으로 규정지을 수 없다. 구성의 틀이 커서 어떤 내용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99)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208, 209.

100) 조나단 에드워즈,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서문강 율김 (서울: 청교도신앙사, 2012), 28.

101)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391, 395.

102)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113-134, 118.

103) 김나흐, 민케마, 스위니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176, 177.

#### 4. 현대적 활용

조나단 에드워즈의 본문-교리-적용이라는 삼 단계 구성의 틀은 오늘날 청교도형 설교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자와 후자의 설교문 구성을 비교하면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구성의 단계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문 구성은 삼 단계이지만 현대 청교도형의 설교문 구성은 오 단계이다.<sup>104)</sup>

	1단	2단/1단	3단/2단	4단/3단	5단
조나단 에드워즈	*	본문(text)	교리(doctrine)	적용(application)	*
Dabney 105)	서론	해설 (exposition)	명제 (proposition)	주논증 (argument)	결론
Glen C. Knecht 106)	서론	해설 (explication)	논증 (argument)	적용 (application)	결론
토마스 롱 <sup>107)</sup>	시작	성경본문해설 (exposition of the biblical text)	본문의 신학적 분석 (theological analysis of the text)	본문해석의 적용 (application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text)	마무리

에드워즈의 설교문에는 현대적의 의미의 서론과 결론이 없다.<sup>108)</sup> 에드워즈는 본문을 서론으로, 교리를 본론으로, 적용을 결론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이나, 현대 청교도형 설교는 에드워즈의 본문-교리-적용을 본론으로 보고, 본론 앞과 뒤에 서론과 결론을 추가한다. 현대 설교문에서 서론과 결론의 중요성을 더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론에서 청중의 관심 사로잡기와 결론에서 적용을 위한 동기부여에 강조한 것 같다. 이런 차이는 시대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각 구성요소들을 채우는 소재다. 에드워즈의 설교에서 예화는 성경, 수학 법칙이나 과학적 사실, 유비가 주를 이룬다.<sup>109)</sup> 역사의 일화뿐만 아니라<sup>110)</sup> 성경의

104) 배종열, 『설교의 날개를 펼쳐라』 (서울: CLC, 2014), 128.

105) Robert L. Dabney, *Sacred Rhetoric* (Richmond: Presbyterian Committee of Publication, 1870), 137-167, 214.

106) Glen C. Knecht, "설교의 구조와 흐름," 사무엘 T. 로건 『설교는 왜 하는가』 청정웅, 서창원 역 (서울: 말씀의 집, 1990), 352-354.

107) 로날드 알렌 편, 『34가지 방법으로 설교에 도전하라』 허정갑 옮김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4), 22-23.

108) Kimnach, ed., *Jonathan Edwards: Sermons and Discourse 1720-1723*, 37.

109) John D. Hannah, "The Homiletical Skill of Jonathan Edwards," 99: Carrick, *The Preaching of Jonathan Edwards*, 153, 160-161

인물도 언급하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그나마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모범적인 표본으로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증거로 말한다.<sup>111)</sup> 하지만 현대 설교에서는 스토리로 된 예화들이 등장한다. 토마스 롱의 설교 가운데 청교도형 설교로 분류된 “갈색과 초록색의 차이”에서도<sup>112)</sup> 성경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현대사의 스토리가 등장한다. 예화의 내용에 대한 차이 역시 시대의 영향으로 보인다. 에드워즈가 살던 시대는 주로 합리주의가 주류여서 과학적인 경험을 더 호소력이 여겼던 것 같고,<sup>113)</sup> 지금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스토리가 더 영향력을 더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리 단계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교리 단계에서는 신학적인 내용이 두드러졌다. 청교도들은 설교에서 교리와 적용, 이성과 감성 둘 다를 강조했다.<sup>114)</sup> 하지만 현대 청교도형 설교에서는 교리 단계에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이 수그러지고 있다. 토마스 롱의 설교 “갈색과 초록색의 차이”에서 보아도 신학적 분석은 청교도 설교에 비해 간소해졌다. 물론 현대 설교문의 각 단계에서 신학적인 논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신학적 분석(교리)의 유무는 설교자의 선택에 맡겼다는 점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설교자에게 신학적 분석은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문 구성과 현대 설교문 구성의 차이는 분명하다. 위의 논의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시대의 특징에 대한 문제이므로 현대 설교방식을 따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셋째는 본질에 대한 문제이므로 에드워즈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 5. 결론

조나단 에드워즈는 당시 전통적 설교문의 단계별 구성인 본문-교리-적용이라는 삼 단계를 이어 받았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전부터 내려온 구성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더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삼 단계에서 본문 단계는 세 가지 과정이 있고, 교리 단계는 네 가지 방식이 있고, 적용 단계는 크게 두 과정이 있어서 활용의 경우 수는 매우 많아진다. 전개 방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재는 역동적이다.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하다. 에드워즈의 삼 단계도 그 시대의 반영이므로 현대에 그 설교방식을 활용할 경우에는 현대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시대에 적합한 설교문 구성은 시대에 적합한 메시지만큼이나 필요한 부분이다.

110) Carrick, *The Preaching of Jonathan Edwards*, 130, 152, 165, 167.

111) Carrick, *The Preaching of Jonathan Edwards*, 167, 366.

112) 로날드 알렌 편, 『34가지 방법으로 설교에 도전하라』, 24-32.

113) Carrick, *The Preaching of Jonathan Edwards*, 21-23.

114) 브루스 비클, 『복음과 청교도 설교』 원광연 옮김 (서울: 청교도 신앙사, 2003), 42.

## 참고문헌

- 니콜라스, 스테펜 J.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와 사상』 채천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 류응렬. “열정에 사로잡힌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연구.” 『개혁논총』 17(2005): 155-184.
- 마즈던, 조지 M. 『조나단 에드워즈 평전』 한동수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3.
- 박현신.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분석을 통한 적용 패러다임 연구.” 『개혁논총』 25(2013): 283-321.
- 배종열. 『설교의 날개를 펼쳐라』. 서울: CLC, 2014.
- 비클, 브루스. 『복음과 청교도 설교』 원광연 옮김. 서울: 청교도 신앙사, 2003.
- 알렌, 로날드 편. 『34가지 방법으로 설교에 도전하라』 허정갑 옮김.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4.
- 양낙홍. 『체험과 부흥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 생애와 사상』.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3.
- 에드워즈, 조나단. 『놀라운 회심 이야기』 정부흥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서문강 옮김. 서울: 청교도신앙사, 2012.
- 에임스, 윌리엄. 『신학의 정수』 서원모 옮김. 서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1992.
- 이승진.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연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설교.” 『복음과 실천신학』 10(2005): 19-46.
- 주도홍. 『대각성 운동의 기수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 서울: 이레서원, 2001.
- , “청교도 설교의 이해: 퍼킨스와 에임스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67(2013): 235-59.
- 김나흐, 윌슨 & 민케마, 케네스 & 스위니, 더글라스 편.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백금산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5.
- 퍼킨스, 윌리엄. 『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사명』 채천석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6.
- Glen C. Knecht. “설교의 구조와 흐름.” 사무엘 T. 로건 『설교는 왜 하는가』 청정웅, 서창원 역. 서울: 말씀의 집, 1990.
- Carrick, John. *The Preaching of Jonathan Edwards*.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2008.
- Dabney, Robert L. *Sacred Rhetoric*. Richmond: Presbyterian Committee of

- Publication, 1870.  
 <<http://www.apuritansmind.com/wp-content/uploads/PDF/RLDabneySacredRhetoric.pdf>>
- Edwards, John. *The Preacher* vol. 1. London, 1705.  
 <<https://play.google.com/books/reader?id=6CVWAAAAYAAJ&printsec=frontcover&output=reader&hl=ko&pg=GBS.PR43>>
- Ehrhard, Jim. "A Critical Analysis of the Tradition of Jonathan Edwards as a Manuscript Preacher."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60(1998): 71-84.
- Hannah, John D. "The Homiletical Skill of Jonathan Edwards." *Bibliotheca Sacra* 159(2002): 96-107.
- Heacock, Clint. "Rhetorical Influences upon the Preaching of Jonathan Edwards." *Homiletic* 36(2011): 17-29.
- Kimnach, Wilson, ed.. *Jonathan Edwards: Sermons and Discourse 1720-1723*, vol. 10. New Haven: Yale University, 1992.
- Mather, Cotton. *Manudictio ad Ministerum*. Boston, 1726.  
 <<https://play.google.com/books/reader?id=gB9dAAAACAAJ&printsec=frontcover&output=reader&hl=ko&pg=GBS.PP3>>
- Turnbull, Ralph G. *Jonathan Edwards the Preacher*.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8.
- Wilkins, John. *Ecclesiastes: or, A Discourse concerning the Gift of Preaching as it falls under the Rules of Art*. London: 1679.  
 <<https://play.google.com/books/reader?id=AtEOEr4lfbgC&printsec=frontcover&output=reader&hl=ko&pg=GBS.PP1>>

[논평1]

## 배종열 박사의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문 구성 분석”에 관한 논평

김대혁 (총신대 실천신학)

### <여는 글>

마틴 로이드 존스(Martin Lloyd-Jones)는 자신의 책 『설교와 설교자』에서 “교회사야말로 설교자가 연구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분야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설교자, 특히 젊은 목회자에게 최고의 설교학 교과서는 다름 아닌 과거 경험 많은 설교 거장들(여기에는 조지 헛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스펀전 등이 있다)의 설교를 듣거나 읽는 것이라고 말한다. 로이드 존스의 이런 조언의 요지는 오늘의 청중을 향한 설교자에게 과거의 위대한 설교자들이 남긴 지혜와 설교적 유산들을 잘 활용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말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배종열 박사의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문 구성 분석”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가 지닌 전통적인 가치를 재확인하고, 이를 오늘날 현대설교에 적용함으로써 설교의 갱신을 말함으로써, 오늘날의 설교자들에게 매우 바람직한 설교학적 연구의 방향을 보여준 논문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이 논문은 현대 설교학의 발전적 궤도의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설교 내용과 형식은 현대 설교학의 발전 역사 가운데 두 큰 축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의 권위와 그에 기반 한 설교의 권위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설교학이 주로 바른 설교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면, 1960-70년대 이후 복미의 신설교학은 다양한 설교 형식에 더 깊은 관심을 쏟았다. 이후 현대 설교학에서 설교 내용만큼이나 설교의 형식이 중요하다는 점은 이제 설교학적 금언이 되었다. 실제 설교자는 설교문 작성에 있어서 올바른 내용과 그것을 담는 구체적인 형식을 매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문이 지닌 구성적 측면을 보다 세밀하게 다루어 현대적 활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설교하고자 하는’ 설교자에게 설교 형태를 정하는데 있어서 실제적 도움을 주는 논문이라 할 수 있다.

### <펴는 글>

#### 1. 논문의 주제와 전개 방법, 그리고 주요 논지들

연구자는 먼저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된 점을



밝히며, 특별히 Ralph Turnbull과 John Carrick의 구성적 측면에서의 분류가 지닌 한계를 지적한다. 그러면서 연구자는 기존의 본문-교리-적용의 삼단계 구성을 살펴보는 것으로는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 구성이 지닌 역동성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으로, 설교문을 구성적인 단계들 안에서 보다 세밀하고 촘촘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먼저 이전 설교자들과는 비교를 통하여 다른 조나단 에드워즈의 삼단계 설교구성이 지닌 특징을 확인하고, 각 단계별 안의 종류와 기능을 세분하여 살펴봄, 더 나아가 이를 통하여 현대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설교 구성에 있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구성법과 유사점을 띠는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1602),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 1576-1633), 존 윌킨스(John Wilkins, 1614-1672)의 설교 구성법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차이점과 더불어 삼단계로의 구체적인 발전사항을 확인한다. 그런 다음, 연구자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삼 단계 설교구성을 방법의 관점(본문 관찰, 교리 전개-적용 제시), 목적의 관점(주제/교리 확정-주제/교리 설득-주제/교리 실천), 진행 논리의 관점(귀납-연역-연역)에서 분석한다.

연구자는 보다 세부적으로 첫 단계인 본문 단계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요소들(배경 설명, 소주제의 확인, 주제 확정), 두 번째 단계인 교리 단계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주제 개괄, 개념 분석, 이유나 근거 제시, 반론의 반박),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적용 단계에서 나타나는 요소들(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적용-영적 상태, 나이, 성별, 신분 등과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적용-추론, 자기점검, 교훈, 경고, 권면, 지침 등)을 실제 설교문을 분석하고 제시하면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연구자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삼단계 설교 구성법과 소위 현대 청교도형 설교자로 구분한 설교자들의 구성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차이점(현대 설교의 서론과 결론의 구성의 첨가, 구성 요소들을 채우는 요소들 가운데 현대 설교에서의 스토리로 된 예화들의 등장과 빈번한 활용, 반면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의 축소 혹은 후순위)을 지적하며, 서론과 결론, 스토리의 활용은 시대적인 반영이라 이해하며, 교리와 신학적 내용에 있어서 오늘날 설교가 에드워즈 방식을 따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고 조언을 하며 글을 논문을 끝맺는다.

## 2. 논문의 공헌과 질의할 점

앞서 서문에서 지적한대로, 먼저 이 논문은 과거의 설교학적 유산의 가치를 재확립하고 오늘날 설교에 변용을 위한 가치가 두드러지는 논문이다. 자칫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설교의 '신상중후군'에 빠지기 쉬운 설교자들에게 설교 혁신 아니라, 전통의 검증을 통해 본질을 잘 답을 수 있는 길을 확인하고 설교의 갱신

을 꺾는다는 점에서 그 근본적인 가치가 크다.

더불어 이 논문은 자칫 삼단계 설교법으로 정형화해버리고 지나칠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패턴의 역동성을 실제 설교문의 분석과 제시를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자의 노고가 큰 논문이다. 실제 연구자의 참고문헌과 주석들은 청교도 전통이 지닌 설교 구성법과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를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언제부터인가 청교도적 설교는 현대 청중들을 향한 오늘날의 설교에는 진부하고 천편일률적이라는 오명을 벗기며, 오늘날 청교도적 설교를 실천하고자 하는 현대 설교자들에게 설교 구성의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헌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다소 논문의 완성도의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과 고민해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거리를 남긴다. 먼저 아쉬운 점은 연구자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구성법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현대설교에 대한 제언과 활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근거나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현대 설교에 있어서의 서론과 결론의 첨가, 구성 요소에 있어서의 스토리의 빈번한 사용은 시대적인 특징이며, 교리적이고 신학적 내용은 본질에 대한 문제이므로 에드워즈 방식이 따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고 간략하게 주장한다. 특히 교리와 신학적 내용의 감소가 어떤 면에서 설교의 본질적인 문제이고, 에드워즈 방식이 더 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보다 설득력이 높았을 것 같다. 실제 교리와 신학적 내용의 빈약함 역시도 시대의 특징이자 결과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경우, 교회 성장을 위한 목회적 패러다임이 주도하던 1970-80년대에는 교리교육과 교리 설교는 실천적으로 교회 안에서 매력을 잃어가면서 그 자리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요즘 절대적인 진리의 부정하는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서의 신앙의 정체성의 강조, 전통적으로 개혁교회가 고수해왔던 신앙 유산의 회복, 그리고 득세하는 이단들의 공격 앞에서, 점차 교리교육과 교리 설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전통적 가치와 시대적 요구의 측면에서 교리와 신학적 내용을 더 깊이 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에드워즈의 방식의 적합성을 논했으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듯하다.

논문의 분석은 뛰어나지만 그 함의가 약하다는 점과 더불어, 논문의 형식이 학회의 방식과 다른 지엽적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더라도, 연구자에게 반드시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연구자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청교도 전통의 설교학자들의 삼단계 적용의 부분에서 대상과 내용을 주로 구분하여 다루는 성향이 발견된다. 과연 이것이 실제 설교에서 적용할 내용과 대상의 분리가 가능한 지를 여쭙어 보고 싶다. 실제 일상 언어의 사용에서 전달해야 할 내용과 그 기능이 분리가 되

지 않는데, 실제 적용에서 대상과 내용을 분리하는 경향은 너무 지적인 혹은 인지적인 것을 강조하는 이론적인 체계에 초점을 둔 설교방법론은 아닌지 궁금하다. 만일 실제 적용에서 그 내용과 대상을 분리하지 않고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현대설교를 위한 청교도적 설교의 적용과 변용을 위한 조언이 단순히 교리적/신학적 내용의 함양과 더불어 청중을 향한 본문의 기능과 설교의 기능의 조화도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 여겨지기 때문이다.

#### <답는 글>

역사적으로 위대한 영적 거장이자 설교의 거장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구성법에 대하여 시간을 요구하는 세밀하고 자세한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신 연구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 더불어 연구자의 연구의 방향과 바람처럼, 오늘날의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위대한 설교의 유산을 활용하여 오늘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서 설교로 갱신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논평2]

## 배종열 박사의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문 구성 분석”에 대해

임도균 (침례신학대학교/설교학)

본 소논문은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의 설교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본 연구는 에드워즈의 설교가 제1차 대각성운동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배 박사는 에드워즈는 당시 주로 유행했던 전통적인 설교구성 방식인 “본문-교리-적용”을 기계적으로 답습한 고착된 설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에드워즈의 설교는 본문(세 가지 과정)-교리(네 가지 방식)-적용(두 과정)에 있어 역동적인 다양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청교도 전통 안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전형적인 구조(본문-교리-적용)를 따랐다. 하지만 전에 있던 설교자들과 차이점 있고 에드워즈의 설교구성은 현대설교자들도 참조할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1) 에드워즈 이전의 설교자들의 설교 구성에 대하여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고찰하고, 2) 에드워즈 설교의 단계별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3) 에드워즈의 설교를 현대 설교자들과 비교하여 현대에 배울 점을 찾으려 한다. 연구자는 에드워즈의 설교 중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에서 설교구성이 명확한 13편의 설교문을 중심으로 설교구조를 분석하고 예로 제시한다.

배 박사는 먼저 조나단 에드워즈 이전의 설교문 구성을 분석 한다. 이 때 1)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2)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 3) 존 윌킨스(John Wilkins)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한다. 설교 구성에 있어서 퍼킨스는 청교도 설교의 전형적인 구조(본문-교리-적용)에 기초를 놓았고, 에임스는 퍼킨스의 방법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윌킨스는 좀 더 조직화 하였다. 1) 퍼킨스는 해석(interpretation, 의미 발견)-분석(cutting, 교리 발견)-적용(application, 대상-일곱 가지/내용-이론실천)으로 설교를 구성한다. 퍼킨스는 교리 분석 후 적용에 초점을 둔다. 2) 에임스는 설교를 두 단계로 언명(declaration)과 적용(application)으로 나눈다. 언명은 교리 발견, 교리 논증으로 구성되고, 적용은 대상(내용-세 가지)과 내용(판단, 실천)으로 나눈다. 에임스는 주석과 교리의 연관성을 더욱 강조한다. 3) 영국의 국교도 윌킨스는 세 개의 단계로 설교를 구성한다. 해설(explication)과 확신(confirmatio)과 적용(application)이다. 해설은 본문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고 교리는 주제를 논의 하는 것이다. 확신은 교리적 측면과 실천(세 가지)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적용은 교리(내용)와 실천(대상)이다. 배 박사는 에드워즈 이전 세 설교자의 설교구성의 공통점과 특이한 점을 도표로 시각화하여 정리 한다.

또한, 연구자는 에드워즈의 설교가 기본적 구성요소(본문-교리-적용)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한다. 1) 본문 단계에서는 본문을 관찰하여 주제와 교리를 정한다. 본문 단계에서 본문의 배경을 설명한다. 에드워즈는 세 가지 방법으로 본문배경을 설명한다. 성경본문 배경을 생략하거나, 원점 배경을 설명하거나 근점 배경을 설명한다. 이후 본문 안에 있는 소주제를 발견 한다. 연구자의 시각으로 에드워즈의 소주제 확인 방법은 두 가지이다. 이 두 가지 방법에 관해 부연하자면, 소주제가 ‘성경 본문 전체에서 나타나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보여주는지?’이다. 또한 ‘본문이 소주제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지 아니면 함축적으로 보여주는지’이다. 본문연구 단계의 마지막에는 소주제들을 종합하여 주된 주제를 찾는다. 본문에서 발견된 소주제들을 통하여 주된 주제를 찾을 때는 ‘전체 또는 부분으로 요약하는가?’ 또는 ‘명시적 또는 함축적인가?’를 살피면서 주된 주제를 찾는다. 이때는 귀납적 접근을 한다. 에드워즈는 실제 설교 중 본문단계에서 주제에 대한 주장, 전개,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 교리 단계에서는 본문에서 발견된 주제와 교리를 발전시키고 더욱 명확하게 교리적 요소를 강조하고 확신 있게 설득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청중을 설득시키는 방법은 다양하다. 가령 때로는 개념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며 설명하기도 하고, 개념을 분석적으로 접근하기도 하며, 이유를 제시하기도 하고, 반론을 잠재우기도 한다. 이때 연역적 방법으로 설교를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청중에게 본문에서 발견된 교리를 설명하고 설득한다. 3) 적용 단계에서 에드워즈는 본문에서 발견된 교리로 설교하고 청중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주제와 교리를 연역적으로 설득한다. 이 단계에서는 대상중심(영적 상태, 나이, 성, 신분) 적용과 여섯 가지 내용중심(추론, 자기점검, 교훈, 경고, 권면, 지침) 적용이 있다. 여섯 가지 가운데 몇 가지들이 서로 연결됨으로 그 결합의 경우의 수는 많아진다. 배 박사는 이와 같이 에드워즈 설교의 구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므로 에드워즈 설교가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배 박사는 마지막으로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문 구성과 현대의 청교도적 설교자들(Robert L. Dabney, Glen C. Knecht, Thomas Long)의 설교유형을 비교 및 대조하여 분석한다. 연구자는 세 가지 영역에서 차이점을 보여준다. 1) 설교 구성의 단계의 차이이다. 에드워즈의 설교는 3 단계(본문-교리-적용)로 구성되지만 현대 청교도형의 설교 구성은 5 단계(기본 3 단계 구성에 서론과 결론이 추가됨)이다. 현대 설교는 청중과의 소통을 더욱 중요시 한다. 2) 각 설교 구조에 살을 붙이는 요소에도 차이점이 있다. 에드워즈의 설교에서는 성경적 내용과 이성적인 지식과 신학적 설명이 많다. 하지만, 현대 설교에서는 스토리로 된 예화의 비중이 더욱 높다. 3) 설교에서 교리의 비중에도 차이점이 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에서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의 비율이 높다. 하지만 현대 설교에서는 교리적 부분은 개인설교자의 역량과 상황에 따라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경향이 있다. 배 박사는 이러한 차이점 중 현대설교가 소통을 강조 것은 합당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현대 설교에서 교리적 설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자는 제1차 대각성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구성 방법을 반추하게 하는 바람직한 연구를 했다. 특히, 조나단 에드워즈 이전의 설교자들(윌리엄 퍼킨스, 윌리엄 에임스, 존 윌킨스)의 설교 구성 요소를 비교 연구하므로 에드워즈의 설교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에드워즈의 설교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매우 탁월한 설명이다. 또한 현대 청교도형 설교자들과의 비교 연구는 에드워즈 설교의 좋은 점을 현시대에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도표로 정리한 부분은 독자들로 하여금 각각의 설교자들의 설교구성 요소의 차이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깊이 있는 교리적 설명이 결여가 되고 있는 현대 설교에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설교에 대한 강조는 바람직한 방향 제시이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다. 몇몇 번역된 용어들(장르별 분류, 언명, 원접 배경 등)은 표현이 어색하다. 문장들 간에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곳이 있어 읽는 데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 종종 있다. 또한 적절한 길이의 문단 나누기가 있으면 더욱 좋겠다. 더불어 결론에서 전체 논문을 좀 더 정리하여 주면 좋겠다. 또한, 각주에서 앞에서 인용한 자료를 연속적으로 인용시 Ibid.로 정정하였으면 한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연구자에게 여쭙길 원한다.

1) 본 논문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현대설교자들의 설교를 비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몇 청교도형 설교자들(Robert L. Dabney, Glen C. Knecht, Thomas Long)을 소개한다. 그런데 이러한 설교자들을 선정한 기준과 이유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왜 이러한 설교자들을 선정하였는가?

2) 본 연구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구성의 독특성을 예로 설명하기 위해서 1200편의 설교 중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에 나온 13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에드워즈의 전체적인 설교특징을 설명하면서 연구 표본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3) 본 논문의 “현대적 활용”에서 연구자는 현대 설교에서 신학적 분석(교리)가

더욱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현대 설교에서 교리 내용을 실제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좋겠는지 연구자의 생각을 듣기 원한다.

본 논문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구성을 분석적으로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에드워즈의 설교는 전통적인 “본문-교리-적용”을 기계적으로 답습한 설교가 아니라, 본문(세 가지 과정)과 교리(네 가지 방식)과 적용(두 과정)에 있어서 역동적인 다양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금 한국교회는 이단의 공격에 많이 노출된 상황이다. 배 박사의 교리 강조는 한국 교회의 설교가 신학적으로 더욱 단단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반추하게 하는 값진 제안이라 생각 한다. 한국교회에서 건전한 신학적 설교 발전을 위한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배종열 박사께 감사드린다.

## “영성생활의 해석학적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최창국 (백석대)

### I. 들어가는 글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교회 일을 더 많이 하고, 예배에 더 많이 출석하는 것을 영성생활의 시금석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과 삶은 영성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영성생활은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동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통전적인 삶과 전인성 회복과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성생활은 인간의 영적인 차원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차원과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깊어지고 확대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영성생활은 육체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 안에서 확대되고 구체화된다. 인간의 영성생활은 영혼과 몸, 자신이 속한 전통과 현재 상황, 개인과 공동체, 이론과 실천, 기도와 노동, 선호하는 차원과 덜 선호하는 차원과의 순환 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혁신되고 발전된다.

영성생활의 해석학적 패러다임에서 통전적인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즉 영성생활은 성경적 신학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경험적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성경적 신학적 이해와 경험적 과학적 이해와는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영성생활의 해석학적 패러다임에서 이 둘의 관계를 혼동해서도 안 되지만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아서도 안 된다. 영성생활은 오직 영적인 차원과만 관계된다고 보아서 안 된다. 신학적 이해와 경험적 과학적 이해는 모두 영성생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신학과 영성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성경이다. 하지만 신학과 영성의 자료는 성경만이 아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형성된 내용도 신학과 영성의 자료이고, 인간의 정신세계와 몸에 대한 임상적 연구 자료 그리고 세계에 대한 연구도 신학과 영성의 자료이다. 따라서 철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자연과학도 신학과 영성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일반계시와 자연계시를 인정한다면, 자연 과학적 관찰과 지혜와 지식 역시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학과 영성의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성생활에 대한 해석에서 성경과 신학뿐만 아니라 특히 인



간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와 함께 인간 경험에서 발생한 임상적 자료들을 바르고 균형 있게 사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John Calvin은 성경 연구의 중요성도 인식하였지만, 동시에 그가 살던 시대에 인문학의 르네상스에 대해 감사하였다.<sup>1)</sup> 그는 자연과학도 하나님의 선물로서 인류의 유익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라고 보았다. 참된 자연과학의 궁극적 원천은 성령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sup>2)</sup> 그는 인문학이 인간가치를 계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과학은 하나님의 선한 은사라는 점에서 연마되어야 한다고 믿었다.<sup>3)</sup> 그는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로부터 독립하여 인간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전적인 영성생활을 위한 해석학적 순환의 구조와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영성생활의 해석학적 시금석으로서 ‘확대된 자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확대된 자아는 통전적인 영성생활을 위한 해석학적 순환 구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영성생활의 해석학적 패러다임으로서 고전적 패러다임과 임상적 패러다임 그리고 상황적 패러다임에 관한 논의를 통해 영성생활의 동사적 관계적 경험적 상황적 해석의 중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통전적인 영성생활의 해석학적 패러다임의 구조와 특징들을 밝히고자 한다.

## II. 펴는 글

### 1. 영성생활의 해석학적 시금석으로서 ‘확대된 자아’

통전적인 영성생활을 위해서는 관계적 존재로서 인간을 해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체로서 본질상 관계적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은 참된 관계 안에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따라서 영성생활을 위한 해석학적 패러다임에서 관계적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James Torrance는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단지 한 개체로서의 인간이 아닌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교통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자로 이해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교리의 산물”이라고 하였다.<sup>4)</sup> 그는

1) W. Stanford Reid, ed., *John Calvin: His Influence in the Western World*, 홍치모 이훈영 역,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17.

2) W. Stanford Reid, ed.,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17.

3) W. Stanford Reid, ed.,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18.

4) James B. Torrance, *Worship, Community and the Triune God of Grace* (Dowers Grave: IVP, 1996), 38.

“인간은 관계, 사랑, 교통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고 강조하였다.<sup>5)</sup>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로서 창조된 인간은 비록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과 분리되지 않는 관계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관계적 자아로서 인간은 하나님, 자신의 몸과 정신, 다른 피조물, 전통,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식과 실천, 예술품, 제도 등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해 간다.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관계들 안에서 삶의 정체성, 의미, 가치, 믿음 등을 경험하며 실현해 간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계적 자아로서 인간은 ‘확대된 자아’(extended self)로서 자신을 경험하게 된다. 확대된 자아란 개념은 Andy Clark와 David Chalmers가 말한 ‘확대된 정신’에서 제시한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다.<sup>6)</sup> 이들은 정신이 단지 뇌와 인간의 몸 안에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라고 여기는 것은 오류라고 주장한다. 정신은 인격적 주체가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사용하는 도구나 다른 요소들을 통하여 외부 환경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치매로 인하여 기억 상실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억을 돕기 위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의 메모장에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의 길을 적어 놓고 사용하는 경우다. 이때 자신의 메모장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자신의 통제 하에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자신의 정신은 자신의 메모장과 함께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뇌와 자신의 메모장은 자신의 확대된 정신을 구성하는 ‘짜지어진 체계’라는 것이다.<sup>7)</sup>

신학적 맥락에서 ‘확대된 자아’는 인간을 ‘통전적인 자아’로서 해석하도록 안내한다.<sup>8)</sup> 인간은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여러 차원들(aspects), 즉 정신과 몸 등이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과의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확대된 자아’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 또한 확대된 자아는 자신이 속한 전통과 공동체 등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나아가 확대된 자아의 개념은 그리스도와 모든 신자와의 관계에서도 발견된다.<sup>9)</sup>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라는 진술을 통해 자아의

5) James B. Torrance, *Worship, Community and the Triune God of Grace*, 39.

6) Andy Clark and David J. Chalmers, “The Extended Mind,” *Analysis* 58(1998): 10-23.

7) Andy Clark and David J. Chalmers, “The Extended Mind,” 6.

8) 인간이 통전적인(holistic) 존재란 말의 의미는 인간의 관계나 삶에서 여러 요소들이나 차원들이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인간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신과 몸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으며, 인간의 삶에서 예배생활과 가정생활은 구분은 되지만 그 본질적 가치에서는 분리되거나 차등화 될 수 없다는 관점이다.

9) 인간은 성부와 성자와의 교제를 누리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신적 본성과는 여전히 구별된다 (Donald Fairbairn, “Grace As Sharing Divine Communion,” in *Grace and Christology in the Early Chur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63-104).

확장성을 증명한다. 이는 그리스도와 모든 신자는 서로에게 속한 확대된 자아로서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신자는 서로 상호 내주하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신자와 만물과의 관계를 통해 확장되고, 모든 신자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의 자아가 확대된다.

확대된 자아는 통전적 관계 안에서 자란다. Howard Clinebell은 인간을 통전적(holistic)으로 이해한다. 그는 인간을 영혼과 몸으로 분리하여 이해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과 자연과 생물학적 차원까지 확대된 관계 안에서 인식한다. 그는 목회상담의 목적을 전인건강으로 이해하고, 전인건강을 위한 6가지 중요한 차원을 언급했다.

- 1) 마음을 복돋아 주는 일
- 2) 인간의 몸의 생기를 회복시키는 일
- 3) 다른 사람과의 친밀 관계를 갱신하고 강화하는 일
- 4) 자연과 생물권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일
- 5) 개인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직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성장
- 6)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일<sup>10)</sup>

Clinebell이 언급한 6가지 차원은 인간의 전인 건강은 확대된 자아 또는 통전적 관계 안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피력한 것이다. 이것은 확대된 자아가 전인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경험되어야 하는 관계적 차원들을 의미한다.

영성생활은 인간의 영적 차원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차원과의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깊어지고 확대된다. 인간의 영성생활은 신체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 안에서 확대되고 구체화된다. 인간의 영성생활은 영혼(정신)과 몸, 자신이 속한 전통과 현재 상황, 개인과 공동체, 이론과 실천 등과의 순환 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혁신되고 발전된다. 따라서 확대된 자아의 개념은 영성생활의 해석학적 패러다임(paradigm)<sup>11)</sup>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10) Howard Clinebell, *Basic Type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박근원 역, 『목회상담론』(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56.

11) 패러다임은 사람의 인식을 형성하는 함축적이거나 명시적인 규칙을 바탕으로 사물을 보는 방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는 규칙이나 경계가 변할 때 발생한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사물을 같은 시각으로 보지 않게 된다. 즉 규칙이 변화하면 바라보는 방법도 바뀌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패러다임 변화의 가장 극적인 예는 천문학의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다. 코페르니쿠스의 발견 이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행성들이 돌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의 새 발견으로 인하여 우주의 모든 관측들이 지구 중심에서 태양 중심으로 관점이 바뀔 때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Marcel Proust의 진술에서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난다. 그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라

## 2. 영성생활의 해석학적 순환의 구조

통전적인 영성생활은 다음과 같은 해석학적 순환의 패러다임을 통해서 변증법적으로 구성되고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먼저 영성생활을 위한 해석학적 순환은 영혼(정신)과 몸의 관계에서 일어난다. 전통적으로 영성생활은 신체적 차원이나 활동과는 구분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은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영성생활은 영혼이나 정신과만 관계되고 몸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영성생활은 몸을 포함한다. 영성생활은 영혼이나 정신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몸과도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순환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중의 순환관계를 인식한다. 먼저 영성생활의 영혼과 몸은 순환관계가 있다. 이 두 차원은 효과적인 설명과 이해를 위해서 구별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인 순환관계 안에 있다. 영혼은 몸을 통

---

고 하였다(Kenneth D. Boa, *Conformed to His Image*, 송원준 역, 『기독교 영성, 그 열두 스펙트럼』 (서울: 디모데, 2005), 67에서 인용). 논자가 ‘패러다임’이란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통전적(holistic) 관점에서 영성생활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다.

- 12) 해석학에서 Friedrich Ast와 Friedrich Schleiermacher에서 시작된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al circle)은 19세기 이후 해석학의 표준적인 기술적 용어의 일부가 되었다. Schleiermacher에 따르면 “완전한 지식은 언제나 명백한 순환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순환에서 모든 부분은 그것이 속해 있는 전체로부터 이해되며 그 역 또한 성립된다”(Friedrich Schleiermacher, *Hermeneutics: The Handwritten Manuscripts*, edited by Heinz Kimmerle (Missoula: Scholars Press, 1977), 113). 해석학적 순환의 아이디어는 Grant Osborne에 의해서 점진적인 ‘해석학적 나선’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Osborne은 순환이라는 방법론적 개념을 ‘해석학적 나선’이라는 용어로 발전시켰다. Osborne이 새로운 용어를 제시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하나는 ‘나선’이라는 말은 시작점인 선이해에서 좀 더 완전한 이해로 이행하는 상승적이고 구성적인 과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교정이나 변화를 위한 요구를 검토하고 비평하기 위해 예비적 이해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한다. 다른 하나는 선이해와 이해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대화는 이해에서 부분적인 차원은 전체적 이해 안에서만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우리는 개별적인 조각이나 부분을 보거나 이해하지 않고는 전체 그림이나 이해에 다다를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전체로서의 큰 그림의 특징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개별 조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Osborne은 최초 수용자들에게 전달된 텍스트를 광범위한 상황에 통합시키는 나선 구조로서의 해석학에 대한 개념을 제공했다. 그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텍스트가 특정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라는 렌즈를 통해 텍스트가 드러내는 의미를 해석해 가는 현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까지 해석학의 영역을 확장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아닌 텍스트에 근거해서 해석을 진행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았다(Grant R. Osborne, *The Hermeneutical Spiral: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VP, 1991), 5). Osborne이 제시한 해석학적 나선구조는 텍스트와 상황, 텍스트의 표층적 차원과 심층적 차원, 텍스트와 세계와의 대화, 즉 양자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대화를 시작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현재에 대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해 영성생활을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이는 마치 한 여인이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할 때 몸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영성생활도 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몸의 중요한 차원인 뇌는 우리의 영성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물론 몸도 정신이나 영혼 없이 영성생활을 실현해 낼 수 없다는 것도 진실이다.

영성생활이 인간의 정신이나 영과만 관련되고 몸과는 분리된다는 관점은 영지주의적이고, 신플라톤적이며,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다. Nicholas Thomas Wright는 “세상과 하나님, 물질계와 영계, 땅과 하늘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모든 세계관과 모든 형태의 영지주의”는 궁극적으로 성경적 관점과 배치된다고 보았다.<sup>13)</sup>

주후 6세기 위 디오니시우스(Pseudo-Dionysius) 시대 때부터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끼쳐온 신플라톤주의는 기독교의 구원과 영성생활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영적 삶은 물질과 몸과 분리된 순전히 영적인 영역으로 도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개별자들로 이루어진 변화하는 세계를 떠나서 변화하지 않는 일자(the One)의 세계로 도피하는 것이라고 여겼다.<sup>14)</sup>

인간의 영성생활에서 몸은 결코 간과되거나 배제될 수 없다. 몸은 영성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몸은 피부에 의해 그 어느 정도의 경계가 정해지는 인간의 독특한 자아의 원천이다. 동시에 몸은 우리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연결해 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Stephanie Paulsell은 우리가 몸과 함께 살아간다는 역설, 즉 몸에 의해 제한을 받으면서 몸을 통해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역설에 대해 서술한다.

우리의 몸은 다른 이들의 몸과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와 자기 몸이라는 제한된 통일성 안에서 존재한다.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도, 비밀이 지켜지고 몸 안에 간직될 수 있다.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이라도, 다른 사람의 내적 삶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신체적 경험을 공유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우리 몸이 가장 가까운 이들의 몸과 구별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몸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친절한 관계이거나 잔인한 관계가 되고, 배려하는 관계나 업신여기는 관계가 된다.<sup>15)</sup>

---

13) Nicholas Thomas Wright, *Surprised by Hope: Rethinking Heaven, the Resurrection, and the Mission of the Church* (New York: HarperOne, 2008), 104.

14) 신플라톤주의가 어떻게 기독교 영성 안으로 들어 왔고, 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에 대한 통찰력 있는 설명은 Evelyn Underhill, “A Historical Sketch of European Mysticism from the Beginning of the Christian Era to the Death of William Blake,” in *Mysticism: A Study in the Nature and Development of Man's Spiritual Construction* (New York: Meridian Books, 1955), 453-73.

15) Elizabeth Liebert, *The Way of Discernment: Spiritual Practice for Decision Making*, 이강

비록 우리의 몸은 제한과 자유, 연약함과 거룩함의 긴장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지만, 인간의 '온전한 자아'는 몸을 포함한다. 그리고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몸이 간과되거나 무시당해서는 결코 안 된다. 몸은 결코 자아를 축소시키는 통로나 본능적 자아의 매개체가 아니라 온전한 자아 또는 확대된 자아를 위한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영성생활을 위한 두 번째 해석학적 순환의 패러다임은 이해의 선구조와 실제적인 경험 사이의 순환관계이다. 우리는 '세계-내-존재'로서의 현존재의 주관성 안에서 영성생활을 실현해 간다. 즉 영성생활은 이해의 선구조, 지평, 또는 영향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어떤 객관적 실재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 경험과 해석은 진공이나 백지 상태에서 이해되고 형성되거나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인 주관성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 전통에서 영성생활의 이해의 선구조는 일차적으로는 구약성경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형성되었으며, 이차적으로는 헬레니즘의 사상적 전통 안에서 형성되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성경과 유대교의 영향사 안에서 영성생활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기독교가 헬레니즘 세계로 옮겨감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헬레니즘의 문화 사상적 지평 안에서 영성생활을 새롭게 해석하고 표현하게 되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생활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몸과 노동과 분리된 영성생활이 편만하게 되었다.

물론 영성생활에서 이해의 선구조와 실제적 경험과 해석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역사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자신들의 이해와 사고의 지평인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빛 안에서 영성생활을 경험하고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영성생활의 경험의 빛 안에서 헬레니즘의 영적 의미를 재해석하였다. 특히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노동의 영적 의미에 대한 재해석과 새로운 발견은 매우 중요한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의 영성생활은 헬레니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도 사실이지만 기독교가 헬레니즘을 재해석한 것도 사실이다. 기독교가 헬레니즘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헬레니즘도 기독교화 되었다. 즉 이 둘 사이에는 순환적이고 변증법적인 지평융합이 이루어졌다.

영성생활에 대한 이해와 발전과정에서 이해의 선구조와 실제적인 경험과 해석 사이의 이와 같은 해석학적 순환과 변증법적 지평융합이 기독교 안에서 일회적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해석학적 순환은 초기 교회 이후 고대, 중세, 근대의 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있어 왔으며, 오늘과

---

학 역, 『영적 분별의 길』 (서울: 좋은씨앗, 2016), 176.

내일의 영성생활의 형성과 발전의 과정에 계속 이어지게 된다. 영성생활을 위한 해석학적 과제는 어떻게 순환관계로부터 벗어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바른 순환관계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지평융합이 변증법적이고 창조적인 지평융합이 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다.

영성생활을 위한 세 번째 해석학적 순환의 패러다임은 전통과 경험 사이의 순환관계이다. 전통과 새로운 상황 속에서의 영적 경험 사이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순환적이고 변증법적인 것이다. 이 둘 사이에는 상호적인 순환관계가 존재한다. 영성생활의 과제는 전통의 지평과 현재적 경험의 지평 사이의 융합이 올바르게 일어나도록 하는데 있다. 영성생활의 올바른 해석학적 지평융합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그 구체적인 과정은 전통의 영향사적 구조 안에서의 동의의 해석학과 그 전통에 대한 비평적 해석학을 동시에 요구된다. 전통이 오늘날의 영적 경험의 지평을 제공함과 아울러 그 경험의 적합성을 위한 전통의 이해 가능성을 위하여 전통을 비평적으로 재해석한다. 만일 전통의 어떤 요소나 차원들이 더 이상 새로운 상황에서의 이해가능성을 상실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전통은 오늘날의 경험의 빛 안에서 수정되고 재형성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전통과 현재의 경험 사이에는 변증법적 해석학적 순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순환 속에서 영성생활에 대한 동의의 해석학과 비평 또는 의심의 해석학을 통한 전통과 경험 사이의 상호 비평적인 상관관계를 통하여, 현재적 경험이 변혁될 뿐만 아니라 전통도 개혁될 수 있으며 새로운 모델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성생활을 위한 해석학적 과제 중의 하나는 전통과 경험 사이의 상호 비평적 상호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올바른 해석학적 지평융합을 이루는데 있다.

영성생활을 위한 네 번째 해석학적 순환의 패러다임은 신앙과 지식과 실천 사이의 삼중적인 순환 관계이다. 영성생활을 위한 해석학적 과제에서 실천은 단순히 이론의 적용이나 믿음의 적용화가 아니다. 실천은 신앙과 지식을 대치할 수 없지만 또한 신앙과 지식에 종속되는 단순한 실천이나 실행이 아니다. 신앙과 지식이 실천을 요구하는 것처럼 신앙과 지식은 실천을 통하여 검증되고 교정되고 확장되고 현실화된다. 실천은 그 자체로서 변혁시키는 진리의 능력이다. 우리는 믿음과 앞서서 실천이나 행동에 옮길 뿐만 아니라 행동함으로써 진정한 믿음과 앞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전적인 영성생활은 정통교리와 정통신앙과 더불어 정통실천과의 순환 관계 안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 세 차원은 상호교류적인 해석학적 순환관계 안에서 실천적인 지혜와 모델이 형성된다. 통전적인 영성생활의 해석학적 과제는 단지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정립이나 이해(what)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인성 회복과 복음의 빛과 능력 안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변혁적인 삶에 참여하며 경험(how)하는데 있다.

영성생활을 위한 다섯 번째 해석학적 순환의 패러다임은 기도와 노동과 같은

일상의 삶과의 순환계이다. 교회 역사에서 특히 중세시대에 기도와 노동의 관계를 집약하고 있는 ‘노동이 곧 기도다’(laborare est orare)라는 구호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중세시대에는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보편적이었다.<sup>16)</sup> 종교개혁 전의 중세 서방 교회의 가르침은 종종 다른 모든 유형의 삶보다 기도와 묵상적인 삶을 더 숭고하게 보았기 때문에 “수사들과 사제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일급 그리스도인들 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이급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신자가 제사장 곧 사제임을 강조하였다.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봉사, 모든 종류의 노동이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며 선지자다.”<sup>17)</sup>

개혁자들은 중세가 생명처럼 여겼던 ‘거룩한 것’과 ‘세속에 속한 것’ 사이의 구분을 거부했다. ‘신령한’ 질서와 ‘세속의’ 질서 사이에는 그 지위에 어떤 진정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나아가 그 부르심은 일상세계까지 확장되었다. 때문에 개혁자들은 노동과 같은 일상의 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노동을 신앙적 삶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현상은 성경의 가르침이 결코 아니라고 보았다.<sup>18)</sup>

헬라 문화권에서는 특히 몸으로 하는 노동을 경시하는 현상이 있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 정신적인 일을 하는 정치인과 철학자는 존경하였지만 노동자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노예 같은 존재로 여겼다. 헬라 문화권에서 가치 있는 삶은 정치와 철학 혹은 종교를 추구하는 것이었으며 필수적인 노동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었다. 진정한 자유인은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sup>19)</sup> 헬라 노동관은 중세 스콜라 철학에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중세 스콜라 철학은 일하는 행위보다 기도하는 묵상을 우선시했다. 이러한 이해 때문에 영적 가치가 노동으로부터 서서히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

칼빈은 스콜라 철학의 이런 태도를 비판하고 노동을 공동선을 향한 예전과 같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사용하는 노동과 이 노동이 지니는 영적 위엄과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했다. 칼빈은 “인간은 다양한 종류의 노동에 종사하라는 명백한 목적 아래 창조되었다. 그 어떤 희생제사도, 모든 인간의 공동선에 기여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지런히 몰두하며 힘껏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16) Alister McGrath, *Roots that Refresh: A Celebration of Reformed Spirituality* (London: Hodder & Stoughton, 1992), 140.

17) Paul Marshal with Lela Gilbert, *Heaven Is Not My Home: Learning to Live in God's Creation*, 김재영 역,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서울: IVP, 2000), 92-3.

18) Alister McGrath, *Roots that Refresh*, 141.

19) Paul Marshal, *A Kind of Life Imposed on Man: Vocation and Social Order from Tyndale to Lock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6), 14-8.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20)</sup> 칼빈은 일 또는 노동이 지닌 영적 사회적 가치를 공동선의 관점에서 이해하였다.<sup>21)</sup> 칼빈은 노동의 영적 의미와 공동체적 기여를 중요하게 여겼다.

종교개혁의 전통에서도 모든 종류의 일이나 노동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을 교회 안에만 가두는 일이 많았다. 교회 안의 일은 신성한 사역으로 여겼지만 일상의 일은 거룩한 사역이라는 인식이 미약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만이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전임 사역자이다. 나아가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가 처한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은총 안에서 공동선을 위해 부름 받은 사역자들이다.

영성생활을 위한 여섯 번째 해석학적 순환의 패러다임에서 ‘선호하는 차원’과 ‘덜 선호하는 차원,’ 즉 익숙한 면과 익숙하지 않는 면의 순환관계이다. 선호하는 차원만 계속 발전시키고 덜 선호하는 차원을 육성하지 않는다면 영적 여정에서 전인성을 이룰 수 없다. 물론 영성생활에서 자신의 영적 성향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자신의 자연스러운 영성 성향이나 경로(path)의 주요 활동 무대는 자신의 선호 유형에 따라 다르다.<sup>22)</sup> 외향적인 사람의 주요 활동 무대는 세상과 다른 사람일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의 관심은 밖으로 향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연스러운 영성 경로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행동으로서 자신의 영성생활을 나타내려고 한다. 내향적인 사람에게 주요 활동 무대는 생각과 성찰이 될 수 있다. 내부로 향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영성생활의 경로는 사색이 될 수 있다. 감각적인 사람에게는 영성생활의 경로의 주요 활동 무대는 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주변 세상과 관계하려고 작업하는 주요 정보를 얻기 위해 감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을 수 있다. 직관적인 사람은 주요 정보를 자신의 영에서 나오는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의 영성생활의 주요 경로는 자각(awareness)이 될 수 있다.<sup>23)</sup>

사고형의 사람의 영성생활의 주요 활동 무대는 머리고 자연스러운 경로는 지식이 될 수 있다. 사고형의 사람은 통성기도보다 묵상기도를 더 선호할 수 있다. 감정형의 사람은 마음이 영성생활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될 수 있고, 헌신이 자연스

---

20) John Calvin, *Commentary on Luk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2005), 10:38.

21) John Calvin, *Sermons on Ephesians* (Edinburgh: Banner of Truth, 1973), 4:26.

22) C. G. Jung, *Psychological Typ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에 기초하여 정리한 것임.

23) Bruce Duncan, *Pray Your Way: Your Personality and God* (London: DLT, 1993), 55-62.

러운 영성생활의 경로가 될 수 있다. 감정형의 사람은 묵상기도보다 통성기도를 더 선호할 수 있다. 하지만 영성생활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유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또한 자신이 덜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길이기도 하다. 즉 영성생활에서 자신이 덜 선호하는 유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전인적인 영성생활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준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외향적인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영성생활의 길은 행동이 될 수 있다. 내향적인 사람에게는 그 길이 성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외향적인 사람에게 전인적인 영성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성찰이기도 하다. 내향적인 사람에게 전인적인 영성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은 참여나 행동이기도 하다.

전인적 영적 순례를 위해 자신이 덜 선호하고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는 차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자신의 영적 순례에서 부정적인 표출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영성생활에서 그림자(shadow)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선호하는 영성생활의 유형은 의식화된 것이고, 덜 선호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유형은 아직 의식화되지 않은 무의식적 차원 또는 아직 빛을 보지 못하여 그림자의 차원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Jung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에는 의식과 무의식의 두 차원이 있다. 인간의 주 기능은 의식의 영역에 있다. 인간은 기술적으로 의식을 사용하고 또한 주의를 기울이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다. Jung은 인간의 열등 기능인 그림자는 대부분 무의식에 있다고 보았다. 무의식의 중요한 차원인 그림자는 삶 속에서 제쳐놓았던 정서와 기술, 욕망과 함께 실현되지 않았거나 발달되지 않은 차원이다. Toni Wolff는 “그림자는 인간 정신의 한 부분으로서 의식의 빛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의식의 활동 가운데 떠오르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래적인 악성과 나태성 및 결함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자는 한 개인의 자아와 반대되는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sup>24)</sup> 그림자는 아직 발달하지 못해 미숙하고 원시적으로 남아있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이 요소들은 내면에 있는 열등하고 세련되지 못한 요소들로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생긴다.<sup>25)</sup> 인간의 그림자는 의식화되지 못해 열등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차원으로 남아 있기에 의식화되고 발달시켜야 할 차원이다. 따라서 영적 성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림자를 의식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인간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성격의 조각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sup>26)</sup> 우리의 영성생활에서도

24) Erna Van De Winckel, *De l'inconscient a Dieu*, 김성민 옮김, 『영의 심리학과 기독교 영성』 (서울: 다산글방, 1996), 82.

25) C. G. Jung, *Man and His Symbols*, 이부영 외 역,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서울: 집문당, 2000), 173-74.

의식화된 차원만을 선호하고 아직 의식화되지 않은 또는 발달되지 않은 그림자의 차원을 양육하지 않으면 전인적인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전인적인 영성생활 또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영성생활에서 덜 선호하는 또는 익숙하지 않은 차원에 관심을 가지고 양육할 필요가 있다. 영성생활에서 선호하는 차원과 덜 선호하는 차원의 순환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핵심은 영적 순례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덜 선호하는 차원의 양육도 필요하며, 나와 다른 사람의 영적 역학(dynamics)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전인적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 3. 영성생활의 해석학적 패러다임<sup>27)</sup>

#### 1) 고전적 패러다임에서 영성생활

##### (1) 명사적 패러다임으로서 영성생활

고전적 패러다임에서 영성생활에 대한 해석은 주로 명사적이고, 이원론적이고, 이론 또는 이성 중심적인 것에 기초하고 있다. 고전적 패러다임에서 영성생활은 보편적으로 ‘명사적’ 관점에서 이해해온 경향이 강하다. 즉 영성생활을 기도와 예배와 같은 행위 자체로 여기고, 하나님과의 생동적인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동사적 의미로 이해하는 관점이 미흡했다. 이는 영성생활을 기도, 말씀 묵상, 예배 등으로 이해하고 가정생활, 일상생활, 직장생활 등은 영성생활과 관계가 무관한 것으로 여기거나 기도와 같은 요소는 일상의 요소들보다 더 영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다. 영성생활에 대한 이러한 고전적 해석은 왜곡된 인간 이해로부터 발생한 측면이 있다. 나아가 영성생활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영적’이란 용어에 대한 헬라적인 이해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헬라적인 사상에서 ‘영적’이란 개념은 몸과 대비되는 관점에서 규정되었다. 이러한 이해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또는 세상적인 것을 이원론적으로 대비시킨다. 따라서 영성생활은 몸과 무관한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히브리적 또는 성경적 관점에서 ‘영적’이란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규정되는 된다. 즉 영적이란 개념은 하나님과의 생동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동사적인 언어이다. 고정적인 명사적 언어가 아니다.<sup>28)</sup>

26) Eleanor S. Corlett and Nancy B. Miller, *Navigating Midlife: Using Typology as a Guide*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93), 7.

27) 고전적 패러다임은 ‘무엇’(what, 내용)에 기초하여 영성생활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임상적 패러다임은 영성생활의 내용뿐만 아니라 영성생활이 ‘어떻게’(how, 방법) 다양한 차원들과 관련되어 형성되고 발전되는지를 의미하고, 상황적 패러다임은 영성생활에서 개별적 환경적 상황을 고려하여 실행(so what,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 의례에서 세례와 성만찬 같은 예전(liturgy)이란 말의 뜻은 ‘보통 사람들의 일’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교회에서 행하는 의례는 일종의 영적인 일이다. 즉 의례 속에서 영혼의 뭔가를 창조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세상에서’ 행하는 일과 굳이 분리시킬 필요는 없다.<sup>29)</sup> 교회 안에서의 일과 교회 밖에서의 일은 모두 거룩한 일이다. 일의 거룩성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의식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교회와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다. 더욱이 일상적인 일을 거룩하게 또는 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위에 종교성이라는 옷을 입힐 필요는 없다. 일의 거룩성은 종교 의식적 형식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 일 자체가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이다.<sup>30)</sup>

## (2) 이원론적 패러다임으로서 영성생활

영성생활에 대한 대부분의 고전적 패러다임은 몸과 혼과 영을 차등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영성생활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Bernard of Clairvaux는 영적 초보자의 경우를 ‘동물적’(animal) 상태로, 영적으로 진보 중에 있는 자를 ‘이성적’(rational) 상태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영적’(spiritual) 상태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영성생활을 이와 같은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은 그가 인간의 구성요소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영(프뉴마), 혼(프시케), 육(소마)에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첫 단계인 동물적 상태에는 육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단계로 육욕과 색욕에 의해 지배되는 단계로 이해했다. 두 번째 단계인 이성적 상태는 영과 육의 사이에 있는 단계로 어떤 경우에는 육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영의 지배를 받기도 하는 단계인데, 육체의 번뇌에서 아직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단계로 보았다.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을 하는 영적 상태는 육체의 제약을 뛰어 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지복의 상태라고 이해했다.<sup>31)</sup>

하지만 영성생활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성경적 인간이해와 본질적으로 충돌된다.<sup>32)</sup> 인간의 육체 또는 몸을 저급하고 죄악의 매개체나 근원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 이해가 아니라 헬라철학의 플라톤적 사상 안에서 형성된 것이다. 한때

28) 최창국, 『영혼 돌봄을 위한 해석과 분별』(서울: CLC, 2018), 99-100.

29) Thomas Moore, *Care of the Soul: A Guide for Cultivating Depth and Sacredness in Everyday Life*, 김영운 역, 『영혼의 돌봄』(서울: 아침지도영성연구원, 2007), 268.

30) 최창국, 『영혼 돌봄을 위한 기독교 영성』(서울: CLC, 2013), 330.

31) 유해룡,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서울: 장신대출판부, 1999), 61.

32) 헬라적 인간 창조론과 히브리적 인간 창조론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헬라적 인간 이해는 ‘물리적 결합’, 즉 영혼과 몸의 두 실체의 결합으로서 이원론적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한다. 하지만 히브리적 인간 창조는 ‘화학적(신비적) 변화’, 즉 한 실체로서 다양한 차원을 지닌 통전적인 존재로서 창조되었다. 히브리적 인간론에 기초한 성경적 인간은 영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몸으로서 인간이다. 영혼으로서 인간이다(최창국, 『영혼 돌봄을 위한 해석과 분별』, 83).

Platon은 ‘그리스도 이전의 그리스도인’으로 칭송될 만큼, 이성 철학에 대단한 공헌을 한 철학자였던 것은 사실이다. Platon이 생각한 영적 세계에 대한 사상이 성경이 가르치고 기독교가 추구하는 영적 세계와 유사하다고 많은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생각했다. 그에 의하면 육체는 저급한 것이고 영혼은 고귀한 것이었다. 구원은 저급한 육체에서 고통 하는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될 때 일어난다. 그는 인간의 육체는 끊임없이 영혼을 힘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적이며 육체의 소욕 때문에 영혼의 번민이 발생하고 죄가 발생한다고 여겼다.

Platon의 몸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바른 성경적 이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학과 영성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는 죄를 육체와 관계시켰고, 죄는 육체적 욕구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러한 이해는 세상에 왜곡된 해석을 낳기까지 했다.<sup>33)</sup> 그러나 하나님은 비육체적이고 비감각적인 곳에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 속에서 인식되고, 진정한 하나님 경험은 인간의 몸과 세상 속에서 체험된다. Moltmann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죄라고 불려온 그것의 기원은 몸의 감각성, 저급하다고 일컬어지는 충동과 욕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인의 방향 상실에 있다. 그의 영혼과 의지가 악의 사망 충동에 굴복해 버렸기 때문에, 죄의 기원은 특히 그의 영혼과 의지에 있다... 다른 한편 참된 생명의 기원은 감정을 가진 영혼이나 이성을 지닌 정신 혹은 결단력을 지닌 의지가 아니다. 그것은 그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가까움 속에서 그분의 사랑의 온기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 생명의 전체성이다. 하나님의 가까움과 사랑은 감정을 지닌 영혼과 의지를 지닌 이성만이 아니라 감각을 지닌 몸도 어루만진다.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힘으로부터 참된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다.<sup>34)</sup>

33)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첫 번째 의미는 세상의 죄악 된 측면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회에 잘못 세워 놓은 질서를 뜻한다. 성경에서 세상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바로 왜곡되고 파괴적인 사회 질서와 관계되어 있다. 두 번째 의미는 영토나 지역을 뜻한다. 성경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마 24:14)에서 세상은 영토적이고 지역적인 의미이다. 세 번째는 창조된 질서를 의미한다. 성경에서 세상은 기본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의미한다. 또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위하여 지어진 질서를 의미한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이런 의미이다. 즉 그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며 앞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다.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요 3:17) 오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라고 하였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다. 때문에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치 말라”(요일 2:15)는 말씀에서 세상과 요한복음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세상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악 된 세상을 배척하시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지극히 사랑하신다.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바르게 살아가 수 없다. 때문에 성경에 충실하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바르게 사랑할 수도 없다.

인간의 죄악의 근원은 감각을 지닌 몸이라기보다는 죄의 세력인 사탄, 악한 사상, 타락한 정치 등과 같은 죽음에 세력에 굴복하는 인간의 정신 또는 영혼이다. 실제로 온갖 죄의 세력은 근본적으로 정신과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교만, 질투, 살인, 전쟁과 같은 악의 근원은 육체보다 인간의 정신과의 관계 안에서 발생한다.

영성생활의 목적은 몸으로부터 도망치는 것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몸과 자연을 귀하게 여기고 가꾸고 생명력이 넘치는 몸과 세상을 이루는데 있다.<sup>35)</sup> Moltmann은 땅과 자연은 인간을 환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환경”이라고 하였다.<sup>36)</sup>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환경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환경의 완성과 관련된 것이다. 요한계시록 21:1-4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안식할 수 있는 성전이 된다는 종말론적 표상을 갖고 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만물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비추는 우주는 하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므로 영성생활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함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며 세계의 평화와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다.

### (3) 이성 중심적 패러다임으로서 영성생활

영성생활에 대한 고전적 패러다임은 내용, 즉 무엇(what)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 예를 들어 기도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찬송이란 무엇인가? 이처럼 고전적 패러다임에서는 영성생활에 대한 이해에 주요한 관심이 있었다. 영성생활에 대한 이러한 패러다임은 헬라사상의 환경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다.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활동이나 노동보다 관조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이러한 이해의 배경에는 이성적 일 또는 정신적인 일을 행동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으로부터 태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헬라 사람들에게 “활동적인 삶은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집안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해당했던 반면, 관조는 초월세계를 경험하는 기회, 이상이나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여겼다. 플라톤의 모델 인간은 모델 사회, 곧 주로 사고활동과 성찰에 전념하는 엘리트층을 지지하는 사회를 다스리는 ‘철학자 왕’이었다.<sup>37)</sup> 이러한 편견의 바

34) J. Moltmann, *Die Quelle des Lebens*, 이신건 역, 『생명의 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00-01.

35) 몸과 영성생활의 관계에 대한 좋은 연구를 위해서는 Gerald G. May, *Addiction & Grace: Love and Spirituality in the Healing of Addictions* (New York: HarperSanFrancisco, 1988), 64-90 참조.

36) J. Moltmann, 『생명의 샘』, 152.

37) Parker J. Palmer, *The Active Life: A Spirituality of Work, Creativity and Caring* (San

탕위에 서구 교회와 대학교가 서구 문화의 최고 기관들이 된 부분적인 이유는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는 세계에서 관조의 삶을 위한 장을 제공했기 때문이다.<sup>38)</sup>

그러나 탐험과 계몽 시대가 열리고 과학의 발달과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그 흐름이 바뀌어 활동적인 삶이 관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일어났다.<sup>39)</sup>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주의 가치관과 지나친 행동주의 가치관을 개혁하기 위해서 관조적 가치관과 삶을 찾으려는 운동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관조적 삶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성생활에서 관조와 행동의 균형적인 추구를 떠나 현대 물질주의와 행동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행동의 영적 의미를 간과하고 관조적 영성 생활에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또한 오늘날의 문화가 행동의 능력에 지나친 자만심을 품고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충만한 시대에 관조적 영성 생활은 매우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다.

영성생활은 본질적으로 이론적이거나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토론과 대화에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정의될 수 있는 신학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말인 영성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학은 인간의 용어와 철학적인 사고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실재에 대해 말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보다 더 많은 초점이 있지만, 영성의 특징은 내용적 분석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경험과 실천에 무게 중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sup>40)</sup>

## 2) 임상적 패러다임에서 영성생활

임상적 패러다임에서는 영성생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영성생활이 어떤 요소들과 순환 관계 안에 있으며, 어떻게 실행되고, 다양한 요소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관심을 갖는다. 예를 들어 기도와 성령, 정신세계, 무의식, 몸, 일상, 환경 등과 어떤(how) 관계가 있는지도 관심한다. 임상적 패러다임에서 영성생활에 대한 해석학적 패러다임은 동사적이고, 관계적이며, 경험적이다.

### (1) 동사적 패러다임으로서 영성생활

---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0), 5.

38) Parker J. Palmer, *The Active Life*, 6.

39) Parker J. Palmer, *The Active Life*, 6.

40) Oliver J. Morgan and Merle Jordan, eds., *Addiction and Spirituality: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문희경 역, Robert H. Albers, “무조건적인 내어맡김,” in 『영성과 중독: 다학문적 접근』 (서울: CLC, 2017), 294.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하나가 ‘영적’이란 용어다. 기독교에서 영적이란 언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규정되는 관계적인 언어요 생동적인 언어이다. 영적이란 언어의 의미는 단지 어떤 종교적 행위 또는 영적 행위와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기도, 예배, 찬양과 같은 행위 자체를 영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행위들은 귀한 것이며 영적 성장을 돕는다. 그러나 단순히 이런 행위 자체가 영적인 삶과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영적’이란 언어를 생동적인 ‘동사’가 아니라 고정된 ‘명사’로 이해해온 경향이 있다. 즉 영적인 삶은 기도와 예배와 말씀 묵상과 찬양과 같은 요소들로 여기고, 이러한 행위 자체가 영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온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영적인 삶을 기도와 예배와 말씀 묵상과 같은 행위에 고정된 명사적 개념으로 이해되거나 일상의 삶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Teilhard de Chardin이 우리는 영적 여정을 걷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여정을 걷는 영적 존재라고 말했듯이, 우리의 영적 여정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덜 인간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영적 여정은 좀 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과정이다.<sup>41)</sup> 때문에 영적 여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상의 여정과 결코 분리 될 수 없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영적인 존재이다. 이는 인간의 삶에 첨가된 요소가 아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분 안에서 그리고 결국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영적 여정의 순례를 하는 육화된 영혼이다. 인간은 일상을 걷는 영혼이요 몸이다.

일상의 일들이 더 영적 행위가 될 수 있고, 기도가 오히려 비영적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기도가 기복적인 목적에만 치중될 때에는 오히려 미신적인 행위가 되어 버릴 수도 있지만,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는 영적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적 삶의 여정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기도나 예배보다 더 영적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적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지 단지 종교적 행위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영성생활은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요 삶의 방식의 문제이지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일상의 삶은 영적인 것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건강한 영성생활은 기도와 일상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기보다는 이 둘을 서로 상호 순환 작용하게 한다. 이러한 원리는 기도와 일(ora et labora)을 가장 잘 통합시킨 베네딕트의 규칙의 실례에서 볼 수 있다. 베네딕트 공동체의 규칙은 두 가지 극단을 선회한다. 하나님의 일(opus Dei)로 불리는 기도와 손으로 하는 노동이 그것이다. 기도와 일의 리듬은 이 규칙 내에서 유지되어 기도가 점차

41) 최창국, 『영혼 돌봄을 위한 기독교 영성』, 230.



일을 성화시킨다. 때문에 기도하는 것과 일상에서 노동하는 것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지 않았다.

Christian Smith는 생애의 여러 변환과 이혼, 가족 구성원의 죽음, 집을 떠남, 직장을 잃음 등은 종교적 실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sup>42)</sup> 이는 일상이 영적 삶에 중요하게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영적 삶과 일상적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준다. 일상적인 것의 반대편에 영적인 것을 건설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잘못이다.

하지만 영성생활의 고전적 패러다임에서 주요한 요소들로 여겨 왔던 말씀묵상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 등은 영적 삶에서 '캐피탈'(capital, 머리, 핵심, 통치)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영적 삶에서 '머리', '핵심', '통치자'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영성생활에서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가 머리와 같다는 것은 마치 인간의 몸에서 머리가 중요한 기능을 하듯이 이러한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머리는 생명의 근원에 해당하는 핵심 부분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영성생활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소들은 영성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은 역할과 통치적인 기능을 한다.<sup>43)</sup>

## (2) 관계적 패러다임으로서 영성생활

기독교 사역자들과 신학자들 중에 종종 신학적이냐 과학적이냐 성경적이냐 심리학적이냐 같은 패러다임을 기초로 신학적 영성적 논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냐'의 패러다임을 해석학적 기초 또는 출발점으로 삼기도 한다. 물론 신학과 과학 등의 기본적 특성과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신학과 과학 등의 특성과 정체성에 대한 구분을 통해 '관계'를 설명하거나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으로 '이냐'의 패러다임으로 대비시키는 것은 편협하고 왜곡된 신학적 영성적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바른 신학적 영성적 논의를 위해서는 '이냐'의 해석학적 패러다임이 아니라 '관계'의 해석학적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신학적이냐 과학적이냐가 아니라 신학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기도이냐 사회정의이냐가 아니라 기도와 사회정의는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예배이냐 가정생활이냐가 아니라 예배와 가정생활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등이다.

이러한 해석학적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생활에 중요한 해석학적 렌즈를 제공한다. 기도이냐 사회정의이냐 같은 질문은 기도와 사회정의의 관계가 무관하거나 분리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단지 기도 그

42) Christian Smith with Patricia Snell, *Souls in Transition: The Religious & Spiritual Lives of Emerging Adul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75.

43) 최창국, 『영혼 돌봄을 위한 해석과 분별』, 101-02.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또는 사회와의 관계 형성과 분리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도를 통한 자신의 변화는 거시적인 맥락에서 사회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신학자 Fraser Watts는 영적 치유(spiritual healing)라는 용어의 세 가지 용례를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첫째, “인간의 영적 차원이 개입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치유”이다. 여기서 ‘영적 차원’은 영성의 존재론적 차원과 관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존재론적 영성이 영적 치유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창조물인 몸에 면역체계가 있어 몸의 질병을 스스로 극복하고 치유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론적 영성을 선물로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차원’이 치유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둘째, “영적 의식이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는 치유”이다. 여기서 ‘영적 의식’은 영성의 기능론적 차원과 관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영적 의식은 하나님의 임재 의식과 주권 의식과 관계된 것이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존재론적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주권의식이 충만하게 작용 또는 기능할 때 발생하는 영적치유이다. 셋째, “영적 작용의 관점에서 설명되는 치유”이다.<sup>44)</sup> 여기서 ‘영적 작용’은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를 통하여 경험하는 영적치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치유는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차원에서 발생하는 치유라고 할 수 있다.

Watts는 영적 치유에 대한 이러한 구분과 함께 핵심질문을 덧붙인다. 즉 그의 “핵심 질문은 ‘영적 치유를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혹은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신학적 설명과 과학적 설명이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이다.”<sup>45)</sup> 그러므로 영적 치유나 생활에서 Watts가 말한 세 용례의 범주를 혼동해서도 안 되지만 이러한 용례들을 양자택일의 가치의 문제로 보아서도 안 된다. 영성 생활은 오직 영적인 차원과만 관계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신학적 설명과 과학적 설명은 인간의 영성생활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영적 행동이나 경험을 연구할 때는 신학적 관점에서 철저히 설명을 하는 것만으로는 그 행동이나 경험을 온전히 이해하게 해주는 배타적이고 유일한 설명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특징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마음과 뇌와 영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이 해손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설명과 이해를 잘 활용하면 이해심을 가지고 서로를 더욱 존엄한 존재로 대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44) Fraser Watts, ed., *Spiritual Heal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1.

45) Fraser Watts, ed., *Spiritual Healing*, 11.

그리스도인들이 효과적인 영적 경험과 삶을 위해서는 단지 신학적 관찰과 이해 뿐만 아니라 임상적 관찰과 이해도 필요하다. 영성생활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과 같은 ‘상의하달’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지만 인간의 환경과 상태와 같은 ‘하의상달’의 효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와 같은 ‘상의하달’ 요소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또한 ‘하의상달’ 효과, 즉 내적 상태와 환경과 상처와 질병으로 인해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영성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제한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성생활에 ‘상의하달’의 요소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의상달’의 요소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건하게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이러한 영적 실천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인간의 영성생활이 기도와 말씀 묵상과 같은 ‘상의하달’의 요소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상태와 환경과 질병과 같은 ‘하의상달’의 요소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알츠하이머병은 건망증, 불안, 공격성 증가, 우울증, 의심, 편집증, 언어장애, 수면장애와 같은 현상이 동반된다. 이러한 알츠하이머병에 노출된 사람들은 영성 생활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알츠하이머병은 핵심적인 영성생활들에 대한 기억상실, 영적으로 해로운 세력에 대한 비현실적인 두려움과 영적 공허함, 예배생활, 성경묵상, 기도와 같은 영적 활동의 감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람과 위로를 느끼지 못함, 신앙 공동체 안의 친밀한 관계 상실에 대한 비현실적인 죄책감, 오래 동안 해 오던 봉사활동의 불가능을 경험하게 만든다. 이러한 것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이다. Wright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생활과 알츠하이머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험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생활에 6가지 중심 요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였다.<sup>46)</sup> 그는 먼저 기억 상실이 알츠하이머병의 주된 특성이기 때문에 거듭남과 세례를 기억할 수 없게 되어 매우 타격이 크다고 하였다. 다음은 알츠하이머병은 영성 생활의 또 다른 두 표지인 기도와 성경 읽기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힘도 크게 약화 된다. 그는 영성생활의 또 다른 중요한 표지인 성만찬에 참여하여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는 단순한 행위가 절망에 빠져 있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인식하게 해준다는 Glenn Weaver의 보고가 매우 흥미롭다고 하였다.<sup>47)</sup>

인간의 영성생활은 하나님과 영혼과만 관련이 있고 몸이나 물리적인 것과는 전

46) Nicholas Thomas Wright, *Surprised by Hope* (London: SPCK, 2007), 283-302.

47) Glenn Weaver, “Embodied Spirituality: Experiences of Identity and Spiritual Suffering Among Persons with Alzheimer’ Dementia,” in *From Cells to Souls and Beyond*, ed. Malcolm Jeeves (Grand Rapids: Eerdmans, 2004), 77-101.

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알츠하이머병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생활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영성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 인간의 영적 행동이나 경험은 인간의 물리적 차원인 뇌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알츠하이머병으로 뇌에 생기는 변화와 인간의 영적 행동이나 경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신경과학자인 Andrew Newberg는 그의 연구를 통해 기도와 신경적 변화의 관계를 밝혀냈다. Newberg는 그의 연구에서 영혼의 중심을 잡는 기도를 실행한 가톨릭 수녀들에게서 탐지된 신경적 변화는 불교 명상가들에게서 탐지된 신경적 변화와 거의 동일했다. 두 종교의 교리적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sup>48)</sup> Newberg의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인간의 영성생활은 인간의 몸의 세계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영성생활은 몸과 분리되기보다는 유기적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몸은 영성생활에 영향을 주고, 또한 영성생활은 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영성생활을 몸과 분리된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영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천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영성생활은 몸을 떠나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영성생활은 인간의 몸의 중요한 차원인 뇌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인간의 영성생활은 성경읽기와 기도와 같은 상의 요소들에만 의존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의 요소들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인간의 영성생활은 상의 요소들과 하의 요소들을 넘어서는 특징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의 중요성도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 (3) 경험적 패러다임으로서 영성생활

경험적 패러다임으로서 영성생활은 기도와 같은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인성의 경험과 관계된다. 진정한 전인성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충만한 삶뿐 아니라 하나님의 변혁시키시는 은혜의 대리자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관계된다. 따라서 경험적 패러다임으로서 영성생활은 사회적 경험으로 이끈다. John Wesley는 영성생활의 이러한 특징을 “사회적 성결이 없으면 개인의 성결도 없다고 거듭 강조하였다.”<sup>49)</sup> 물론 영성생활에서 개인의 성결과 사회적 성결의 경험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

---

48) Andrew Newberg and Mark Robert Waldman, *How God Change Your Brain* (New York: Ballantine Books, 2009), 48-9.

49) M. Robert Mulholland, *Invitation to a Journey: A Road Map for Spiritual Formation*, 서원교역, 『영성여행 길라잡이』 (서울: 살림, 2008), 210에서 인용.

다. Robert Mulholland 성결에서 균형의 중요성을 이렇게 진술한다. 즉 “양쪽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사회적 성결이 없으면 개인의 성결도 없듯이, 개인의 성결이 없으면 사회적 성결도 없다. 우리는 이 둘을 나누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성결을 강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성결을 강조한다. 문제는 어느 쪽도 어떤 성결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sup>50)</sup>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의 저명한 영성 신학자 Kenneth Leech는 인간의 정의와 신적인 정의의 유기적이고 순환 관계를 이렇게 말한다. 즉 “공동체 안에서 인간의 정의를 위한 투쟁과 신적인 정의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sup>51)</sup>

영성생활은 단지 내면의 성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하지만 세상의 환경에 잠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영성생활이 빠져들게 되면 세상적인 현상을 지지하고 옹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Leech는 신학이란 용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득력 있게 진술한다.

신학이 그 상황에, 지배적인 문화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신학과 그 신학적 반성이 일어나는 제도적 교회가 문화의 수단이 되어 더 이상 문화를 비판하지 못하게 된다. 신학은 사회 질서의 종이 되고, 공의의 하나님은 길들여져서 조직적인 불평등의 분부를 따르게 된다.<sup>52)</sup>

영적 순례와 그 여정이 실현되는 세상 사이에는 창조적인 긴장이 있어야 한다. 즉 창조적인 긴장을 상실하게 되면 세상과 무관한 ‘탈세상적’ 영성생활에 몰입하거나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의 근본적인 요구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는 인본주의적인 또는 세속적인 영성생활을 추구하게 된다.

경험적 패러다임으로서 영성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빛나는 곳에서 존재한다.<sup>53)</sup> 영성은 인간의 내면과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와 세상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사랑을 위한 기도와 일과도 관계된다. 영성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 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고독한 투쟁을 하는 재판관들의 고투 속에서도 발생한다. 마약 중독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손을 통해서도 펼쳐지고,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어머니의 희생 속에서도 발견된다. 치매 환자들을 위한 약을 개발하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수고 속에서도 볼 수 있다. 사탄적인 무신론의 허영을 극복하기 위한 저술 활동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 속

50) M. Robert Mulholland, 『영성여행 길라잡이』, 210.

51) Kenneth Leech, *Experiencing God: Theology as Spirituality* (New York: Harper & Row, 1985), 379.

52) Kenneth Leech, *Experiencing God*, 384.

53) 여기서의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신이 드러나는 영적 성품 또는 정신을 의미한다.

에 세상과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사상적 논리적 노력 속에서도 영성은 꽃을 피울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영성은 그리스도의 으뜸 되는 가르침인 사랑의 빛 안에서 가장 힘차게 자란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연구는 영성생활을 위한 중요한 지혜를 간접적으로 제공해 준다. 삶의 여정에서 성숙한 성인이 되어갈수록 사람들은 역설과 모호함을 더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성인발달연구를 통해 발견된 사실 중의 하나는 종교적 믿음이 반드시 성공적인 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sup>54)</sup> 만족스런 노년, 성숙한 방어기제, 생산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종교적 믿음에 있기보다는 사랑과 희망이었다.<sup>55)</sup> 연구대상자들이 믿음을 종교적인 것과 연관시키든 영적인 깊이와 연관시키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노년에 이르면 종교적 믿음이 중년에 그랬던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sup>56)</sup>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시사해 주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믿음이 사랑의 삶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믿음도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예시해 준다. 이러한 관점은 성경에서도 발견된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증거 한다(약 2:17절).

### 3) 상황적 패러다임에서 영성생활

Don Browning은 목회신학이 윤리적 비전의 조명을 받지만, 동시에 “개인들이나 단체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적, 실존적, 발전 과정적 개별성과 연계된다”고 기술하였다.<sup>57)</sup>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영성생활도 개별적 환경적 상황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즉 상황적 패러다임에서 영성생활은 다양한 차원에서 영성생활을 이해뿐만 아니라 개별적 환경적 상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영성생활은 진공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문화적 토양 안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성생활에서 상황성 또는 개별성의 문제는 중요하다.

영성생활은 상태적인(situational) 상황과 경험적인(experiential) 상황 안에서 일어난다. 상태적인 상황은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괄하는 문화와 언어와 법 등 각자에게 주어진 실제 삶의 상황을 뜻한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보시는 타락과 아름다움도 포함한다. 그러나 영성생활은 상태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경험적인 상황, 즉 불안이나 희망 그리고 두려운 감정 같은 주관적인 인간의 경험

---

54) George E. Vaillant, *Aging Well*, 이덕남 역, 『행복의 조건』 (서울: 프론티어, 2010), 353.

55) George E. Vaillant, *Aging Well*, 『행복의 조건』, 353.

56) George E. Vaillant, *Aging Well*, 『행복의 조건』, 353.

57) Don S. Browning, “Pastoral Theology in Pluralist Age,” in Don S. Browning, ed., *Practical Theology*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3), 187.

과도 연관되어 발생한다. 따라서 영성생활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고려 없이 형성되고 발전된다고 보아서 안 된다. 영성생활에서 상황화의 문제는 이차적인 문제가 아니다.

Teresa of Avila는 영성과 지성의 관계를 그녀의 경험을 통해 역설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녀는 ‘영적이지 않아도’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영적이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 더 나은 영적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sup>58)</sup> 그녀는 영성이 없는 사람보다 지성이 없는 사람으로 인해 더 많은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의 상황에서는 지성만 있고 영성이 없는 사람은 지성과 영성 모두에서 기형적이 될 수 있다. Teresa의 진술과 현대의 상황은 우리에게 영성과 지성의 상호 순환관계에서 상황적 해석의 중요성을 일러준다. 이런 맥락에서 James Packer가 영성이 무너지면 윤리성이 무너지고 윤리성이 무너지면 영성도 무너진다고 했듯이,<sup>59)</sup> 영성의 강화를 통해 윤리성을 성숙하게 할 수 있고 윤리성을 통해 영성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적 해석은 영성생활에 중요한 렌즈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Charles Kraft는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것처럼 인간은 문화에 잠겨 있다는 말을 통해 문화가 인간 상황의 가장 기본적인 차원을 구성한다는 특성을 바르게 설명했다.<sup>60)</sup> Orlando Costas도 상황은 모든 이해와 실천이 일어나는 장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복음은 정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상황은 모든 지식을 함께 묶고 만들어 내는 실재다... 우리는 능동적으로든 수동적으로든 거기에 참여한다. 우리 중 누구도 상황 바깥에서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노력에 의식적으로 또 비평적으로 상황을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상황화 작업이다.”<sup>61)</sup>

Kraft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상호 작용하시는 대화의 하나님이지 그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독백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한다.<sup>62)</sup> 이는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영성생활을 위한 주요한 텍스트인 성경도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바르게 적용될 수 없다. 성경은 단지 지적인 진리나 정보에 대한 계시를 훨씬 넘어서는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현대 독자들과 수용자의 영성생활에 대한 상황적 이해 없이 성경 텍스트에

---

58) Gerald G. May, *Care of Mind Care of Spirit: Psychiatric Dimensions of Spiritual Direction* (New York: Harper & Row, 1982), 126에서 인용.

59) James I. Packer, *Rediscovering Holiness*, 장인식 역, 『거룩의 재발견』 (서울: 토기장이, 2011), 143.

60) Charles Kraft, *Christianity in Culture*, (New York: Orbis Book, 1979), 46.

61) Orlando Costas, *Christ Outside the Gate: Mission Beyond Christendom* (New York: Orbis Book, 1982), 5.

62) Charles Kraft, *Christianity in Culture*, 24.

나타난 영성생활의 요소를 주석적 분석만을 통하여 해석할 때 성경 텍스트를 통해 현재 독자와 수용자의 영성생활을 왜곡할 수 있다.

방언기도를 통해 영성생활에서 상황적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언기도에 대한 이해에서 상황적 해석이 간과되어 단순하고(naive) 왜곡된 관점에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방언기도가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또는 방언기도가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지속될 수 있는가 아닌가라는 논의에만 머무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방언기도가 인간의 무의식적 차원과 언어 그리고 영적 환경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상황적 논의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보편적으로 여러 성경신학자들과 조직신학자들은 방언기도의 상황적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신학적이고 교리적 관점에서 연역적 방식으로 방언기도를 해석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향이 많다. 뿐만 아니라 방언기도를 실행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상처와 삶과 상황과 방언기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방언기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발견되는 다양한 영적 의미들을 간과하는 경향이 많다. 김재성은 그의 저서 『개혁주의 성령론』에서 성령과 성령의 사역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의 방언에 대한 진술은 고전적 해석학적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다. 그는 방언에 대한 성경적 교리적인 연구를 통하여 방언기도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방언이란 무엇이며, 왜 방언이 필요했는가? 방언 시작은 기원은 바벨탑의 오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다시 방언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에게 언어로 복음을 들려주시는 자비하신 은혜에서 나온 것이다. 물론 방언이란 마치 어린 아이의 언어와 유사하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린 아이일 때에는 생각하는 것이나 깨달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았다고 했다. 방언은 그런 초보적인 단계에서 필요한 기적이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말을 배울 때에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다가 점차 성장하면서 분명한 목소리를 발하게 된다.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다운 인격자가 되는 것이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직 아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발달 장애인이다. 안타깝지만 책임 있는 어른 노릇을 할 수 없다. 방언은 어린 아이의 말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제 어른인데 말 더듬는 사람처럼 계속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야 하는가?<sup>63)</sup>

방언기도 자들을 영적 ‘발달장애인’처럼 평가하는 것은 방언기도를 지나치게 단순하게(naive) 이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왜곡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방언기

---

63) 김재성, 『개혁주의 성령론』 (서울: CLC, 2012), 271-72.



도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방언기도의 심층적 의미, 즉 방언기도가 무의식적 차원과 환경적 상황 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간과함으로써 방언기도 자들의 심리적 환경적 상황을 놓쳐버리게 된다. 따라서 방언기도와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단지 성경과 신학에서 말하는 이론적 내용뿐만 아니라 상황적 해석도 요구된다.

방언(고전 12:10, 28, 30; 14:1-40)은 배운 경험이 없는 새로운 언어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능력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이 메시지는 말씀을 받는 자(고전 14:13) 혹은 통역의 은사가 있는 자에 의해 통역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한다(고전 14:26-28). 방언은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먼저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고전 14:26-28). 둘째, 오순절의 방언(행 2:1-13)과 고린도에서의 방언의 사용(고전 14장)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고린도에서의 방언은 회중을 향한 메시지가 아닌 교회의 덕을 세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고전 14:2)과 관계된 은사이다. 따라서 고린도에서의 방언은 예언적이기보다는 예배에 가깝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2:10과 28에 나타난 영적 은사에 대한 진술에서 다양한 ‘각종 방언’이 있음을 언급한다. 셋째, 바울은 고린도전서 14:2, 4, 14, 15, 28에서 각종 다른 방언에 대해 인정하는 것을 볼 때, 소위 방언 기도(고전 14:14-15)라 불리는 개인적 방언의 사용과 반드시 통역되어야 하는 공적인 방언의 사용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 기도 방언은 경배나 중보를 돕기 위해 많이 사용하지만, 방언의 은사의 주요한 목적은 상호 간에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넷째, 방언의 은사는 쉽게 남용되고 가장될 수 있다. 즉 방언은 영적 교만, 과도한 심취, 분열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회에 분별과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다. 다섯째, 방언의 은사는 그것이 마치 성령 받은 자의 필수 능력인 것처럼 가정되어 많은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른 해석도 중요하다. 특히 방언이 성령 세례의 유일한 표적은 아니라는 것과 모든 신자들이 이 은사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전 12:17-19, 30).<sup>64)</sup>

Anthony Thiselton은 고린도전서의 방언의 은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적 관점들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기술하였다.<sup>65)</sup> 첫째, 천사의 말로서의 방언(E. Earle Ellis, G. Dautzenberg),<sup>66)</sup> 둘째,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기적적인 능력으로서의 방언(Chrysostom, Thomas Aquinas, Robert Gundy, Christopher Forbes

64) Kenneth D. Boa, 『기독교 영성, 그 열두 스펙트럼』, 352-53.

65) Anthony C. Thiselton, *The Hermeneutics of Doctrine* (Grand Rapids: Eerdmans, 2007), 444-45.

66) E. Earle Ellis, *Prophecy and Hermeneutics in Early Christianity* (Grand Rapids: Eerdmans, 1978), 6-71.

),<sup>67)</sup> 셋째, 전례적이거나 고풍스럽거나 울동적인 말의 형식으로서의 방언(F. Bleek, C. F. G. Heinrici, L. T. Johnson, ),<sup>68)</sup> 넷째, 황홀경(무아경)에서 하는 말로서 방언(Tertullian, S. D. Currie, L. T. Johnson, H. Kleinknecht),<sup>69)</sup> 다섯째, 과도하게 통제된 정신에서 나온 예지적인 지각이나 경험을 잠재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폭발시키는 해방으로서의 방언(K. Stendahl, G. Theissen, F. D. Machia, Max Turner, J. Motmann)이다.<sup>70)</sup>

Thiselton은 고린도전서 그리스어 본문의 주석을 통하여 위의 다섯 가지 견해 가운데 처음 네 가지 견해에 반대하고 다섯 번째의 입장을 취한다. 그가 다섯 번째 견해를 취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이렇게 밝힌다.<sup>71)</sup> 즉 Philo와 Josephus의 글에 나타난 ‘헤르메뉴오’와 ‘디에르메뉴오’란 용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은 ‘통역하다’라는 의미보다 ‘분명히 말하다’ 또는 ‘말로 나타내다’라는 의미로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증거를 통하여 고린도전서 12:10에 나타난 방언은 로마서 8:26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어구와 병행을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sup>72)</sup> Thiselton은 이러한 이해 안에서 방언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나 기쁨, 울음이나 웃음의 분출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한다. 즉 방언에서 울음과 웃음은 의식과 개념, 그리고 인지적인 정신 이전에 터져 나오고, 순수한 명제적 진술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소리나 몸짓으로 분출된다는 것이다.<sup>73)</sup> 그는 바울은 억누르지 않고 “다 털어놓게 하는” 성령의 해방하는 은사로 방언을 이해했다고 보았다.<sup>74)</sup> 이렇게 분출시키는 것이 속에 쌓아두거나 못 박아 두는 것보다 더 건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방언은 이처럼 심리적이고 무의식적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방언기도와 같은 영성생활을 단지 성경에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만을 연역적으로 분석하거나 해석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방언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환경적 상황을 고려한 또는 포함된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67) C. Forbes, *Prophecy and Inspired Speech in Early Christianity and Its Hellenistic Environment*, QUNT II, 75 (Tubingen: Mohr, 1995), 57-65.

68) C. F. G. Heinrich, *Der erste Sendschreiben des Apostel Paulus an die Korinth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9), 376-94.

69) S. D. Currie, “Speaking in Tongues,” *Interpretation* (1965): 274-94.

70) Krister Stendahl, “Glossolalia- The NT Evidence,” in Krister Stendahl, *Paul among Jesus and Gentiles* (London: SCM, 1977), 109-24; Gerd Theissen, *Psychological Aspects of Pauline Theology*, trans. J. P. Galvin (Edinburgh: T&T Clark, 1987), 74-114.

71) Anthony C. Thiselton, *The Hermeneutics of Doctrine*, 445.

72) Anthony C. Thiselton, *The Hermeneutics of Doctrine*, 445.

73) Anthony C. Thiselton, *The Hermeneutics of Doctrine*, 445.

74) Anthony C. Thiselton, *The Hermeneutics of Doctrine*, 445.

### III. 나가는 글

영성생활의 목적은 통전적인 관계 안에서 전인성을 회복하는데 있다. 전인성 회복으로서 영성생활은 '확대된 자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확대된 자아 또는 통전적인 관계의 구조는 영성생활의 해석학적 시금석이다. 확대된 자아는 자신의 내면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피조물, 전통, 이론, 경험, 노동, 실천 등과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성생활은 단지 기도 자체나 말씀 묵상과 같은 요소들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들과 상호 순환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실현된다는 것을 밝혔다. 통전적인 영성생활을 위해서는 몸과 영혼, 전통과 실제적 경험, 이론과 실천, 내용과 상황, 기도와 노동, 선호하는 차원과 덜 선호하는 차원과의 순환 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혁신되고 발전되기 때문이다.

영성생활이 역사적으로 이해되어 왔던 이론적 교리적 이해와 경험과 영성생활에 대한 현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영적 경험과 해석을 통해 형성된 실존적 의미는 순환관계 안에 있다. 전자는 후자를 위한 특수하고 경험적 지혜를 제공하고, 후자는 전자를 위한 혁신적인 영적 의미를 부여한다. 이 둘은 해석학적 순환관계 안에서 제공과 응답 그리고 지혜와 혁신의 상호관계 안에서 영성생활의 임상적 상황적 실재를 구성하도록 돕는다.

본 연구에서는 영성생활의 해석학적 패러다임으로서 고전적 패러다임과 임상적 패러다임 그리고 상황적 패러다임의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해석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고전적 패러다임은 영성생활에 대한 명사적 이원론적 이론 또는 이성 중심적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물론 고전적 패러다임에서 중요하게 여겨왔던 영성생활에 대한 이론적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고전적 패러다임에서 형성된 몸과 노동과 분리된 영성생활은 패러다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임상적 패러다임에서는 영성생활의 동사적 관계적 경험적 구조와 특징을 통해 해석하였다. 즉 임상적 패러다임에서는 영성생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영성생활이 어떤 요소들과 순환 관계 안에 있으며, 어떻게 형성되고 실행되는지에 대해서 논하였다. 영성생활은 기도와 성령, 정신세계, 무의식, 몸, 일상, 환경 등과 어떤(how)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해석학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상황적 패러다임에서는 영성생활의 개별적 환경적 상황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영성생활에서 개별적 환경적 상황을 간과할 때 왜곡된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방언과 방언기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밝혔다. 영성생활은 진공상태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문화적 토양 안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영성생활의 해석학적 패러다임에서 이 세 패러다임은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순환되어야 한다. 이 세 패러다임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완되거나 상실되어 고전적인 패러다임만을 고수할 때 소위 보수주의라는 미명아래 응고되고 사변적인 영성주의로 전락하여 하나님과의 생동적인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생명력을 상실하기 쉽다. 반대로 임상적 상황적 패러다임에만 초점을 맞출 때 소위 영적 경험주의라는 미명아래 표준을 상실한 편의적인 상대주의적 영성생활만 부추길 수 있다. 때문에 이 세 패러다임은 통전적인 관계 안에서 순환적이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재성. 『개혁주의 성령론』. 서울: CLC, 2012.
- 유해룡.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 서울: 장신대출판부, 1999.
- 최창국. 『영혼 돌봄을 위한 기독교 영성』. 서울: CLC, 2013.
- 최창국. 『영혼 돌봄을 위한 해석과 분별』. 서울: CLC, 2018.
- Boa, Kenneth D. *Conformed to His Image*. 송원준 역. 『기독교 영성, 그 열두 스펙트럼』. 서울: 디모데, 2005.
- Browning, Don S. "Pastoral Theology in Pluralist Age." in Don S. Browning. ed. *Practical Theology*.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3.
- Calvin, John. *Commentary on Luk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2005.
- Calvin, John. *Sermons on Ephesians*. Edinburgh: Banner of Truth, 1973.
- Clark, Andy and Chalmers, David J. "The Extended Mind." *Analysis* 58(1998): 10-23.
- Clinebell, Howard. *Basic Type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박근원 역. 『목회상담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 Corlett, Eleanor S. and Miller, Nancy B. *Navigating Midlife: Using Typology as a Guide*.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93.
- Costas, Orlando. *Christ Outside the Gate: Mission Beyond Christendom*. New York: Orbis Book, 1982
- Currie, S. D. "Speaking in Tongues." *Interpretation* (1965): 274-94.
- Duncan, Bruce. *Pray Your Way: Your Personality and God*. London: DLT, 1993.
- Ellis, E. Earle. *Prophecy and Hermeneutics in Early Christianity*. Grand

- Rapids: Eerdmans, 1978.
- Fairbairn, Donald. "Grace As Sharing Divine Communion." in *Grace and Christology in the Early Chur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Forbes, C. *Prophecy and Inspired Speech in Early Christianity and Its Hellenistic Environment*. QUNT II, 75. Tubingen: Mohr, 1995.
- Jung, C. G. *Man and His Symbols*. 이부영 외 역.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서울: 집문당, 2000.
- Jung, C. G. *Psychological Typ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 Kraft, Charles. *Christianity in Culture*. New York: Orbis Book, 1979.
- Leech, Kenneth. *Experiencing God: Theology as Spirituality*. New York: Harper & Row, 1985.
- Liebert, Elizabeth. *The Way of Discernment: Spiritual Practice for Decision Making*. 이강학 역. 『영적 분별의 길』. 서울: 좋은씨앗, 2016.
- Marshal, Paul with Gilbert, Lela. *Heaven Is Not My Home: Learning to Live in God's Creation*. 김재영 역.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서울: IVP, 2000.
- Marshal, Paul. *A Kind of Life Imposed on Man: Vocation and Social Order from Tyndale to Lock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6.
- May, Gerald G. *Addiction & Grace: Love and Spirituality in the Healing of Addictions*. New York: HarperSanFrancisco, 1988.
- May, Gerald G. *Care of Mind Care of Spirit: Psychiatric Dimensions of Spiritual Direction*. New York: Harper & Row, 1982.
- McGrath, Alister. *Roots that Refresh: A Celebration of Reformed Spirituality*. London: Hodder & Stoughton, 1992.
- Moltmann, J. *Die Quelle des Lebens*. 이신건 역. 『생명의 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Moore, Thomas. *Care of the Soul: A Guide for Cultivating Depth and Sacredness in Everyday Life*. 김영운 역. 『영혼의 돌봄』. 서울: 아침지도영성연구원, 2007.
- Morgan, Oliver J. and Jordan, Merle. eds. *Addiction and Spirituality: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문희경 역. Robert H. Albers. "무조건적인 내어맡김." in 『영성과 중독: 다학문적 접근』. 서울: CLC, 2017.

- Mulholland, M. Robert. *Invitation to a Journey: A Road Map for Spiritual Formation*. 서원교 역. 『영성여행 길라잡이』. 서울: 살림, 2008.
- Newberg, Andrew and Waldman, Mark Robert. *How God Change Your Brain*. New York: Ballantine Books, 2009.
- Osborne, Grant R. *The Hermeneutical Spiral: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VP, 1991.
- Packer, James I. *Rediscovering Holiness*. 장인식 역. 『거룩의 재발견』. 서울: 토기장이, 2011.
- Palmer, Parker J. *The Active Life: A Spirituality of Work, Creativity and Caring*.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0.
- Reid, W. Stanford. ed. *John Calvin: His Influence in the Western World*. 홍치모 이훈영 역.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 Schleiermacher, Friedrich. *Hermeneutics: The Handwritten Manuscripts*. ed. by Heinz Kimmerle. Missoula: Scholars Press, 1977.
- Smith, Christian with Snell, Patricia. *Souls in Transition: The Religious & Spiritual Lives of Emerging Adul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Stendahl, Krister. "Glossolalia- The NT Evidence." in Krister Stendahl, *Paul among Jesus and Gentiles*. London: SCM, 1977.
- Theissen, Gerd. *Psychological Aspects of Pauline Theology*. trans. J. P. Galvin . Edinburgh: T&T Clark, 1987.
- Thiselton, Anthony C. *The Hermeneutics of Doctrine*. Grand Rapids: Eerdmans, 2007.
- Torrance, James B. *Worship, Community and the Triune God of Grace*. Dowers Grave: IVP, 1996.
- Underhill, Evelyn. "A Historical Sketch of European Mysticism from the Beginning of the Christian Era to the Death of William Blake." in *Mysticism: A Study in the Nature and Development of Man's Spiritual Construction*. New York: Meridian Books, 1955.
- Vaillant, George E. *Aging Well*. 이덕남 역. 『행복의 조건』. 서울: 프론티어, 2010.
- Watts, Fraser. ed. *Spiritual Heal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Weaver, Glenn. "Embodied Spirituality: Experiences of Identity and

- Spiritual Suffering Among Persons with Alzheimer' Dementia.” in *From Cells to Souls and Beyond*. ed. Malcolm Jeeves. Grand Rapids: Eerdmans, 2004.
- Winckel, Erna Van De *De. l'inconscient a Dieu*. 김성민 역. 『응의 심리학과 기독교 영성』. 서울: 다산글방, 1996.
- Wright, Nicholas Thomas. *Surprised by Hope*. London: SPCK, 2007.
- Wright, Nicholas Thomas. *Surprised by Hope: Rethinking Heaven, the Resurrection, and the Mission of the Church*. New York: HarperOne, 2008.

[논평1]

## “영성생활의 해석학적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찬

조성호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영성 또는 영성생활은 20세기 중반 이후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활발한 저술과 논의가 진행되는 분야이며 그 속성상 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구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매개로도 그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끊임없이 지평을 확장하는 영성 관련 연구는 내용의 풍부함과 더불어 형식 측면에서도 과거에 볼 수 없던 새로운 분야를 대면하는 신선함을 제공하는 활력소를 제공한다.

언제나 그렇듯, 많은 정보와 더불어 논리적이고 깊은 통찰을 전달하는 연구자의 논문을 읽으며 방대한 분량 뿐 아니라 연구 방법론과 다양한 주제들을 하나의 연장선상으로 끌어내는 글쓰기 실력 그리고 그를 논리적 결론으로 유도할 수 있는 탁월한 성찰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이제는 영성이라는 주제가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 전체를 독서하는 동안 긴장감을 지속할 수 있던 이면에는 연구자의 깊은 실력이 고스란히 전해진 탓이며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제목에 주어진 내용 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연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많은 내용들 중 해석학적 작업을 위해 이분법적 경계를 세분화하고 그 내용들을 상술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 영성을 통해 이분법적 세계관과 왜곡된 신학적 가치관을 회복하려는 시도는 수없이 진행되었으나, 그 이분법의 범주를 다양한 영역으로 세분화하고 그로부터 유추 가능한 심층적 개념들을 설명하는 경우는 실상 많지 않은 까닭이다. 연구자가 제시한 이분법들 각 영역을 독립적인 연구주제로 삼아도 무방할 만큼 저자의 깊은 학문적 안목은 읽는 이로 하여금 더 많은 연구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촉매제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 굳이 반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요약은 발표자의 높은 발표 역량에 맡기고 글을 읽으며 개인적으로 느낀 몇 가지 질문을 아래와 같이 나누고 싶다.

앞서 언급한 대로, 연구자가 이분법적 도식을 입체적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영역을 정밀한 개념으로 다룬 부분은 돋보이는 학문적 성과이다.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개념적 이분법 외에 사회적 양극화로 야기된 21세기 한국 사회의 계층별 이분법을 좀 더 다루어주었으면 싶은 점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계층별 양극화는 정당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며 그로 인해 교육 및 주거환경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의 양극화 역시 필연적인 사회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록 촛불집회와 탄핵정국을 거쳐 새롭게 선출된 정부가 그와 같은 사회적 양극화와 계층별 서열화를 타개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입안하



고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뿌리 깊게 확장된 현대판 신분사회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연애와 결혼을 포함해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위축으로 연결되며 한국사회 전체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낮은 출산율과 인구급감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역시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 양극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할 때, 영성을 통한 이분법적 경계의 극복은 단순히 신학적 개념 차원에서만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실생활을 다루는 주요 원리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분법적 패러다임을 극복하려는 연구자의 접근 방식이 실제적인 한국사회의 주제들을 다루는데 매우 중요한 방법론적 기재로 이어질 개연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 다른 후속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

또 한 가지 개인적인 바람은 자아의 개념과 관계를 통해 확장된 자아를 중요하게 다룬 저자의 접근 방식과 연관된다. 기본적으로 철학적 개념이나 심리학적 차원에서 확장된 자아를 구분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점을 긍정한다. 하지만 굳이 개념적으로 확정할 이유가 없을 만큼 실존이 일상화된 오늘날 정황을 생각할 때, 존재론적 차원에서 자아와 인식론적 자아를 구분하는 방법론 외에 자아의 실제 존재 방식을 고민의 주제로 삼으면 어떨까 싶다. 즉 사회적 병폐들을 양산하는 자기중심적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구조는 물론 오늘날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일인 중심의 거주환경에서 자아의 개념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연구자는 광범위한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심층적인 이론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이론들이 길을 잃은 한국사회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실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실천신학 차원의 질문을 던진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연구자에게 하고 싶은 질문 또는 부탁은 전반적으로 많은 이론들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시킨 점은 이 논문의 엄청난 장점이라는데 이견이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성경이나 교회역사와의 연결성이 그만큼 약화되었다는 점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물론 영성이라는 분야가 어느 토대로부터 시작하느냐는 복수의 가능성을 이미 긍정하는 바, 굳이 옳고 그름 또는 적절성과 부적절성의 개념으로 접근할 이유는 없음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영성이라는 제목은 일반 영성과 차별화되는 분명한 기준과 근원을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해 확립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물론 이 질문은 성경과 저자의 신학적 배경을 서로 대립적 구도로 분리하는 환원주의적 의도를 뜻하지 않는다. 직접적인 성경 구절이나 성경의 신학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성경적 특성을 지닐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도 성경과 기독교 신학의 핵심을 명확하게 관통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성생활이 지나친 외부 이론으로만 점철될 경우, 기독교 영성 본래의 가치를 잃고 성경과 신학적 성찰이 다른 영역의

연구를 위한 보조적 장치로 전락할 것을 염려하며 연구자가 이 부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했는지를 듣고 싶다.

평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주제를 다양하고 풍성한 내용으로 끌어낸 저자의 역량을 논평이라는 방식으로 판단하는 일은 짧은 지식과 좁은 소견을 지닌 논평자에게 심히 부담스러운 작업이다. 글로 표현된 저자의 논지가 액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도 환상에 불과하며, 설령 연구자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치밀한 논리 속에 담긴 높은 수준의 연구결과를 정확히 논평하는 일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논평자라는 책임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질문을 제기하며 앞으로 연구자의 많은 업적들이 한국교회는 물론 한국사회 전반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치유책의 하나가 되기를 응원한다.

[논평2]

## “영성생활의 해석학적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평

김용민 (침례신학대학교)

최창국 박사의 “영성생활의 해석학적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는 1. 영성생활의 해석학적 시금석으로서 ‘확대된 자아’와 2. 영성생활의 해석학적 순환의 구조로 글을 열어주면서 3. 영성생활의 해석학적 패러다임을 고전적 패러다임, 임상적 패러다임, 상황적 패러다임 등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확대된 자아’는 클락과 찰머스의 ‘확대된 정신’을 발전시킨 개념으로서, 관계적이며 통전적인 해석학적 개념으로서의 자아를 그려내고 있다. 또한 이중의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영성생활의 해석학적 순환의 구조를 변증법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존 패튼이 제시한 목회돌봄의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영성생활의 해석학적 패러다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최창국 박사의 논문은 독자로서 하여금 “영성생활”이라는 측면을 “해석학”이라는 관점을 통해 삼중의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러한 시도는 영성생활을 해석학이라는 학문과 조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목회돌봄의 세 가지 패러다임을 통해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또한 최창국 박사의 저술(영혼 돌봄을 위한 해석과 분별)과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잇달아 있어서, 실제로 내용상 얼마나 관련성이 있을지 살짝 궁금하기도 하다. 필자는 이 논문을 해석학적 관점에서 살피려고 한다. 리퀴르가 텍스트를 ‘글로 고정된 담론’이라고 정의했듯이, 이것 역시 최창국 박사의 담론이 글로 고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직 과정 중이라고 하더라도 저자의 손을 떠난 완성된 텍스트로서 논찬을 위한 해석 대상이 되었다.

먼저 이 논문을 이해함에 있어 해석학적 선지식이 필요하다. 최창국 박사가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해석학 중 대표적인 것은 하이데거의 제자인 가다머의 것이다. 가다머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해석학을 계승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영역을 개척한 학자로서 이 논문에는 지평융합, 영향사 등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평융합에 대한 발전된 논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평융합은 지평과 지평의 만남을 넘어 지평확장을 가져온다. 또한 이것은 지평수렴으로 나아간다. 이 개념은 최창국 박사가 말하고자 했던 해석학적 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해석학적 순환은 지평과 지평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평확장과 지평수렴의 지속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이 이 개념을 포함했다면 영성생활에 대한 해석학적 논의가 더 풍부해지지 않았을까 한다.

해석학적 순환은 현대해석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슐라이어마허가 처음부터 언급

했던 것으로서, 그때는 이중의 해석학적 순환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리콰리에 이르러 삼중의 해석학적 순환 과정으로 넘어갔다. 전통적 해석학적 순환은 이해와 설명의 이중성을 전제로 한다. 즉 인문과학의 방법인 이해와 자연과학의 방법인 설명을 변증법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처음과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해석학적 순환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 이해와 다음 이해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것을 선순환이라고 한다. 선순환은 축적하는 방식과 실존적 결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악순환은 동어반복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서 더 이상의 확장된 이해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해석학적 순환이 뼈대를 이루고 있는 이 논문은 선순환인가 아니면 악순환인가?

해석학적 순환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과정철학 또는 과정신학으로 나아간다. 화이트헤드에 의해서 시작된 과정철학은 신과 인간을 과정적 존재로 묘사한다. 페이아르 드 샤르댕은 과정신학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인간현상]에서 다양한 임계점을 거쳐 '진화된' 인간을 오메가 포인트(그리스도)를 향해 '진화하는' 과정적 존재로 묘사했다. 이때 '진화'는 과정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확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창국 박사가 제안한 '확대된 자아'는 과정적 존재로서의 자아의 특징인 "확장성"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창국 박사가 강조하는 통전성은 논리적 설명이 부족하다. 하나의 이론은 일반적으로 범주론(category)이나 차원론(dimension) 가운데 하나를 따른다. '확대된' 자아는 점진적인 차원론(확장성)에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영역적인 범주론(통전성)에서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최창국 박사의 통전성은 전인성을 가리키지만 내용전개는 구조론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 안에는 인간의 구성에 대한 혼란이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신학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이분법) 또는 영, 혼, 육(삼분법)으로 구분해 왔다. 최창국 박사 역시 이것을 따른다. 그러나 이분법과 삼분법을 혼용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킨다. 그리고 영혼을 '프뉴마'로 보는지 '프쉬케'로 보는지가 불명확하며, 몸(소마)과 육체(사르크스)를 혼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의구심이 든다. 한 가지 더 부언하면, 최근의 전인성은 인간의 구조를 넘어 삶의 영역으로 나아갔다. 논문의 후반부에 이러한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전인성 또는 통전성에 대한 설명이나 논의를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논문을 전개했으면 글이 좀 더 명확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 논문의 핵심은 "영성생활의 해석학적 패러다임"이다. 최창국 박사는 이것을 논문의 마지막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 다룬다. 여기서 최창국 박사가 따르는 틀은 존 패튼의 목회돌봄의 패러다임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공동적 상황적' 패러다임이 '상황적'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언급은 있으나 출처가 없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최창국 박사의 넓은 지

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학자를 언급하던 안 하던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찾아볼 수가 없으며, 심지어는 이것이 최창국 박사의 것인지 다른 사람의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논문의 핵심을 이루는 이 패러다임 역시 그러하다. 처음 이 패러다임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패러다임을 그대로 따르는지 아니면 재정의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독자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

패튼의 입장에서 보면, 최창국 박사의 영성생활의 해석학적 패러다임 세 가지는 이름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최창국 박사는 세 가지 패러다임에 대한 많은 설명을 부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많은 설명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특히 반복적 내용). 또한 각각의 패러다임에 대한 오해가 있는 듯하다. 패튼은 고전적 패러다임에서 ‘목회돌봄의 메시지’를, 임상적 패러다임에서 ‘목회돌봄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을, 상황적 패러다임에서 ‘목회돌봄의 메시지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혼돈시키고 있다. 임상적 패러다임의 경우 최창국 박사는 ‘목회돌봄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 ‘목회돌봄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은 사람의 간의 상호작용 또는 상호작용하는 개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최창국 박사는 상호작용에 대한 강조 때문인지 상황적 패러다임에서 언급해야 할 ‘목회돌봄의 메시지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 상황(context)’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이와 달리 상황적 패러다임에서는 방언기도에 대한 언급을 통해 context보다는 situation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필자의 논찬은 오해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이해와 설명의 해석학적 순환 가운데 오해는 필연적 부산물이므로 온전한 이해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인정해 주었으면 한다. 풍부한 지식을 통해 함께 생각할 만한 발전적 글을 써주신 최창국 박사에게 감사한다.

## “교리설교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정요석 (세움교회)

### 1. 들어가며

조직신학자 밀라든 에릭슨(Millard J. Erickson)과 설교학자인 제임스 헤플린(James L. Heflin)은 공저한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리 설교』에서<sup>1)</sup> 교리 설교 전반에 관하여 잘 기술하였다. 이 책은 제1부에서 교리 설교와 관련된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제2부에서 교훈적인 본문과 내러티브 본문에서 교리를 어떻게 확보할지를, 그리고 어떻게 교리의 보편화와 구체화를 할지를, 제3부에서 교리를 설교의 형태로 어떻게 전달하기를, 제4부는 교리 설교를 위한 계획과 전략 세우기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교리 설교의 개요와 준비와 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잘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제3부에서 교리 설교를 강해식, 주제식, 내러티브식, 연극식 4가지로 분류하여 교리를 설교로 전달하는 구체적 방법도 잘 말하고 있다. 박현신 교수는 2017년 12월에 『목회와 신학』에 기고한 글에서 “설교자는 교리 설교 정상으로 가는 다양한 루트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요리문답을 통한 설교 루트 외에 다양한 설교 루트를 다음처럼 제시하고 있다. “주로 본문의 한 절을 주해하고 적용하는 ‘강해적 본문 설교’, 하나의 중심 사상을 내포한 한 단락의 본문을 정해서 주해에 기초한 핵심 교리를 드러내고 적용하는 ‘강해적 단락 설교’,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특정 주제와 청중들이 필요한 주제를 연결하면서 다른 성경 구절들을 통합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강해적 주제 설교’, 설교자가 정한 특정 주제를 증명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가져와 증명하는 ‘주제식 교리 설교’, 내러티브 본문과 교리 설교를 조합한 ‘내러티브식 교리 설교’”<sup>2)</sup> 그는 각각에 대하여 2018년 3월, 5월, 7월, 9월에 『목회와 신학』에 실린 기고 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미 교리 설교 전반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 설교학자가 아닌 본인이 교리 설교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더 덧붙일 것은 없고, 교리

1) Millard J. Erickson & James L. Heflin, *Old Wine in New Wineskins: Doctrinal Preaching in a Changing World*, 이승진 역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리설교』 (서울: CLC, 2005).

2) 박현신, “교리 설교의 높은 산 정복하기” 『목회와 신학』 (2017, 12월): 88.

설교에 집중한 현장 목회를 20년간 한 목회자로서 그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즉 이 소고는 신학적이라기보다는 경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50대 중반의 본인은 신학교 3학년 때인 1998년 9월 27일에 성도 가정에서 첫 개척예배를 드렸다. 1999년 4월 11일에 합신 교단의 남서울노회에서 교회 설립 허락을 받아, 4월 24일에 서초구 서초동에서 서초교회 설립예배를 드렸다. 설립 때부터 교리 설교를 해왔고, 오후에는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초교회는 동작구 상도동에 140평의 땅에 교회당을 지어 2009년 2월 15일에 세움교회로 교회 이름을 바꾸어 이사하여 지금에 이른다.

본인은 안양대학교와 백석대학교에서 조직신학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sup>3)</sup> 받았다. 목회를 하며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까지 한 것은 교리를 설교하고 가르치며 부족한 점을 느꼈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학위 공부를 통해 교리와 교회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보다 효과적으로 교리 설교와 강의를 할 수 있었다. 외래교수로 2010년부터 대신총회신학교에서, 2012년부터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강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과 같은 과목들을 가르쳤고, 2017년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교리 설교”를 가르쳤다.

교리 설교와 강의에 대한 경험, 그리고 조직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며 쌓은 신학적 지식 등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6개월 간격으로 『소요리문답, 삶을 읽다』 상하권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삶을 읽다』 상하권을 새물결플러스를 통해 출간하였다. 책 제목이 말해주듯 교리를 삶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리를 통해 삶을 이해하도록 집필 방향을 잡았다. 합신 교단의 종교개혁 500주년기념사업특별위원회에서 도르트 총회 400주년을 기념하는 책자의 저자로 본인을 선정하여, 올해 7월에는 『전적 부패, 전적 은혜: 도르트 신경의 역사적 배경과 해설』을 영음사를 통해 출간하였다. 아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도르트 신경에 관한 해설서를 모두 쓴 사람은 세계적으로도 드물 것이다.

본인은 이 소고에서 20년간 교리 설교와 강의를 해온 경험과 교리 해설서들을 쓴 경험에 근거하여 교리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살피는데, 첫째로, 교리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함을, 둘째로 교리 설교와 교리 강의를 구분해야 함을, 셋째로 추상적인 교리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함을 살피본다. 넷째로 교리에 맞는 설교 본문을 잘 채택하는 것과 구체성에 도움 되는 자료를 신문과 독서와 삶을 통하여 획득하는 것이 추상성을 구체성으로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됨을 살피본다. 다섯째로 교리 설교는 목회라는 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짐

3) 석사 학위의 제목은 “순교자 저스틴을 통해서 본 신구약의 관계”이고, 박사 학위의 제목은 “삼위일체 관점에서 본 조나단 에드워즈의 언약론”이다.

으로 목회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교리 설교의 내용이 성숙하게 표현되어야 함을 살펴본다.

## 2. 교리 설교에 관한 목회 경험

### ① 교리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의 필요성

본인은 신학교 때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경 등에 관심이 있었다. 이러한 성향으로 본인은 교회 설립을 한 1999년부터 서초교회의 주일 설교에서 교리 설교를 해왔다. 오후에는 칼빈주의 5대교리와 같은 책을 공부하였고, 수요일 저녁에는 예배 대신에 성도들과 함께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었다. 이렇게 몇 달간 했을 때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교리를 많이 알게 되어 좋다고 했을까? 그런 분도 있었지만, 일부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느낌보다 공부하러 온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하였다. 본인은 이 표현을 듣고 목회 전반을 반성하였다. 교회는 절대로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설교는 강의가 되어서는 안 됨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교리 설교와 강의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보다 더 고민하였고, 이런 저런 여러 시도를 하였다.

교회 개척 초기부터 꾸준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가르치니 사오년에 걸쳐 3번 반복하여 가르치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누구보다 많이 배운 사람은 본인으로 신앙고백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처음 가르칠 때는 신앙고백의 각 문장을 겨우 이해하여 가르쳤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신앙고백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줄로 알고 임했지, 신앙고백 자체로부터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3번 가르치고 나니 각 교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교리들 간의 전후 관계도 파악할 수 있었고, 각 교리에 왜 이런 단어와 문장이 사용되었는지 교회사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풍성하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동시에 교리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새겨진 만물을 통해 설명할 수 있었고, 다양한 성경 본문을 통해 설명할 수 있었다. 교리는 성경과 상관이 없는 내용물이 아니라 “오직 성경(sola scriptura)”에 근거하여 “전체 성경(tota scriptura)”의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한 것임을 성경 인용을 통해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깊이 이해하기 위한 것이 교리임을 성경 인용을 통해 보여줄 수 있었다.

교회에서 교리 설교나 강의를 하는 목사들 중에 일부가 자신들은 잘 하는데 성도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쉽고 기복적인 설교와 강의를 원한다고 말하곤 한다. 일정 부분 맞지만, 동시에 목사들이 교리 자체를 깊고 넓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목사 자신이 교리의 문장과 단어를 겨우 이해하는 수준인데, 어떻게 풍성하게 전할 수 있을까? 자신은 교리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얕은 수준인 경우가 많다. 교리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의 교리 이해 수준을 탓해야 한다. 신앙고백들을 신학적으로 잘 이해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본인도 몇 년 간에 걸친 공부를 통해서야 본인의 얕은 이해 수준을 깨달았다. 본인은 그나마 몇 년 후에라도 깨달았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 교리 관련 서적들을 보았고, 신학 석사와 박사 공부를 했지만, 목회 내내 깨닫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고, 성도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곤 한다. 교리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리 자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한다. 교리를 잘 이해하면 할수록, 교리를 입체적으로 쉽고 재미있게 다루고 전할 수 있다. 성도들로 교리를 통해 삶을 읽고 교리를 삶에 적용하도록 이끌 수 있다. 전달의 쉬움과 재미 그리고 삶에의 적용은 무엇보다 교리 이해의 깊이와 넓이에 달려 있다.

## ② 교리 설교와 교리 강의의 구분

본인이 교리 설교를 하며 범한 잘못들 중 하나는 설교와 강의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주일 오전에는 교리 설교를, 오후에는 교리 강의를 했는데 양자 간에 차이가 별로 없이 설교를 강의처럼 하였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일부 성도들이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 온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모든 설교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설교에는 기승전결의 흐름이 있다. 성도들은 설교 내내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절정 부분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다. 기승전결의 깔끔한 전개로 설교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강력한 한 방(?)이 설교 중에 있으면 성도들은 크게 감동을 받는다. 이에 반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는 내내 지식이 전달된다. 강의자는 특별히 절정이라고 할 부분 없이 강의 시간 내내 해당 주제에 관한 필요 지식을 전달한다. 교리 설교와 강의는 이면에서 크게 구분이 된다. 교리 설교를 교리 강의처럼 하면 청중은 지식을 설교 시간 내내 전달받는다. 지식의 이해는 앞선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앞부분을 놓치면 뒷부분에 아무리 집중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식의 습득과 축적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예배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지성의 측면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도들은 설교 시간 내내 정신을 집중하여 이성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나이가 들수록, 학력이 짧을수록 이러한 집중력으로 이성을 사용하여 교리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더 힘들다. 몇 번 연역적 논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논리의 전개를 못 좇아오는 성도들이 많아진다. 성도들이 처음에는 목사에게 대한 존경과 예배에 대한 기대로 교리 설교에 집중해도, 거듭하여 신학적인 논리의 전개로 이어지면 대폭 약해진다. 설교가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위로와 충전을 받고자 하는지 모르고, 어버

이 같은 목사를 통하여 따스한 관심과 격려를 받고 싶어 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교리 설교를 강의처럼 하면 목사는 간간한 교사와 강사로 인식되기 쉽다. 성도들이 하나라도 이해에 실패하면 엄격한 지적과 꾸지람을 들을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목사에게서 따스한 위로와 격려보다 엄격한 검색과 질책을 받을 듯하여 목사에게 거리를 두게 된다. 목사를 자신의 신앙생활을 돕고 격려하는 목자로 보기보다 검열하는 검사와 사감으로 보는 것이다.

본인은 어떻게 하면 교리를 강의를 아니라 설교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며, 첫째로 설교 한 번에 많은 것을 전하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과 둘째로 성도들의 이해력과 욕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함을 깨달았다. 칭의 교리에는 칭의론의 역사, 칭의의 본질, 성격, 요소, 시기, 근거, 그리고 칭의가 일어나는 영역 등이 있다. 이 중 하나만을 전하게 되었다. 이 중 하나를 성경 본문을 통하여 풍성하게 드러내었고, 삶의 다양한 내용으로 설명하게 되었다. 논리적인 전개가 아니라 성도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사고하는 내용을 택하게 되었다.

목회 초반에는 욕심이 앞서서 설교 한 번에 칭의 전체를 다루려고 했다. 그런데 목회를 이십 년 하고 보니 웬만한 내용은 모두 전하게 되어서, 전할 거리가 궁색해진다. 이런 면에서도 한 번의 설교에 너무 많은 것을 전하려고 하면 안 된다. 설령 많이 전해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수용하지 못하고, 다양한 지식을 전수받은 강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신학 수업을 받은 목회자와 받지 않은 성도 간에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을 목회를 할수록 확인한다. 일반 성도가 목회자의 수준에 이르는 신학 지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비율은 극히 적다. 교리 설교를 하는 목회자는 자칫 그런 소수의 성도들에게 맞추어 설교 수준을 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보편적 설교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교회는 만인의 교회이어야 하지, 교리와 개혁주의에 관심을 갖는 동회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신학 지식이 적은 자도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신앙 형태를 가진 자들도 적응할 수 있고, 점차 교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세움교회는 초창기에 교회 회원들이 높은 학력자로 채워졌다. 서초동이라는 지역의 특성도 있었지만 교리 설교와 강의도 한 몫을 하였다. 평균 이상의 사회적 지위와 연봉과 세련된 매너를 갖추었다. 이들의 장단점이 무엇이든 교회 회원이 한 쪽의 특성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설교가 지적이고 논리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면 설교자가 살펴봐야 할 일이다.

목회 초반에는 강대상 앞에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필기하며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좋았다. 그런데 이십 년간 목회하고 나니 설교를 잘 잊어버리는 성도들이 좋다. 설교 때마다 새로운 것을 듣는 냥 신기해하며 은혜로 받는 성도들이 좋다. 너무(?) 열심히 듣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앞서 설교한 내용을 잘 잊어버리지도 않는다. 이들 중 일부는 은혜 받는 것을 새로

은 신학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목회자를 공부하지 않는 게으른 목회자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목회자로 여기기도 한다.

교리 설교는 자칫 성도들을 교만하게 하고, 시시비비를 잘 가리는 판단자로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교리를 지향하는 개혁주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아무래도 옳고 그름에 관심이 많다. 이들은 교회의 정치와 예배와 권징도 성경과 헌법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다 보니 옳고 그름에 때로 민감하고,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받아들이고, 틀린 것을 오래 참으며 고쳐지기를 바라는 수용성이 약하다. 교회 봉사보다는 지성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교회 생활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성도들을 목회하는 목사는 교리를 가르친 만큼 그대로 교회 정치와 행정과 예배순서와 권징 등을 실행해야 하고, 자신의 삶으로 구현해야 하는 부담을 일반 목사들보다 더 갖게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리 교육을 받은 성도들은 보다 강하고 날카롭게 비판하곤 한다. 문제 해결을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종합적 판단으로 잠시 유보하거나 상황에 맞추어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목사가 교회의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면서 목회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까지도 때때로 자구적인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로 비판한다. 그러므로 교리 설교는 성도들을 외형적 지식으로 이끌면 안 되고, 그 어떤 설교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야 하고, 사랑과 수용성과 실천을 강조해야 한다.

### ③ 교리의 전달 방법: 추상성과 구체성

BC 3세기경에 활동한 그리스의 수학자인 유클리드의 기하학(Euclidean geometry)은 그 내용에 있어서 당대의 다른 지역의 수학과 비교하여 아주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동양의 수학도 이차방정식의 해까지 구하는 수준까지 나갔다.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뛰어난 점은 그 사유 방식에 있다. 직관에 의하여 명백한 참이라고 받아들인 공리에 근거하여 정의를 만들고, 그 정의에 의거하여 정리(명제)들을 만들며 전개하는 논리 체계는 수학을 실생활의 필요를 채워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자체로 옳은 것을 추구하는 학문이 되게 하였다. 동양에서도 논과 밭의 면적을 정확히 측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실용적 필요 때문에 수학이 발달하였지만, 유클리드의 기하학과 달리 동양의 수학에는 “증명”이란 사유 체계가 미약하였다. 공리와 정의와 정리라는 논리 체계는 더 깊은 원인이 무엇인지 추구하게 했고, 논리가 더 단단한 내적 적합성을 갖게 했다. 그 결과 서양의 수학방식은 단순히 면적의 정확한 측정을 넘어서서 미적분학의 발견과 적용에까지 이르렀고, 물리와 화학과 생물에도 상호 영향을 미쳐 원소와 핵과 세포처럼 보다 깊은 원리를 발견하는 데 일조했다.

동서양에 존재하는 학문과 산업과 정치의 발전 차이는 여러 요소들로 말미암겠지만, 경험적인 필요를 넘어서서 원리를 생각하려는 사유 방식은 중요한 요인이다.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 입구에 있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곳에 들어오지 말라”는 표현은, 기하학과 철학 간에 사유 방식이 유사함을 나타낸다. 수학은 신과 대화하는 학문이라고 한 데카르트는 미적분학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합리론의 뛰어난 철학자이기도 하다.

본인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같은 교리를 접할 때마다 수학의 냄새를 느끼곤 한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한 교리는 수학처럼 압축된 단어들로 절제되어 표현된다. 그래서 사용된 단어들의 뜻과 개념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교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이해하기 힘들다. 그리고 교리는 앞에 나온 교리를 전제하여 그 내용이 펼쳐지므로, 앞에 나온 교리를 알아야 하고, 교리 상호 간의 관계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교리에 사용된 단어들의 개념과 교리 간의 관계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쌓이면 그때부터 교리는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여 성경 전체를 더 깊게 이해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을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하게 한다. 많은 수학 포기자들이 수학의 추상성을 인하여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논리 전개와 질서와 단아함을 모르고 또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듯, 많은 신자들은 교리가 갖는 다소 추상적 표현을 인하여 안타깝게도 그 안에 담긴 성경 해석의 풍성함과 삶에 대한 구체적 적용을 모르고 있다.

성경이 전체에 걸쳐서 말하는 먼 원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종교개혁의 의미와 개혁신학의 가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의 내용과 궁금한 내용을 치열하게 숙고하기보다 가까운 원인과 결과로 대강 정리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데 이를 거부하고, 힘들더라도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이해함으로써 먼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성경 표현과 내용에 내적 적합성을 갖추게 한 데에 있다. 이렇게 먼 원인이 전제된 각 교리들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새겨진 만물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교리 설교와 강의의 가치와 묘미이다. 추상적인 교리를 구체적인 삶을 통해 이해하고 누리는 것이다. 교리 설교와 강의는 단순히 교리의 내용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는 근력을 키우게 하는 것이다.

교리를 잘 설교하려면 교리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에 근거하여, 그 교리를 추상적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교리를 우리의 삶과 역사와 자연 등을 통하여 구체성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교리 설교는 차가운 이성으로 딱딱하게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삶을 쉽고 재미있고 따스하고 깊게 이해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면, 수학은 원을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를 이해하려면 “점, 거리, 집합”에 대한 사전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한참 공부하는 중고생들이나 수학 전공자는 이 정의를 이해할지 모르지만, 일반인은 상당수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먼저 컴퍼스의 두 다리로 원을 그리는 과정을 실제로 보여주면, 원의 정의를 많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교리도 수학의 정의와 정리처럼 꼭 필요한 단어들로만 서술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추상과 논리로 지속하면, 이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려워하기 마련이다. 이때 추상적인 교리를 성경의 분명한 구절과 구체적인 삶으로 설명한다면 성도들은 교리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딱딱한 내용으로 차갑게 논리를 전개하지 않고,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다 세시는 머리카락을 들어 설명하셨다. 마태복음 5-7장만 살펴봐도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 등불,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라, 티와 들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 등과 같이 우리의 생활에서 경험하는 바들을 들어 쉽고, 각인되게 말씀하셨다.<sup>4)</sup>

교리를 깊이 이해하고 통찰 있게 전달하려는 자는 성경 자체와 삶 자체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교리를 듣는 자들로 구체성을 통하여 더 깊은 추상성으로 나가도록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 과정을 통하여 신자들은 전체 성경의 내용으로 다양한 삶의 현상들을 사고할 수 있다. 벨직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경을 비롯한 대부분의 신앙고백들은 만들어진 당시의 긴급한 사회현상들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이것은 절대로 그 현상들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고백을 이해하는 관점과 사유력으로 그 현상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신앙고백들이 만들어진 몇 백년 전보다 더 복잡해졌고 쟁점들 또한 더 많다. 하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전혀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한 쟁점들이 출현하는 것은 아니다. 신앙고백들을 대하는 진지한 자세와 전체를 이해하는 해석력을 갖추면 다양한 사회현상을 성경에 근거하여 더 옳게 해석할 수 있다. 계시의존사색력을 기르게 된다. 교리 설교는 흘러간 노래를 다시 트는 것도 아니고, 낡은 잣대로 복잡한 현대를 재단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현대의 복잡한 여러 쟁점들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다.

---

4) Warren W. Wiersbe, *Preaching & Teaching with Imaginatio*, 이장우 역, 『상상이 담긴 설교: 마음의 화랑에 말씀을 그려라!』 (서울: 요단출판사, 2005).

#### ④ 어떻게 추상성을 구체성으로 표현할 것인가?

교리 설교는 추상적인 교리를 얼마나 구체성 있게 전달하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20년간 교리 설교를 하며 체득한 바를 나열하고자 한다. 개인의 현장 경험이므로 현장감과 실제성이 있어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본인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보편성이 약할 수 있다.

#### 가. 설교 본문 채택하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이 신앙고백은 각 교리마다 근거 성경구절들을 두고 있다. 본인은 근거 성경구절들을 모두 살펴보면, 그 성경구절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해당 교리를 설교할 때 설교 본문으로 그 성경구절을 사용할 수 있었다. 본인은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해당 교리에 대하여 설교할 수 있는 성경구절들을 얻을 수 있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5장은 섭리를 다루는데 제2항에서 “모든 일들은,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 관련하여 볼 때, 변함없이 그리고 틀림없이 일어난다. 그럼에도, 바로 그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이,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필연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또는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명하신다.” 라고 말한다. 그 근거 성경구절들 중 하나가 왕상 22:28이다. 개역 성경은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쏘지라”로 번역하였다. 본인은 왕상 22:29-38절을 설교 본문으로 하여 아래처럼 설교하였다.

아합 왕은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지만, 나봇은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라는(왕상 21:3) 한 마디로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합과 이세벨 부부는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언케 하여,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핏은 곳에서 아합의 피도 핏을 것이라고(왕상 21:19-23)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합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하여 아람의 길르앗 라못을 빼앗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합은 전쟁을 주도한 자신을 아람 왕이 먼저 죽이려고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복 대신에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실제로 아람 병거의 지휘관들은 왕복을 한 여호사밧을 아합으로 오인하여 쫓았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꾀대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며 흐뭇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혔고, 맹렬한 전쟁 때문에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한 아합은 저녁에 이르러 죽었습니다. 상처의 피는 병거 바닥에 고였고, 그 피는 사마리아 못에서

씻겼는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고(왕상 22:38) 말합니다.

나봇이 누명을 쓰고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과 유다와 아람의 백성은 각자 자신의 생각과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각자의 판단과 행동을 모두 사용하시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개들이 아합의 피를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핥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연히 날아간 화살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고, 하나님에게는 필연입니다.

본인은 개역 성경에서 “우연히”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다. 총 6번 나오는데 그 하나는 룻 2:3절의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이다. 본인은 룻 2:1-4절을 본문으로 하여 섭리에 대한 한 편의 교리 설교를 또 만들었다. 이때 룻이 시어머니를 잘 모셔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 아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권선징악의 수준이 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부분을 언급한다.

룻기 앞에 있는 사사기는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삿 21:25) 구절로 끝납니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판단과 실행의 근거로 삼지 않고, 자신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시어 룻기 뒤에 있는 사무엘상에서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이들을 잘 이끌어 하늘에 계신 참된 왕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룻기는 단순히 착하게 산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내용만 말하지 않고,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에 있는 책으로 왕이 없는 이스라엘에 참된 왕이 어떻게 준비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의 계보는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시작되는 마태복음 족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로 시작하는 창세기 1장이 천지와 만물의 창조를 보여준다면, 마태복음 1장은 창조된 세상이 죄로 일그러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구속의 재창조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를 말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재창조를 말합니다.

이 놀라운 재창조의 중요한 일이 룻의 우연한 발걸음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룻의 우연한 발걸음을 통하여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에게 여러 기쁨을 주시고, 동시에 룻과 보아스의 결합을 통하여 다윗의 할아버지 오벧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룯의 우연한 발걸음에는 몇 가지 목적과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가까운 미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먼 미래도 담겨있고, 사사 시대에 왕이 없는 상황이란 과거도 담겨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건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친 여러 목적과 의미가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십니다.

본인은 성경을 일독하면서 왕하 4:8절부터 나오는 수넬 여인에서 우연과 필연의 섭리를 읽을 수 있었다. 왕하 8:5,6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 주라 하였더라”를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세심한 배려를(왕하 4:13) 한 수넬 여인을 얼마나 크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녀와 얼마나 크게 협력하시는가를 드러내곤 한다. 섭리라는 교리를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일독할 때 곳곳에서 섭리를 드러내는 설교 본문을 찾아낼 수 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왕상 11:28)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섭리를 설교할 수 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 징계하시는 과정이 악한 자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궁극적으로 징벌이 됨을 말해준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욥 5:9-11)라는 말씀에서 창조와 섭리를 설교할 수 있다. 하나님은 비가 땅에 내리고 그 물이 밭에 보내지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과 기이한 일에 속한다. 광야에서 만나를 처음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과 기이한 일로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강도는 약해졌고, 특히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은 만나를 일상과 자연현상으로 여겼다. 현재 사람들도 비와 눈과 이슬과 바람을 일상과 자연현상으로 여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여기지 않는다.

한반도에 비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다 낮아진 자가 우연을 통하여 높아지는 것이 같은 일이다. 창조는 무에서 만물을 만드시는 것이고, 섭리는 그 만물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창조 때에는 존재하지 않던 사람과 협력하시는 것이다. 창조와 섭리 교리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보다 쉬운 용어로, 일상과 자연을 비유로 하여, 통찰 있게 설교할 수 있다. 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더 넓고 깊게 이해한다는 것이다.



교리를 깊이 이해할수록 성경은 풍성한 설교거리로 다가온다.

섭리 교리를 잘 이해하는 설교자는 적절한 성경본문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보존, 통치, 협력”이란 단어들로 섭리에 대하여 각인시킬 수 있다. 성도들로 “보존, 통치, 협력”이란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읽어내게 할 수 있다. 본인이 여러 교회들에서 설교한 경험으로 볼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설교할 때에 무척 좋아한다. 인생을 오랜 산 성도일수록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며 당하고 쌓인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에 많은 은혜를 받곤 한다. 섭리에 관하여 교리적으로 탄탄한 설교를 할 때에 성도들은 보다 깊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롬 12:19)라는 말씀을 받아들인다. 성도들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야 함을 깨닫고(엡 4:26),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먹고 잘 잘 수 있어야 함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본인은 신앙고백의 근거 성경구절들과 조직신학책을 통하여 설교 본문을 많이 획득할 수 있었다. 조직신학은 교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까지 하므로, 목사들이 이 설명을 성도들의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 전달하는 노력을 하면 좋은 설교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노력이 반복되면 성경의 한 권을 택하여 강해설교를 할 때도 성경 전체의 문맥과 전후 문맥에 따른 교리를 찾아낼 수 있고, 풍성하게 설교할 수 있다.

## 나. 구체성에 도움 되는 자료 활용

### a. 신문과 독서 등을 통하여

본인은 섭리에 관하여 설교할 때에 창발성이란 단어를 설명하며 설교를 시작할 때가 있다. 그리고 왕상 22:34절과 룿 2:3절의 우연히와 연관시키며 하나님은 창발적이심을 드러낸다.

개미는 일개미, 수개미, 병정개미, 여왕개미 등이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여 음식 저장 방, 알 보관 방, 부화한 애벌레의 탁아소 방, 버섯 재배 방 등을 만들어냅니다. 온도를 조절하는 정교한 냉난방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런 정교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개별 개미의 지능은 높지 않는데, 군집 개미는 이러한 복잡한 구조와 일을 해냅니다.

이처럼 각 구성 요소로 볼 때는 생각지 못했던 기능이나 현상이 전체를 통해서 출현하는 현상을 창발성(emergence)이라고 합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것이 창발성입니다. 과학자들은 창발성을 이용하여 생명의 출현과 진화를 설명하기도 하고, 인간의 역사 발전 단계도 설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약한 개별 개미들이 군집을 이루어 이렇게 다양한 집들과 분업의 생산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옴을 확신합니다. 개미만이 아니라 사람의 사회에서도 그 전체가 어떤 기능과 방향성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동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교리 설교를 할 때에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시들도 이용한다. 섭리를 설교할 때에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인용하며 아래처럼 설교한다.

소쩍새가 우는 것과 국화꽃이 피는 것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쩍새는 자기가 좋아서 울 뿐이고, 먹구름 속에서 우는 천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들이 결국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국화 하나의 꽃피며 소쩍새와 천둥의 전 우주적인 참여가 있듯, 여인이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안정과 성숙에도 전 우주적인 참여는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며 겪는 숭한 일들이 사람의 성숙과 깨달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관찰을 비그리스도인인 서정주 시인이 멋진 시로 표현해내었습니다.

무엇이 근본 원인이 되어 다른 제반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관하여 철학과 여러 종교는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불교는 모든 존재는 결과임과 동시에 원인이라고 봅니다. 상의상관성(相依相關性)을 강조하지, 남을 떠나 홀로 존재하는 절대적 자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매우 큰 약점은 도대체 어떤 존재자와 시스템이 존재하기에 이런 상의상관성이 발생하느냐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인연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실은 불교는 자신들도 모르는 가운데 인과응보가 작동하게 하는 신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물의 처음과 끝에 대하여, 제1 원인과 제2 원인에 대하여 아래처럼 말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 6:28-32)

들의 백합꽃은 수고도 아니 하고 길쌈도 아니 하는데 잘 자라납니다. 하나의 꽃이 피어나는 데 전 우주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성경은 이것들의 근원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중의 새와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하겠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의 근원이십니다. 사람과 환경 모두를 통제 하십니다. 그 과정은 사람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시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우회하며 일하기 때문에 사람이 원인들과 과정들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합니다. 오직 사람에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고, 사람의 머리털을 다 세시고, 사람을 자녀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비신자인 서정주도 시간을 통한 연단과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연단과 성숙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활짝 피우십니다. 노오란 꽃잎이 피도록 머언 먼 뒤편길을 걷게 하시며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최종의 원인자이시고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집행하시는데, 어찌 눈앞의 천둥에 우리가 기가 꺾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불어오는 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본인은 창발성을 2001년 4월 5일자 동아일보에서 읽고 그 개념을 배웠다. 과학문화연구소장인 이인식 씨가 쓴 글이었다. 본인은 이 글에서 창발성이란 개념만 배운 것이 아니라, 한완상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이에 벌어진 싸움을 글 서두에 두어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글쓰기법도 배웠다. 본인은 이 기사를 스크랩 해두었다. 본인은 이런 식으로 신문이나 책들의 스크랩을 30대 초반부터 꾸준히 해왔다. 이규태 씨는 조선일보에 1983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이규태 코너>를 연재하였다. 23년 동안 6,702회를 기고하였는데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고하였다. 그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서 이 코너를 쉬지 않고 연재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컴퓨터가 보편화되지 않던 시절에 그는 일일이 자료를 모으고 분류하였다. 본인은 이규태 씨를 통하여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 자료의 축적과 분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고, 부족하나마 자료들을 30대 초반부터 꾸준히 모아왔고, 이것이 글을 쓰고 교리 설교를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본인은 대학을 다닐 때 문학반에서 동아리활동을 하였다. 중학생 때부터 문학을 좋아하였고, 다양한 문학책들을 조금이나마 읽어왔다. 그 흔적의 일환으로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를 남들보다 조금 깊게 읽을 수 있었고, 그의 시에 대한 비평들도 접하였다. 이것도 일종의 자료 축적에 해당한다. 본인은 중고생들에게 설교할 때에 한국의 애송시들을 교리와 연결하여 설교하곤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교리를

배울 뿐만 아니라 교리로 시를 잘 해석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성경을 깊고 넓게 알면 일반 학문도 잘 하게 됨을 깨닫게 된다.

코넬리우스 플랜팅가는 『설교자의 서재-창조적 설교를 위한 세속적 책 읽기』에서 “위대한 작가들은 사람의 마음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으며, 일단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법도 알고 있다.”라고<sup>5)</sup> 말한다. 문학책을 읽는 설교자는 성도들의 마음에 이르는 길을 배울 수 있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설교자가 단편 소설의 구도를 통하여 설교 구도를 잘 잡을 수 있다며 단편 소설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본인은 단편 소설과 명작 만화를 통하여 설교 구도와 글쓰기에 큰 도움을 받았다. 그는 설교자는 성경책만 아니라 창조적 설교를 위해서 세속적 책을 다양하게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인은 추상성과 구체성이란 개념을 2년 전에 읽은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에서<sup>6)</sup> 배웠다. 이 책은 첫 페이지에서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추상성”이 강한 수학적 사고의 특성과 “구체성”을 선호하는 학생의 사고의 특성 사이의 괴리입니다. 이런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수학의 추상성을 희석시키고 수학 개념과 원리의 설명에 구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한다. 본인은 이 부분을 읽으며 교리 설교에 대하여 큰 통찰을 얻었다. 지금 이 소논문을 쓰는 데도 이미 읽은 책들 중에서 발췌한 것들을 많은 부분 이용하고 있다. 글쓰기나 교리 설교나 모두 작성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이 독서하였고 사색하였고 채집하였느냐에 달려 있다. 플랜팅가는 “유진 피터슨처럼 독서 시간을 설교 준비 시간으로 생각하고 시간표를 짜는 것은 어떻겠는가?”라고<sup>7)</sup> 제안하는데 본인은 이 말에 크게 동의한다.

## b. 일상생활의 경험

1997년 상반기로 기억되는 어느 금요일 오후에 tv로 동물의 세계를 보고 있었다. 집에서 기르던 진돗개는 현관에 누워 있었다. tv는 사자가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장면이었다. 용감한 진돗개가 사자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여, “진도야! 사자를 보라”라고 외치며 손으로 tv를 가리켰다. 진돗개는 의외로 tv를 가리키는 본인의 손을 쳐다봤다. 본인은 tv 화면으로 뛰어가 화면을 손으로 치며 사자를 보라고 외쳤다. 진돗개는 주인이 급히 뛰어가 손으로 무언가를 치니 한번 쳐다보기

5) 코넬리우스 플랜팅가 Jr., 오현미 역 『설교자의 서재-창조적 설교를 위한 세속적 책 읽기』 (서울: 복있는 사람, 2014): 28.

6) 안수진,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21권』 (서울:자음과 모음, 2008).

7) 코넬리우스 플랜팅가 Jr., 211.

는 했지만, 바로 다시 고개를 돌려 자던 잠을 계속 잤다. 나중에 책을 통해 확인했는데 진돗개와 같은 동물은 방향성이 없고, tv를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과 DNA가 99%가 같다는 침팬지도 가리키는 방향 대신에 가리키는 손을 쳐다본다. 사람들에게 너무 쉬운 방향성과 tv를 보는 일이 동물에게는 이적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본인은 이 경험을 통하여 조직신학 서론의 “인식”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신자들의 내적인식원리는 “믿음”인 것이다. 비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며 시비를 건다. 그들의 내적인식원리는 이성과 감성인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86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로 (히 10:39),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그가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대로,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요 1:12; 사 26:3-4; 빌 3:9; 갈 2:16)”라고 대답한다. 근거 성구들 중 3가지를 살피면 아래와 같다.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빌 3: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갈 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요 1:12절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빌 3:9절의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고 갈 2:16절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에서 사용된 믿음은 절대로 사람들의 믿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신자들이 갖는 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인데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뜻이다. 즉 제86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이지, 절대로 사람들의 지정의에 의한 선택과 결단이 아니다. 루이스 벨코프는 믿음을 “믿음은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명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명확한 지식이다.”라고<sup>8)</sup> 정의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주실 때 믿음이란 수단까

---

8) “It[faith] is frequently used to denote the positive knowledge that does not rest on external evidence nor on logical demonstration, but on an immediate and direct insight.”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6), 181. 송인규 교수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수업 시간에 이 문장을 “이 말은 외적 증거나

지 신자들에게 주시어 택한 자들의 구원이 틀림없이 적용되게 하시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30문은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느냐는 질문에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엡 1:13-14; 요 6:37,39; 엡 2:8), 그리고 이것에 의하여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써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엡 3:17; 고전 1:9).”라고 대답한다. 제30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그 근거 성구로 엡 2: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를 들고 있다. 본인은 제30문을 통하여 엡 2:8절은 신자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이 은혜의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신자에게 주어짐을 말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문맥을 통해서 살펴도 엡 2:1-9절은 어디에서도 믿음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사람들을 사랑하시어 살리셨다고 말한다. 이 큰 사랑의 구원이 믿음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신학적 지식과 통찰을 진돗개에게 tv를 보라는 경험을 통하여 얻은 것이다. 믿음을 내적인식원리로 보게 된 이 경험을 통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히 11:1,2)라는 말씀을 절대로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자기 확신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 경험은 조직신학 서론의 인식뿐만이 아니라, 구원론이 왜 성령론으로 불리는지를 알게 하였고, 인간의 전적부패와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이해하게 하였다. 본인은 외부의 교회들에서 사경회를 인도할 때 많은 경우 이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인식을 다루고, 구원론의 이신칭의로 연결시키곤 한다. 진돗개에 대한 경험으로 내적인식원리와 이신칭의를 말할 때 집중하지 않거나 재미없어 하는 성도들을 아직까지 보지 못하였다. 본인은 이런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교리를 설명할 수 재료들을 많이 축적해오고 있다. 교리에 대한 관심과 공부가 만물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게 하고, 만물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찾아 발견할수록 성경과 교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을 경험한다.

팀 켈러는 『팀 켈러의 설교』에서<sup>9)</sup> “기억하기 쉬운 설교를 만드는 한 가지 요소는, 통찰이다. 기억하기 쉬운 연설이 되려면, 청중이 이미 아는 것을 그들이 아는 용어로 들려주기보다, 신선한 통찰이 묻어나는 방식으로 개념을 전달해야 한다. 그 개념에 대해 청중이 어느 정도는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새로움과

---

논리적 증명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명확한 지식을 나타내는 데 자주 사용된다.”라고 잘 번역하였다.

9) 팀 켈러, 채경락 역, 『팀 켈러의 설교』 (서울: 두란노, 2016): 239.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독서량이라고 말한다. 그는 “통찰 가득한 설교는 깊은 연구, 독서와 탐구의 깊이에서 나온다.”라고 단정한다.

통찰은 연관되지 않을 것 같은 두 대상을 공통점을 찾아 연결할 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교리 설교는 교리만을 말한다고 되지 않는다. 팀 켈러는 “밀을 추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하지 않으면, 양분을 공급할 수도 기쁨을 줄 수도 없다.”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두 가지가 건강한 설교에서 중요하다고 말한다. 교리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들보다도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교리를 전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풍성한 독서량과 다양한 자료의 축적으로 교리를 쉽고 재미있고 통찰 있게 전해야 한다.

팀 켈러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진노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에서 추상적인 교리 명제를 생생한 경험으로 표현하였다고 극찬한다. “우리의 모든 의는 ..... 우리를 들어 올려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내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추상적인 교리 명제이고, “가느다란 거미줄로 떨어지는 바위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보다(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sup>10)</sup> 감각 경험이라는 것이다. 에드워즈는 명제와 경험을 함께 사용하여 단지 합리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더 깊게 기억되는 감각 인상도 심어주었다는 것이다. 팀 켈러는 설교에서 논리적인 차원과 경험적인 차원이 중요하고, 적절한 경험적인 차원은 교리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말하는데 본인은 크게 동의한다.

팀 켈러는 “말하자면 칼뱅은 최고의 내용을 가졌고, 비레는 최고의 웅변술을, 파렐은 최고의 열정을 가졌다. ... 베즈는 그의 위대한 멘토인 장 칼뱅을 완전한 설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칼뱅은 탁월한 내용을 확보했지만,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설득하는 것,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다른 이들만큼 기술적이지 못했다. 비레와 파렐의 설교가 더 흡입력 있고 감동적이었다.”라고<sup>11)</sup> 말한다. 교리에 관심이 있는 설교자일수록 칼뱅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의 『기독교 강요』는 교리 자체이지 않는가? 하지만 교리 설교자로서 칼뱅에 대해서는 무조건 좋게 여겨서는 안 된다. 칼뱅에 대한 팀 켈러의 지적이 틀린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5-7장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경험적인 차원을 많이 사용하셨다. 워렌 위어스비(Warren W. Wiersbe)는 『상상이 담긴 설교: 마음의 화랑에 말씀을 그려라!』에서 그림언어를 통해 교리를 전달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하여 잘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신학적인 딱딱한 용어들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메시지로 바꾸는 것의 필요성과 방법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

10) 팀 켈러, 229.

11) 팀 켈러, 25.

### 3. 교리 설교와 목회

#### ① 전도

교리 설교는 목회라는 더 큰 틀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교리 설교를 오래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성도들이 좋아하고,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질까? 주변에서 잘 하지 않는 교리 설교를 하는 목사라는 칭찬을 받고, 성도들이 몰려올까? 실제로는 이러한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교리 설교를 들을 터인데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 특히 개척교회일 경우에 일반적인 개척교회들이 겪는 공통된 현상을 겪는다. 교리 설교를 통해 교회가 성숙해지면 방문자들의 정착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방문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으면 이런 가능성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교리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그 누구보다 전도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택한 자들은 전도에 응답한다는 교리를 실천으로 나타내야 한다.

본인이 처음 서초동에 교회를 개척하였을 때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의 5층에 있었다. 몇 년간 20명 전후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다. 적은 수의 성도들끼리만 몇 달간 예배를 드리면 처지는 느낌을 받는다. 교리 설교가 그 처짐과 늘어짐을 깨지 못했다. 물론 본인의 교리 설교에 부족함이 있겠지만, 교리 설교라고 해서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부족한 본인의 교리 설교에 집중하며 은혜를 받는 때가 있다. 바로 새로운 사람이 교회를 방문할 때이다. 방문자가 세움교회에 정착하기를 바라며 대부분의 성도들이 본인의 설교를 엄청난 양 은혜를 받는 척하며 듣는다. 교회 개척을 하며 새로운 신자가 느는 것이 기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꼈다. 교리 설교를 하는 목사는 솔선수범하여 전도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

본인이 성도수가 늘지 않음에도 교리 설교를 목회 내내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였기 때문이다.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갖는 권위나 프리미엄(?) 같은 것이 있다. 교회를 개척한 목사와 성도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고, 청빙을 받은 목사와 성도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목사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 본인도 교회를 개척하였기에 성도들이 교리 설교에 대하여 불만을 토하지 않았다. 세움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교리 설교에 이미 동의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래서 일관되게 교리 설교를 할 수 있었고, 몇 년의 수련과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보다 성숙한 교리 설교를 배우게 되었다.

세움교회는 본인이 쓴 책들과 본인의 페이스북 활동이 알려지며 새로운 성도들이 오고 있다. 대부분 수평이동이다. 2014년부터 느리지만 조금씩 성장해오고 있다. 성도수가 감소하는 것이 보편인 이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성도수가



증가하는 것처럼 목회자에게 기쁘고 격려되는 일도 많지 않다. 이것이 자신감을 주어 더욱 좋은 교리 설교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도르트 총회 400주년을 기념하여 도르트 신경을 7월부터 설교하고 있다.

본인이 교리 설교를 하기 때문에 교리 설교자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성도 수가 적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 나름들 노력하시지만 교회의 존재를 알릴 특별한 방법이 없고, 방문하는 사람들을 머물게 할 요인이 적기 때문이다. 교리 설교자는 교리 설교를 하면 그 가치를 알고 성도들이 꾸준히 올 것이라는 낭만적 착각을 버려야 한다. 목회를 한지 처음 오 년, 십 년은 성도가 적어도 목사 부부가 서로를 격려하며 기쁘게 목회한다. 하지만 매에 장사 없듯, 변화와 성장이 없는 목회를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면 지치지 않는 목사 부부가 별로 없다. 교리 설교를 꾸준히 잘 하는 비결은 외적 성장, 개척과 청빙의 여부, 전도 등의 여러 요인에 달려있다.

세움교회를 다니다 지방으로 이사한 성도들이 세움교회를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교리 설교가 아니라, 점심을 먹으며 나누는 시끄러운 교제이다. 본인은 교회는 교리를 배우는 학교가 아니라,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고 누리 는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주일 식탁에 신경을 썼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삶을 풍성하게 나누도록 분위기를 이끌었다. 세움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이다. 성도들이 예배 후 이 시간을 얼마나 즐기는지 모른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1:30분에 드리는 오후 예배는 아예 한 달에 두 번은 조별모임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본인은 교리로 삶을 읽는다는 제목의 책을 4권이나 썼고,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전도로 이어지고 있다.

본인은 교리 설교를 하기 위하여 비교리적 측면에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 성도 들을 교리에 낯선 비판자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풍성한 넉넉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기다리심을 무척 강조한다. 교리를 많이 아는 성도일수록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커야 한다. 교리 설교의 성패를 아는 기준은 무척 간단하다. 교리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다. 마음이 넉넉하고, 오래 참을 줄 알고, 비판보다 수용으로 성도들을 대하며 진심으로 교회 봉사를 한다면 그 교리 설교는 잘 된 것이다. 교리 설교는 서너 번 잘 하였다고 잘 한 것이 아니라, 이삼십 년간 성도들의 실천적 삶을 통하여 드러난다.

## ② 교회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 그리고 삶

1618년 11월 13일에 열린 도르트 회의는 5개월에 걸쳐 4월 23일에 도르트 신경의 작성을 마쳤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회 질서(church order)와 예전

(liturgy)을 다루었다. 1643-47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총회도 먼저 예배모범(1645년)과 정치규범(1645년)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신앙고백서(1646년 12월), 성경구절 주석 첨부(1647년 4월), 소요리문답(1647년 11월), 대요리문답(1648년 4월)을 만들었다. 1563년에 작성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교회 질서와 함께 출간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신앙고백이나 신경을 만든 종교회의들은 예배모범, 정치규범, 권징조례 등을 교회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여겨서 이것들을 사람의 경험과 소견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에 따라 정하였다는 것이다.

교리 설교를 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교회정치와 예배순서와 권징에 관심이 있는 편이다. 교리 설교자는 교회정치와 예배순서와 권징을 헌법에 따라 할 때 교리 설교를 온전한 의미로 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다. 교리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처음에는 교회정치와 예배순서와 권징에 관심이 없을지라도 교리 설교를 들을수록 여기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해당 문제가 발생했을 때 헌법에 따라 생각하게 된다. 이때 교리 설교자가 헌법에 따라 이것들을 해왔다면 성도들의 목사에 대한 신뢰는 커진다. 반대로 헌법에 따라 해오지 않았다면 교리 설교 자체에 대해서도 성도들로부터 신임을 잃게 된다.

교리 설교자는 설교 내용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다른 유형의 설교자보다 크다. 성도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교리를 많이 들을수록 비판력도 증가하기 때문에, 설교자의 실수에 대해서 넓은 사랑과 아량으로 수용하기보다 비판하기 쉽다. 평생을 교리 설교를 한 조나단 에드워즈가 21년간 목회한 교회에서 그리 크지 않은 논쟁 사항으로 쫓겨났다.

교리 설교를 하는 목사나 듣는 성도나 모두 교리의 내용만큼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는 것은 아니다. 교리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 내용에 따라 언제든지 성도들에게 비판받을 수 있다. 성도들은 교리의 내용처럼 더 높은 수준을 설교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본인은 저술한 몇 권이 책이 알려지며 세움교회를 방문하는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들 중 높은 비율은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이들이다. 본인은 이들이 방문하는 주일이 되면 개혁주의의 높은 수준에 따라 비판받지 않기 위해 무척 신경을 쓰게 된다. 그에 비해 성결교나 순복음 교단의 출신자들이 교회를 방문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다

교리 설교자는 설교 내용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성도들은 설교에 아예 마음을 달아 버린다. 본인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무척 쉽다. 가장 잘(?) 하는 설교 몇 편으로 사경회도 거뜰하게 이끌 수 있다. 교리 설교를 즐기고 누리며 설교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교회에서 십 년, 이십 년 동안 교리 설교를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새롭게 설교해야 한다는 것이고, 목회와 삶에서도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교리 설교는 단순히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삶까지 교리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고, 꾸준히 교리를 연구하고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 4. 나가며

건전한 목사들은 대부분 설교에 교리를 담고 있다. 설교의 주제나 명제나 삼대지가 교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교리 설교는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서, 설교분문을 통하여 교리를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무거운 교리 항목도 마다하지 않고 다루는 것이고, 조직신학의 모든 교리를 가감하지 않고 한번쯤은 다루는 것이다. 이러한 교리 설교는 매우 귀하다. 본인은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은퇴까지 교리 설교를 할 예정이다. 어떻게 하면 성경 전체를 더욱 깊고 넓게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더 고민하고 더 새롭게 시도하려고 한다. 본인이 교리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교리를 통하여 성경 전체를 올바르게,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 이해를 위해서 교리가 있는 것이지, 절대로 그 역이 아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하여 교리가 있는 것이지, 교리는 절대로 그 자체로 존재 목적과 의의가 있지 않다.

본인은 은퇴할 즈음에 추상적인 교리를 구체성 있게 설교하려고 시도한 건전한 모델로 제시되기를 바란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삶과 만물을 통하여 쉽고 선명하게 전달한 목사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교회정치와 예배순서와 권징에서도 건전한 목회 모델로 제시되기를 바란다. 교리 설교는 이러한 실천을 반드시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델이 된다면 교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하고 목회자에게 이보다 더 큰 영예가 없다고 생각한다. 교리 설교에 대한 경험적 고찰을 쓰며 본인의 설교와 목회를 돌아보게 되어 크게 유익하였는데, 이 고찰이 교리 설교를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유익과 영감이 되기를 바란다.

[논평1]

## 정요석 박사의 “교리 설교에 대한 경험적 고찰”에 대한 논평

조광현 (고려신학대학원)

한국교회 내에 교리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화답의 결과로 다양한 형태의 교리 서적이 출간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설교학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교리 설교에 관한 관심과 더불어, 그 방법과 형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요석 박사의 논문은 시의적절하다. 저자는 특히 “교리 설교에 집중한 목회를 20년간 한 목회자”로서, 그 경험에 근거해 교리 설교에 대해 논의한다. 교리 설교에 관한 관심이 지금보다 덜 했던 시기부터 교리 설교를 해 온 저자의 이 “경험적인 고찰”은 교리 설교에 대한 논의를 더 풍성하도록 한다.

### 1. 논문의 구조와 주장

본 논문은 어떻게 교리 설교를 잘 할 수 있는지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논의하고 있다. 그 다섯 가지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교자가 교리 자체를 깊이 이해할 필요성, (2) 교리 설교와 교리 강의를 구분할 필요성, (3) 추상적인 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성, (4) 추상적인 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5) 교리 설교와 목회의 관계. 이 논의의 순서는 논문이 “경험적 고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저자 자신의 경험을 논리적으로 배열한 순서, 혹은 앞으로 교리 설교를 실천할 설교자들이 경험할 논리적 순서를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그도 그럴 것이 (1)과 (2)는 교리 설교를 계획하는 설교자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전제에 해당한다. (3)과 (4)는 교리 설교(설교문)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설교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방법론적인 측면이다. (5)는 저자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리 설교의 결과를 목회라는 큰 틀에서 예상한다.

(1)에서는 교리 설교는 설교자의 교리 이해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리 설교가 실패하는 이유는 교리 자체나, “쉽고 기복적인 설교”를 원하는 청중이나, 설교자의 ‘전달력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설교자가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주장한다. 교리 설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교리 자체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뿐 아니라, 교리의 선후 관계에 대한 이해, 교리의 단어와 문장에 대한 교회사적 이해, 교리와 관련된 성경 본문 또한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에서는 교리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설교자 자신이 교리 설교와 교리 강의의 구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교리 설교와 교리 강의의 차이는 “강력한 한 방”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다. 교리 설교는 “절정”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통해 청중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교리 강의는 “특별히 절정이라고 할 부분 없이” “해당 주제에 관한 필요 지식을 전달”한다. 저자는 교리 설교에 필요한 “절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의 설교에 너무 많은 것을 전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제안한다.

(3)에서는 추상적인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구체성 있게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리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저자는 “성경의 분명한 구절”과 “구체적인 삶”으로 설명하라고 조언한다.

(4)에서는 교리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저자가 제공한 두 가지 제안, 즉 성경의 분명한 구절을 통한 교리의 전달과 구체적인 삶을 통한 교리 전달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한다. 성경의 구절을 통해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교리의 근거 구절을 세밀하게 살필 것을 제안한다. 또한, 신문과 독서, 그리고 일상생활의 경험에 근거한 자료가 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5)에서는 교리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언제나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점을 밝힌다. 덧붙여, 교리 설교를 듣는 청중은 교회정치, 예배순서, 권징에 더욱 관심을 두게 되므로 설교자에게 헌법에 따른 목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발견한다.

## 2. 논문의 공헌과 장점

이 논문은 교리 설교를 현장에서 오랫동안 실천하고 있는 설교자의 경험적 지혜를 반영하고 있다. 비록 저자는 조직신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자이지만, 논문 속에서는 철저하게 설교자의 관점을 유지한다. 앞서 논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언급하였지만, 논문에서 논의하고 있는 각각의 주제는 설교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논리적으로 배열한 결과이다. 비록 저자 자신은 “보편성이 약할 수 있다”라고 겸손을 보이지만, 논문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는 교리 설교를 실천하는 설교자들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될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경험 많은 설교자의 지혜를 담고 있는 이 논문은 설교자들, 특별히 교리 설교를 계획하는 설교자들 혹은 교리 설교를 하고 있으나 부족함을 느끼는 설교자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설교자로서 경험적 지혜가 특히 돋보이는 부분은 교리 설교의 정의와 관련된 논의이다. 저자는 논문에서 교리 설교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자 자신이 상정한 독자, 즉 설교자들이 명심해야 하는 수준에서 교리 설교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교리 강의와 구분되는 측면에서의 교리 설교이다. 저자에 따르면, 앞서 논문의 주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설교는 강의와는 달리 한번에 많은 것을 전달하지 않고 “강력한 한 방”을 전하는 것이다. 설교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교리 강의와 다른 측면에서의 교리 설교에 대한 저자의 정의는 단순하나 설교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정의이다. 사실 설교학에서는 교리 설교뿐 아니라 모든 설교가 “강력한 한 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데 거의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 합의가 가장 무시되기 쉬운 설교가 바로 교리 설교가 아닐까 한다. 그러나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리 설교에서 쉽게 소홀히 취급되는, 그러나 설교에서는 필수적인 조건을 교리 설교의 정의로 포함한다.

아울러, 새신자가 교회에 방문했을 때, 기존 교인들이 새신자가 교회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리 설교에 더 열심히 반응한다는 관찰은 오랜 교리 설교 경험을 통해서 나온 귀한 통찰이다. 설교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설교자와 청중이 협력하여 더 나은 설교를 만든다는 주장이 교리 설교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저자는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교리 설교를 위한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추상적인 교리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비록 이 논문은 교리 설교가 아니지만, 저자가 주장하는 이 방법론을 구현하는 실례로 기능하고 있다. 논문은 구체적인 성경 본문을 예로 들면서, 신문기사나 책의 내용을 예로 들면서, 일상생활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교리 설교 방법론이라는 추상적인 주제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3. 논문에 대한 질의

논문은 다섯 가지 논의 가운데, (1)부터 (4)까지를 “교리 설교에 관한 목회 경험”이라는 더 큰 항목 아래에 배열하고 (5)를 따로 배열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5) 또한 저자의 목회 경험에서 비롯된 논의이다. 그런데도, (1)-(4)와 (5)를 따로 구별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교리 설교의 정의와 관련하여, 저자는 교리 강의와는 달리 “강력한 한 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측면은 교리 설교를 정의할 때 필수불가결하나 무시되기 쉽다. 그러나 이 정의만으로는 저자가 상정하는 교리 설교가 무엇인지 가능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했지만 모든 설교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설교 본문 채택하기”에 따르면, 저자는 교리 설교를 하면서도 신앙고백서나 교리 자체를 설교 본문으로 사용하지 않고 성경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성경 본문에서 교리와 관련된 “강력한 한 방”을 뽑아내어 설교하는 교리 설교와 강해 설교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논문은 교리 설교가 가져다주는 이점 중 하나를 “계시의존사색력”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신앙고백서가 당시의 긴급한 사회현상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가 바로 “더 깊은 추상성”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라 밝힌다. 그렇다면, 교리 설교는 청중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적용을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논문에서 논의하는 교리 설교의 영향이 청중의 삶이 자리보다는 오히려 목회자의 삶의 자리, 즉 “교회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이다. 교리 설교에 청중의 삶의 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하지 않은지, 만약 교리 설교에서도 적용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적용이 필요한지 저자의 고견을 알고 싶다.

교리 설교와 전도와 관계론을 논하는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관계를 논하면서, 저자는 교리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전도에 “출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또 출판한 책이 좋은 평가를 받아 전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경험을 말한다. 하지만 교리 설교 자체가 전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둘 사이에는 연관 관계가 거의 없는가? 저자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듣고 싶다.

[논평2]

## 정요석 목사의 “교리설교에 대한 경험적 고찰”에 대한 논찬

안덕원 (햇볼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실천신학)

정요석 목사(이하 정목사 혹은 저자)의 논문은 일반적인 학술모임에서 발표하는 논문들과는 약간 다른 구조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서론에서 정목사는 기존의 연구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이미 많은 자료들이 교리 설교에 대한 충실하고 효과적인 신학적 안내를 하고 있으며 자신의 논문은 현장목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다고 밝힌다. 또한 자신의 교리에 대한 관심과 동행의 여정과 그동안 학업과 연구를 통해 집필한 결과물들도 나누었다.

두 번째 장에서는 “교리설교에 관한 목회 경험”라는 제하에 자신의 교회개척초기에서부터 이어진 교리 설교의 내용과 철학을 다루었다. 정목사는 ‘교리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의 필요성’과 교리 설교와 교리 강의를 구분할 것을 이야기하며, 교리를 전달할 때 추상성을 구체성으로 표현할 것을 (저자에 따르면 구체성에서 다시 깊은 추상성으로 나간다) 주장한다. 정목사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사용하면서 추상성을 구체성으로 표현하기 위해 설교본문의 적절한 선택과 풍성한 자료의 활용을 제시한다. 일상생활의 경험과 통찰도 유용한 자료가 됨을 역설하였다.

세 번째 장은 교리 설교와 목회에 대한 서술을 담고 있는데 목회현장에서 교리 설교의 필요성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교리가 교회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목양적 측면에서 다루었다. 교리 설교가 초청하는 삶으로의 초대, 즉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교리 설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가능성에 주목하며 성경과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일상의 삶에서 대단히 유용한 도구임을 천명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정요석 목사의 논문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특징과 공헌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편의상 항목별로 나누어 평가하겠다.

1. 목회현장에서의 실제적인 경험을 토대로 했다. 이는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갖는 경직성, 즉 때로 교조화되고 규범화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대단히 유용한 방법론이다. 현장이 배제된 ‘책상’의 한계는 자명하다. 교회와 설교를 신학의 장으로, 구체적인 구현의 배경으로 삼고 실제적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반갑고 감사하다. 오랜 세월 독심 있게 현장에서 자신의 사고를 다지고 차분히 쌓아올린 결과물이기에 그 과정에서 얻어낸 농익은 값진 열매를 나누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2. 실제 설교 사례들의 제시로 저자의 이론이 증거가 결여된 사건이나 사변적 주장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다. 예를 들면 섭리에 대한 설교에서 그의 신학적 견고함과 건강함이 드러난다. 보편적인 교회의 이해라는 토대위에 자신의 인문학적 소양을 더했다.

3. 교리가 우리의 믿는 바를 철학적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라면 당연히 해석과 풀이 과정이 필수적 일 텐데 이 부분에서 소위 압축된 단어들의 한계를 풀어내는 방법들이 보편성과 신선함을 모두 갖추었다. 즉 논리적인 일관성을 잃지 않으면서 다양한 자료의 활용으로 이해를 높였다. 신문과 시, 일상의 경험을 더해 성도들의 일상과의 접촉점을 잘 살려냈다. 특별히 독서법에 대한 정목사의 의견은 신앙과 관계없는 내용을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다(이 부분에 대한 한기채 목사가 이야기했던 '세례받아야 할 책'이 유용하다. 한기채, 『삶을 변혁시키는 책 읽기』(두란노, 2014).

4. 단순하게 교리를 믿으라는 주장이 아니라 소위 들리는 설교를 위한 시도가 발견된다. 정목사가 예로 든 팀 켈러의 통찰에 대한 소개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5. 교리와 설교자의 삶, 즉 설교자의 높은 윤리적 삶에 대한 기대를 연결시킨 부분 또한 작금의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논찬자는 간혹 진리를 선포한다는 사명이 설교자들의 '목자증후군'으로 왜곡, 변질되는 현상을 목격한다. 즉 자신이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 보다 성도들에 대한 교육과 치리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망각하게 되는 것이다. 교리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정목사의 표현대로 설교자가 '설교 내용에 따라 살기위해 노력'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논문을 읽으며 필자와는 다른 교단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필자가 공부한 분야와도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견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앞서 소개한 대로 정목사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통찰에 더해진 현장성과 보편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몇가지 질문을 통해 더 완성한 논의의 장에서 마음을 나누기를 바란다.

1. 저자의 설교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교리적 설교의 경우 자의적 해석, 지나치게 특정교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설교를 할 위험이 존재하지는 않는가? 그럴 경우 교리 설교가 갖는 한계는 없는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설교자들이 안전할 수 있겠는가?

2. 과대단순화의 위험이 있지만 “복음주의”라는 커다란 우산 아래 교리적 복음주의와 체험적 복음주의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목창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필자가 예로 든 성결교회와 순복음의 경우 어떤 교리 설교가 가능하며, 반대로 교리를 강조하는 교단의 경우 어떻게 체험의 영역을 소개할 수 있겠는가?

3. 반드시 신설교학적 접근이 아니더라도 교리설교의 틀(방법론)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저자가 서론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서 저자가 선호하는 혹은 추천하고 싶은 방법론은 무엇인가?

4. 예전적 교회들에 주로 이루어지는 교회력을 기반으로 한 설교 역시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을텐데 교리 설교의 입장에서 어떻게 조우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C.S.루이스가 이야기한대로 전통은 사고의 결과를 점검하는 도구로서 기독교인들에게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교리는 믿음의 선조들의 전통과 고백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다. 이렇듯 중요한 교리에 대한 설교를 다룬 정목사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표하며 말씀 안에 굳게 서가는 한국교회의 강단의 여정에 하나의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 “1인가구시대의 한국교회 사명”<sup>1)</sup>



강덕구 (성결대)<sup>2)</sup>

### 1. 들어가는 글

몇 해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혼밥, 혼술, 혼영, 혼행 등의 신조어가 등장하고 이제는 일상에서 흔히 회자되는 용어가 되었다.<sup>3)</sup> 또한 대중매체인 TV에서도 ‘혼자 사는’ 1인 가구를 콘셉트로 하는 방송프로그램들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sup>4)</sup> 이는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것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변화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실제적으로 통계청의 ‘2017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주된 가구 유형은 1인 가구(28.6%)로 전년에 비해 221천 가구(0.7%p) 증가하였다. 또한 2005년 이전 가장 주된 유형의 가구는 4인 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2인 가구, 2015년 이후로는 1인 가구이다.<sup>5)</sup> 그간의 4인 가구 중심의 한국 사회 전반의 모습이 상당 부분 1인 가구 생활 중심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예고한다.

1인 가구가 주를 이루면서 무엇보다 주택 시장의 모습이 달라졌고 소형 가전의 개발, 편의점 도시락 등의 간편식 매출 증가 등으로 산업 분야에서의 발 빠른 대응이 눈에 띈다. 주된 가구가 1인 가구로 바뀌면서 산업 구조까지도 달라지는 것

- 1) 본 연구의 주제로 다루는 ‘1인 가구’ 사역 연구가 실천신학회 학술대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므로 1인 가구 사역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연구 발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하여 ‘사명’을 먼저 다루었다.
- 2) 본 연구자는 성결대에서 M.Div, Th.M., Ph.D. 과정을 수학하였다. 신학석사 논문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역 방안: 도시 청장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2014년)로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2015년도 전반기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 8월 “생애적 관점에서의 1인 가구 사역 방안: 청년 후기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1인 가구 연구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 3) 혼밥은 혼자 밥 먹는 것, 혼술은 혼자 술을 마시는 것, 혼영은 혼자 영화 보는 것, 혼행은 혼자 여행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1인 가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용어이다.
- 4) 대표적으로 MBC의 ‘나 혼자 산다’를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 3월 22일부터 방영됐는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정규 편성되고 인기를 얻어 2018년 10월 현재까지도 방영 중이다. 그리고 SBS의 ‘미운 우리 새끼’는 나이 많은 남성 1인 가구의 삶을 소재로 한 리얼 관찰 프로그램으로 2016년 8월 26일부터 2018년 10월 현재까지도 방영 중이다. 이러한 1인 가구 콘셉트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높아지면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속속 방영되고 있다.
- 5) 통계청 보도자료, “2017 인구주택총조사” (2018.8.27), 40.

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한국 사회만의 변화가 아닌,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와 사역의 현장에서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은 찾아볼 수 없다. 관심은 일차적으로 인지 및 인식에서 비롯된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과연 '1인 가구'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교회 사역은 학계의 연구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학계에서의 1인 가구 연구와 그에 따른 사역 방안 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2014년, 석사학위 논문으로 1인 가구 사역 방안을 연구하여 여러 사역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1인 가구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제언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1인 가구의 비율은 더 높아졌지만 여전히 신학 전반에서의 학술적 연구가 부재하고<sup>6)</sup> 교회 현장에서의 1인 가구 사역은 그 예를 찾기 어렵다.

이에 본 논고는 '1인가구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실제적인 1인 가구 사역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언하겠다. 먼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주소가 '1인가구시대'임을 살펴보고 시대에 따른 교회의 사명을 논하겠다. 그리고 교회의 1인 가구 사역의 원리를 고찰하겠다.

## 2. 1인가구시대의 도래

1인 가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한국 사회는 그 속도가 빠름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키워드인 '저출산, 고령화'와도 직결되기에 심층적 이해와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 1) 1인 가구 정의 및 현황

'1인 가구'는 통계청의 정의대로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에 더해 본 연구자의 논고에서 '1인 가구'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겠다. '혼자서 살림한다'는 뜻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단독 가구자이지만 생계유지를 경제적으로 자립했다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는 자녀의 부양비로 생활하는 홀몸노인의 경우와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홀로 지내는 청년층도 1인 가구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혼자서' 생활하는 단독 가구이지만 가족이 없다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제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가족 없이 이 세상에 홀홀단신인 1인 가구의

---

6) 기존의 1인 가구 연구로는 1인 가구의 구성이기도 한 '홀몸노인(독거노인)' 사역 방안 등이 있으나 이는 사회복지와 상담 차원에서 다루어졌고 그 초점도 오늘날의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 전반에 관한 연구는 아니다.

수보다 가족이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등으로 홀로 지내는 1인 가구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호자가 필요한 성인 이전의 학령기 연령대의 1인 가구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로 제외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연도 및 가구원 수별 가구 규모를 살펴보면 2005년까지는 4인 가구가 주된 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2인 가구가 주된 가구가 되고 2015년부터는 1인 가구가 주 가구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1인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표1 > 연도 및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2000<sup>T</sup>~2017<sup>R</sup>)<sup>7)</sup>

(단위 : 천 가구, %)

가구원 수	2000년 <sup>T</sup>	2005년 <sup>T</sup>	2010년 <sup>T</sup>	2015년 <sup>R</sup>	2016년 <sup>R</sup>	2017년 <sup>R</sup>
일반 가구	14,312 (100.0)	15,887 (100.0)	17,339 (100.0)	19,111 (100.0)	19,368 (100.0)	19,674 (100.0)
1인	2,224 (15.5)	3,171 (20.0)	4,142 (23.9)	5,203 (27.2)	5,398 (27.9)	5,619 (28.6)
2인	2,731 (19.1)	3,521 (22.2)	4,205 (24.3)	4,994 (26.1)	5,067 (26.2)	5,260 (26.7)
3인	2,987 (20.9)	3,325 (20.9)	3,696 (21.3)	4,101 (21.5)	4,152 (21.4)	4,179 (21.2)
4인	4,447 (31.1)	4,289 (27.0)	3,898 (22.5)	3,589 (18.8)	3,551 (18.3)	3,474 (17.7)
5인 이상	1,922 (13.4)	1,582 (10.0)	1,398 (8.1)	1,224 (6.4)	1,200 (6.2)	1,142 (5.8)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28.6%인데, 지역별 1인 가구 비율로는 강원이 32.2%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24.4%로 가장 낮았다.<sup>8)</sup>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 중 70세 이상이 18.0%, 30대가 17.2%, 20대가 17.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남성은 30대(22.2%), 여성은 70세 이상(27.9%)에서 1인 가구 비율이 높았다.

7) 통계청 보도자료, “2017 인구주택총조사” (2018.8.27), 40. 2017년 11월 1일 0시 현재를 기준으로 함. 2016년<sup>R</sup>과 2017년<sup>R</sup>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의 집계 결과이며 2005년<sup>T</sup> 이전 자료는 전통적 현장 조사 방식의 집계 자료임. 시계열자료가 있는 2010년은 전통적 방식과 등록센서스 방식을 모두 표기하였으며 전통적 방식은 2010년<sup>T</sup>, 등록센서스 방식은 2010년<sup>R</sup>로 표시된 것임.

\* 전통적 방식 : 2010년<sup>T</sup>(Traditional), 등록센서스 방식 : 2010년<sup>R</sup>(Register-based)

8) 통계청 보도자료, “2017 인구주택총조사” (2018.8.27), 47.

< 표2 > 2017년<sup>R</sup>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sup>9)</sup>

(단위 : 천 가구, %)

연령	1인 가구 전체	남성	여성
<b>합계</b>	<b>5,619(100.0)</b>	<b>2,792(100.0)</b>	<b>2,827(100.0)</b>
20세 미만	61(1.1)	29(1.0)	32(1.1)
20~29세	962(17.1)	517(18.5)	444(15.7)
30~39세	968(17.2)	621(22.2)	347(12.3)
40~49세	863(15.4)	545(19.5)	318(11.2)
50~59세	948(16.9)	523(18.7)	425(15.0)
60~69세	805(14.3)	332(11.9)	473(16.7)
70세 이상	1,011(18.0)	224(8.0)	788(27.9)

이러한 통계적 수치만 살펴보아도 우리 사회 현주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교회의 사역이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그간의 한국교회에서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홀몸노인 사역은 일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20-30대 젊은 층에서의 1인 가구 수가 많음에도 교회가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음을 인식해야 한다.

## 2) 1인 가구 유형

1인 가구 이해에 있어 1인 가구 유형이 매우 다양함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자는 기존의 1인 가구의 일반적인 유형 분류인, 자발적-비자발적 1인 가구의 단순 유형 분류 차원을 넘어 ‘1인 가구의 2차원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2가지 항목 즉, ‘지속성-한시성, 자의성-비자의성’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sup>10)</sup>

‘지속성-한시성’은 시간을 개념으로 하며 ‘장기적-단기적’의 의미와는 다르다. ‘지속적 1인 가구’는 1인 가구 생활 종결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로 상황적으로 정해지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의지’가 작용한 시간 개념이다. 그러므로 현재 1인 가구로 지내고 있더라도 향후 다인 가구로의 전환 계획이 있다면 ‘한시적 1인 가구’인 셈이다.

자의성-비자의성의 분류는 자의성 여부로 자신의 원함으로 1인 가구 생활을 선

9) 통계청 보도자료, “2017 인구주택총조사” (2018.8.27), 49.

10) 강덕구, “생애적 관점에서의 1인 가구 사역 방안: 청년후기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25-31을 참고하라.

택한 경우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1인 가구로 지내는 경우를 구분한 항목이다. 이는 기존의 자발적·비자발적 1인 가구 유형이 ‘상황’ 자체에 따른 구분인 것에 비해 ‘의지’와 ‘선택’의 의미를 함의하는, 곧 자의성 여부인 ‘자의적·비자의적’으로 명하였다.

〈 표3 〉 1인 가구의 2차원 네 가지 유형 분류

	자의성	비자의성
지속성	지속적·자의적 1인 가구	지속적·비자의적 1인 가구
한시성	한시적·자의적 1인 가구	한시적·비자의적 1인 가구

첫 번째 유형인, 지속적·자의적 1인 가구의 예는 현재 비혼으로<sup>11)</sup> 홀로 생활하며 앞으로도 비혼으로 지내려는, 1인 가구가 해당된다.

두 번째 유형인, 지속적·비자의적 1인 가구의 예는 자녀와 떨어져 부부끼리 살다가 사별 후 홀로 생활하며 지내는 홀몸노인의 경우이다. 만약 사별 후 자녀가 동거 권유를 했음에도 홀로 지내는 것을 선택했다면 지속적·자의적 1인 가구이다.

세 번째 유형인, 한시적·자의적 1인 가구의 예는 학업 관계로 학교 근처에서 생활하는 경우로, 1인 가구로 지낼 수밖에 없어서 다른 선택이 불가하다면 비자의적 1인 가구이다. 반면에 학교 근처에 친척이나 지인 등의 거주지가 있어 함께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로 지낸다면 자의적 1인 가구이다. 또한 학업으로 인한 1인 가구 중 일부는 ‘한시적’ 1인 가구이지만 졸업 후에도 1인 가구로 지낼 생각이라면 지속적 1인 가구이다. 현재 자의로 1인 가구로 지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1인 가구로 지낼지, 어느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1인 가구로 지낼지에 대한 생각에 따라 지속적-한시적 1인 가구가 나뉜다.

네 번째 유형인, 한시적·비자의적 1인 가구의 예는 일 관계로 해외나 지방 근무자가 근무지 근처 인근에서 혼자 생활하는 경우이므로 다인 가구로 지낼 수 있는 선택이 없는 경우 등이다. 다인 가구로 살 수도 있음에도 1인 가구로 지낼 때는 자의적 1인 가구에 해당한다.

11) ‘비혼’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미혼’이 결혼을 전제로 한, ‘결혼을 아직 하지 못한’의 의미인 것에 반해 비혼은 ‘결혼을 하지 않은’의 의미로 결혼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결혼관의 변화를 나타낸다. 특히 오늘날 비혼의 삶을 ‘결정’하는 이들의 ‘비혼식’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는 결혼하지 않고 비혼으로 살 것을 지인들에게 알리고 나름의 축하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최근 한국의 신풍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비혼 관련 서적으로 Ueno Chizuko, Minashita Kiriu, *Hikon Desuga, Sore Ga Nanika?!*, 조승미 역, 『비혼입니다만, 그게 어땠다구요?!-결혼이 위험 부담인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파주: 동녘, 2017) 등이 출간되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한시적’, ‘자의적-비자의적’의 2차원 네 가지 유형은 1인 가구 당사자의 ‘선택과 의지’를 함의하는 분류이다. 이는 1인 가구의 유형을 일반적인 성별, 연령, 거주지, 상황 등의 표면적으로 확인이 구분되는 항목 외에 1인 가구의 심리·정서적 이해와 더불어 전인적 이해를 위함이다.

### 3)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한국 사회 변화

한국 사회의 1인 가구 증가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는데 단적으로 드러나는 분야가 바로 출판계이다. 시대적 트렌드에 부응하는 책들이 경쟁력이 있는 만큼 사회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도서들을 발행하고 있는데, 근래 1인 가구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콘텐츠로 제작된 책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서툴지만 꽤 괜찮은) 1인 가구 LIFE 밥순갈 하나』,<sup>12)</sup> 『나 혼자 살기 완전 정복』과<sup>13)</sup> 『호모 자취엔스: 때론 외롭지만 혼자에 최적화된 1인 가구의 리얼 진화를 담은 자취 실용서』,<sup>14)</sup> 『1인 가구 살림법: 초보 혼족을 위한 살림의 요령, 삶의 기술』,<sup>15)</sup> 『싱글 식탁: 1인 가구 집밥 레시피』 등의 실제적 생활 실용서도 발행됐다.<sup>16)</sup> 이 외에 『1코노미: 1인 가구가 만드는 비즈니스 트렌드』와 같은 경제 관련 서도 선보였다.<sup>17)</sup> 국내 저자의 도서 외에도 한국보다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일본의(2015년 기준, 일본의 1인 가구 비율은 32.5%이다) 모습을 담은 『초솔로사회: 2035년 인구 절반이 솔로가 된다』도 향후 한국의 모습을 전망케 하는 최근작이다.<sup>18)</sup>

한편 앞서 혼술, 혼밥 등의 신조어뿐만 아니라 홀로 지내는 1인 가구의 수가 더해지면서 이들 전체를 나타내는 의미로 ‘-족’이 붙은 ‘홀로족’이라는 용어도 등장하였다. 1인 가구 소비가 산업 경제 분야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이를 가리키는 ‘1코노미’라는 신조어가 생성됐다.<sup>19)</sup> 이는 ‘1인’과 ‘이코노미economy(경제)’를 조합한 용어이다.

단순히 경제 산업 분야의 변화뿐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12) 서툰, 『서툴지만 꽤 괜찮은) 1인 가구 LIFE 밥순갈 하나』 (서울: 미호, 2016).

13) 허태현, 『나 혼자 살기 완전 정복』 (고양: 책이있는마을, 2017).

14) 노수봉, 『호모 자취엔스: 때론 외롭지만 혼자에 최적화된 1인 가구의 리얼 진화를 담은 자취 실용서』 (서울: 팜파스, 2017).

15) 공아연, 『1인 가구 살림법: 초보 혼족을 위한 살림의 요령, 삶의 기술』 (서울: 로고폴리스, 2017).

16) 백성진, 『싱글 식탁: 1인 가구 집밥 레시피』 (파주: 넥서스북스, 2014).

17) 이준영, 『1코노미: 1인 가구가 만드는 비즈니스 트렌드』 (파주: 21세기북스, 2017).

18) Arakawa Kazuhisa, *Chou Solo Shakai*, 조승미 역, 『초솔로사회: 2035년 인구 절반이 솔로가 된다』 (서울: 마일스톤, 2018).

19) 김난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17』 (서울: 미래의창, 2016)을 참고하라.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홀로’ 밥을 먹거나 혼자 영화를 보는 등의 행위가 불편하고 어색했다면 이제는 현대인의 복잡다단한 삶에서 홀로 지낸다는 것은 자유롭고 편하다는 의식도 많아졌다. 그래서 일상의 지친 삶에서 떠나 ‘홀로’ 있기를 추구하는 경향도 있다.

또한 1인 가구가 늘면서 등장한 나홀로족의 문화가 공동체 문화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다인 가구의 가족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치관의 변화가 심화되고 있다.<sup>20)</sup> 단순히 가구 단위가 2-3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 변모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대부분의 개인이 일상을 ‘나홀로’ 보내는 것을 ‘선호’하는 ‘1인 체제’로의 변화를 초래한다.<sup>21)</sup>

서정렬의 『1인 가구』에서는 ‘1인 시대’를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1인 시대(era of one person)’는 1인 가구보다 포괄적 의미의 개념이다. 1인 시대는 혼자서 살립하는 가구로서의 1인 가구에 대한 사전적 의미 외에 ‘1인 생활 중심의 사회·경제 트렌드를 총 망라한 시대적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1인 시대’는 1인 가구가 사회의 주류를 이루며 만들거나 만들고 있는 사회적 표준으로서의 현상을 지칭한다.”<sup>22)</sup>

바야흐로 한국 사회는 ‘1인가구시대’가 된 것이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향후에도 지속, 확대될 것이기에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현시대에 대한 정확한 안목과 다음시대에 대한 합당한 예견 가운데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3. 시대에 따른 교회의 사명

오늘날 한국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먼저는 한국교회의 현주소, 곧 지금의 모습을 돌아보고 교회다움의 정체성과 시대에 따른 사명을 간략하게 논하겠다.

#### 1) 사명을 잃은 한국교회

구한말 한국에 들어왔던 기독교 선교사와 그들의 사역은 한국 현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헌임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한국 사

20) 김난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17』, 322.

21) 최인수 외, 『2018 대한민국 트렌드』 (서울: 한국경제신문, 2017), 6.

22) 서정렬, 『1인 가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10.

회에 긍정적,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를 통한 문화 선도까지 했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옛 영광이 무색할 만큼 교회 규모를 막론하고 세습과 성 문제 등의 도덕적 타락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는 ‘개독교’라는 말까지 등장해 기독교 성도들의 낮을 뜨겁게 한다. 사회적 비판뿐 아니라 교회와 기독교에 실망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의 수는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의 쇠퇴 논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여 문제가 되는 작금의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단체,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이 사회에서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은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거부감까지 형성한다. 공중 장소에서 큰 소리로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의 대화에서는 영락없이 ‘집사님, 목사님,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등의 경험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한다. 혹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상당수가 무례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성도임을 드러내는 것조차 꺼리는 사례도 있다.

기독교 및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마 5:13-14, 16; 막 9:50; 눅 14:34-3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기독교 내, 성찰의 목소리도 있지만 참교회의 모습을 잃은 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교회는 예수가 세우려 오신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형성한다.<sup>23)</sup>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곧 이 세상의 ‘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관심이 ‘사랑’으로 이어질 때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sup>24)</sup>

## 2) 교회 정체성으로서의 사명

주의 명령이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하며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교회가 이 사회, 특히 교회가 자리한 지역사회에 관심이 없다면 교회의 사명은 논할 수조차 없다. 복음, 곧 사랑을 잃은 교회는 참교회라고 할 수 없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은 ‘하나님 사

23) Scot McKnight, *Kingdom Conspiracy*, 김광남 역,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 내러티브와 교회의 비전과 사명』(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179.

24)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고 영혼이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간 이해를 가진 목회자는 프로그램이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위해 인간이 존재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은규, “21세기 한국교회를 위한 양육하는 공동체,” 『신학과 실천』 28(2011): 685.

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율법의 기본 정신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 막 12:30-31; 눅 10:27). 이러한 사랑의 사명을 바로 할 때 그에 따른 ‘사역’을 논할 수 있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사명을 잃은 채 ‘사역’하는 것은 사역이 아닌, ‘일’로 전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깊은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 혹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sup>2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명목 하에 사람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보다는 교회로, 혹은 기독교로 ‘끌어들이려’ 교회 교인 수를 늘리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씁쓸한 현실이다.

한국교회의 사명은 사랑의 실천을 통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곧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할 때 비로소 감당할 수 있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당위적인 것이다.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

### 3) 교회의 시대적 사명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그에 따라 우리 사회도 변한다. 1인 가구 증가로 새로운 정책과 복지의 요구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1인 가구 연구가 이루어지고 관련한 제도 마련으로 시대에 대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제6159호, 2016년 3월 24일 제정)’를<sup>26)</sup> 통한 1인 가구 지원책의 실행이다. 한편 1인 가구의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으로 자치법 제정과 예방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sup>27)</sup> 또한 학계 및 산업 분야에서도 1인 가구 연구가 매우 활발하다.

그러나 교회는 무관심하다. 교회의 사명은 시대와 직결된다. 앞서 통계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년 1인 가구의 비율이 28.6%이고 이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과 교회 내에서도 1인 가구 비율이 30%에 육박한다는 뜻이다. 이는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1인 가구 사역과 무관하지 않음을 함의한다.<sup>28)</sup>

25) Scot McKnight, *Kingdom Conspiracy*, 212.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OrdinAstSc.do?tabMenuId=tab2&query=1%EC%9D%B8+%EA%B0%80%E A%B5%AC>

27)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제1285호, 2017년 8월 9일 제정), 인천광역시 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제1124호, 2018년 1월 5일 제정) 등.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계속해서 상황과 연관된다. 예수는 그의 시대에, 그의 시대를 위해, 그리고 그의 시대를 향해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시대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시대를 향해 말한다. (성서의) 상황 속에서 성서를 읽는 것과 그것을 우리 시대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하거나’ 혹은 (더 낮게는) ‘살아내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에 대한 이런 식의 기본 접근이 모든 참된 하나님 나라 사명의 핵심을 형성한다.<sup>29)</sup>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 비례해서 거시적 사회, 문명, 시대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관 아래 시대가 변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가져야 한다.<sup>30)</sup> 예수 그리스도가 당대의 문화와 사회에서 이해되는 것들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한편 교회는 기본적으로 지역 교회(local church)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도록 부름 받은 공동체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도록 세상에 보냄 받은 공동체다. 세상 한 가운데로 보냄 받았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지역으로 보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회는 지역 교회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역을 품어야 한다.<sup>31)</sup>

교회는 그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개인들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사람들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지역사회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교회 실존의 근거가 바로 지역사회인 것이다.<sup>32)</sup> 그러므로 교회는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더불어 시대적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고 사회의 변화 흐름을 읽고 구체적 실행으로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

#### 4. 한국교회 1인 가구 사역

1인가구시대의 오늘에 현존하는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의 구체적 실행은 1인 가구 사역이다. 1인 가구 사역의 의미, 곧 중요성을 살펴보고 사역에서의 1인 가구의 관점을 이해하고 구체적 사역에 앞서 그 원리를 고찰하겠다.

##### 1) 생애적 관점에서의 1인 가구<sup>33)</sup>

---

28) 오늘날 1인 가구의 증가 현상을 염두에 두고 목회 전략을 구성하고 교회가 이에 대응한 목회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유수현,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교회의 대응,” 『활천』 767-10(2017): 37.

29) Scot McKnight, *Kingdom Conspiracy*, 109.

30)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 (서울: 생명의 출판사, 2013), 82.

31) 이도영, 『페어 처치』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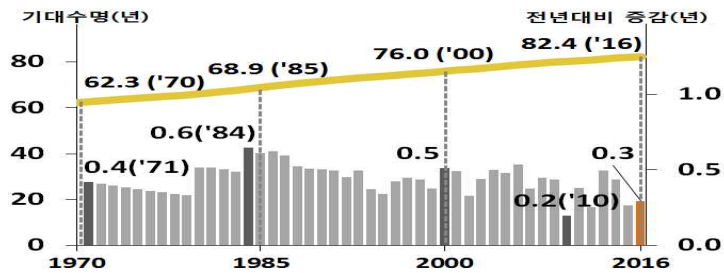
32) 정재영, “지역공동체 세우기를 통한 교회의 시민사회 참여,” 『신학과 실천』 22(2010): 117.

33) 강덕구, “생애적 관점에서의 1인 가구 사역 방안: 청년후기 1인 가구를 중심으로”, 32-39를 참고

최근 한국 사회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하였다.<sup>34)</sup>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7년 총 조사 인구 중 유소년 인구(0-14세)는 6,632천 명(13.3%), 생산연령 인구(15-64세)는 36,196천 명(72.5%),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7,115천 명(14.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노령화지수가<sup>35)</sup> 2017년 현재 '107.3'으로 나타나 유소년 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더 많다.<sup>36)</sup>

통계청의 '2016년 생명표'에 따르면<sup>37)</sup> 2016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sup>38)</sup> 82.4세로, 남자는 79.3년, 여자는 85.4년이다. 기대수명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국제연합이 작성한 '세계 인구 고령화' 보고서에서 '호모 헨드레드(Homo-Hundred)'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sup>39)</sup> 한국에서도 '100세 시대'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 그림1 > 기대수명(남녀 전체) 및 증가 추이, 1970-2016년



이러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노년기의 장기화'를 의미하고 '1인 가구'는 더욱 주목되는 우리 사회 키워드가 된다. 왜냐하면 100세 시대, 더 나아가 120세까지 예측되는 생애 가운데 1인 가구의 삶은 일부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누구에게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노명우는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고독한 사람들의 사회학』에서 “혼자 사는 것은 이미 '1인 가구'에 속한 사람이든 언젠가 '1인 가구'가 될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누구와도 무관할 수 없는 주제”라고 논하였다.<sup>40)</sup>

하라.

34)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35) 노령화지수 = (고령 인구/유소년 인구)×100

36) 통계청 보도자료, “2017 인구주택총조사” (2018.8.27), 17.

37) 통계청 보도자료, “2016년 생명표” (2017.12.5).

38) '기대수명'은 출생아의 '기대여명'을 의미한다.

39) 김환표, 『트렌드 지식 사전 3: 최신 키워드로 보는 시사 상식』 (서울: 인물과사상사, 2015), 444-45.

1인 가구의 삶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 생활양식이 된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1인 가구로 지내거나 미혼 및 비혼 상황, 또는 이혼 등으로 1인 가구가 되기도 한다. 수명의 증가로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부부가 함께 살다 배우자와 사별하여 홀로 1인 가구로 지내는 기간이 적게는 1-2년에서 길게는 30-40년도 될 수 있다. 유교적 가치관이 강했던 시대에는 장남이 부모와 동거하며 부양했지만 이제 그러한 의식은 많이 변화하여 부모와 따로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노년기 사별은 1인 가구의 생활로 정착되곤 한다.

또한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삶의 모습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자녀가 필요에 의해 부모와 떨어져 1인 가구가 되기도 하고 1인 가구로 지내던 미혼자가 결혼으로 다인 가구가 되기도 한다. 반대로 미혼자가 결혼으로 다인 가구가 되려고 했으나 비자의적인 1인 가구의 생활이 지속될 수도 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직장 등의 이유로 홀로 지내기도 하고 법적 부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별거나 졸혼<sup>41)</sup> 등으로 1인 가구로 사는 이들도 있다.

이제 혼자 사는 삶의 양식은 더 이상 결혼을 거부했거나 결혼하지 못한 젊은 세대의 특유한 세대 문화가 아니다. 그것은 생애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전 생애적 현상이다.<sup>42)</sup> 누구에게라도 생애 중에 지속적-한시적이든, 자의적-비자의적이든 1인 가구로 지내는 시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1인 가구는 보편적 생활양식이며 우리 모두가 잠재적 1인 가구임을 주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1인 가구 사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교회가 머무는 지역과 교회 내에 언제나 1인 가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인 가구로 살던 이가 1인 가구로 전환되기도 한다. 특히 비혼 1인 가구로 평생을 살거나 노년기 1인 가구로 사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장기화되므로 단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역의 영역이다.

## 2) 사역에서의 '1인 가구 이해'<sup>43)</sup>

교회의 사명을 따라 구체적인 1인 가구 사역을 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1인 가구'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역이라고 할 때 '-를

40) 노명우,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고독한 사람들의 사회학』 (고양: 사월의책, 2013), 10.

41) 요즘은 졸혼(卒婚)이라고 해서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부부가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싱글같이 사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다. 건강이 악화되면 서로를 돌보아주고 임종 시 곁을 지켜준다는 것이 이혼과는 다르다. 최근 한국에서도 70세가 넘는 밸런트 백일섭 씨가 졸혼을 선언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바 있다. 이혼은 하지 않지만 남편의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미경, "1인 가구 시대 노후와 가족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위한 소고," 『사회사상과 문화』 19-4(2016): 183.

42) 노명우,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고독한 사람들의 사회학』, 45.

43) 강덕구,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역 방안: 도시 청장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4), 35-44를 참고하라.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사역의 일부일 뿐이다. 특별히 1인 가구 사역은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다양한 유형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과 생활 및 정서적 영역까지 전인적 이해를 통해 사역을 계획해야 한다.

사역의 측면에서 1인 가구는 사역의 '대상'이기도 하고 사역의 '주체'이기도 하는 양면성을 띄고 있다. 이는 1인 가구 사역의 큰 의의가 된다. 먼저 사역의 대상으로서 1인 가구의 이해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1인 가구가 전도 가능성이 큰 대상이기도 하고 1인 가구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1인 가구의 요구 중 정서적 외로움에 대해 친교와 만남의 장으로 이끌 수 있고 홀로 생활하는 데서 비롯되는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정서적지지 등의 심리적 지원도 요구된다. 특별히 1인 가구의 고독사가 젊은 층에서도 나타나 한국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서울시의 2013년 고독사 확실 사례는 총 162건이었고 이 중 남성이 84.57%, 여성이 12.96%, 미상이 2.47%로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55-59세가 19.75%, 50-54세가 16%, 45-49세가 14.2%순으로 나타나 노인보다 50대와 40대 후반 비율이 높았다.<sup>44)</sup>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1인 가구 전수조사도 진행되었다.<sup>45)</sup>

그러므로 교회는 지역사회, 좁게는 교회 내 '1인 가구를 위한 사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반면에 1인 가구는 사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대상이다. 오늘날 자의적 1인 가구의 수는 점점 늘고 있다. 1인 가구로서의 불편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움의 강점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시간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다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하기도 하다. 특별히 20-40대 청년기 1인 가구는 훈련을 통해 사역의 주체로, 곧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기에 적합한 대상이 된다. 이에 교회는 먼저 교회 내 1인 가구를 살펴보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으로, 그들을 사역의 주체로 세우는 사역을 해야 한다.

### 3) 1인 가구 사역의 2차원 8원리<sup>46)</sup>

1인 가구에 대한 전인적 이해를 전제로 한 후 본격적인 1인 가구 사역에 앞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사역의 원리이다. 원리가 있을 때 방향이 설정된다. 곧 원

44) 배숙경, “가정 내 학대가 전체 노인 학대의 88%,” 「복지이슈 Today」 56(2017): 10.

45) 연합뉴스, “고독사 막자…송파구, 50-64세 1인 가구 전수조사” (2018.1.9) 등.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9/0200000000AKR20180109024800004.HTML?input=1179m>

46) 강덕구, “생애적 관점에서의 1인 가구 사역 방안: 청년후기 1인 가구를 중심으로”, 64-74를 참고하라.

리는 사역의 나침반이 되는 셈이다. 사역에 있어서 먼저는 사역 계획 차원에서의 원리가 있고 그 계획에 따른 실천 차원의 원리가 있다. 본 연구자는 이를 2차원 8 원리로 명하였다.

< 표 4 > 1인 가구 사역의 2차원 8원리

차원 원리	사역 계획 4원리	사역 실천 4원리
1	합목적성의 원리	전문성의 원리
2	공통성과 개별성의 원리	장기·지속성의 원리
3	전인적 사역의 원리	점진적 확장의 원리
4	참여와 소통의 원리	보완 및 협력의 원리

먼저 사역 계획의 4원리로는 첫째, 합목적성이다. 이는 사역의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사역의 이유와 목적이 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일’로 전락하고 실행에서의 어려움에 봉착할 때 끝까지 해낼 동력을 상실한다.

둘째, 공통성과 개별성이다. 1인 가구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사역적 접근도 단편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1인 가구’이기 때문에 갖는 ‘공통점’이 있고 이를 사역에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시에 생애 주기별 특성, 곧 개별성이 있다. 그러므로 생애 주기 전반에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역과 각 생애 주기 특성을 반영한 개별 사역의, ‘투-트랙(two-track)’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전인적 사역이다. 1인 가구 사역은 바로 1인 가구, 그 당사자인 ‘한 사람’을 대상하는 하는 사역이다. 사역의 대상이 ‘사람’임을 주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1인 가구의 정서 및 심리 등의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뿐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 경제활동 등 생애 전반적 영역들을 포괄하는 전인적 사역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사역의 실천에서는 구체적인 한두 가지 사역을 하더라도 계획의 원리에서는 전인적 사역임을 놓치지 않음을 뜻한다.

넷째, 참여와 소통이다. 사역의 대상자이자 사역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 곧 1인 가구가 사역의 계획에서부터 참여하여 소통함으로써 ‘1인 가구를 위한, 1인 가구에 의한’ 실제적 사역 방안들이 구상될 수 있다.

사역 실천의 4원리로는 첫째, 전문성이다. 전문성이라 함은 ‘전문가’ 주도하에 사역하거나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역은 비신자뿐 아니라 교회 내 성도에게서도 인정받기 어렵고 지속되기는커녕 단회적으로 끝나기 십상이다. 물론 사역의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



둘째, 장기·지속성이다. 사역의 특성에 따라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1인 가구 사역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역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대부분의 사역이 지속적이어야 하지만 특히나 1인 가구는 사역 대상이며 주체인 1인 가구 수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에 따라 사역의 요구도 커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점진적 확장이다. 1인 가구 유형의 다양성이 큰 만큼 사역의 스펙트럼도 방대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도 없고 잘해내기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사역 초기에는 선택과 집중으로 한두 사역으로 시작하고 앞서 제시한 대로 지속적으로 사역이 안정기에 진입한 후에 연계 사역으로 순차적 확장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사역의 우선순위가 정립되어야 한다.

넷째, 보완 및 협력이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1인 가구 지원책과 제도를 마련해 실행 중에 있다. 그러므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중첩적으로 사역하기보다는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다른 기관과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사역해야 한다.

## 5. 나가는 글

2015년부터 1인 가구가 주 가구 유형이 되었지만 교회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무관심해 보인다. 1인 가구가 2017년 기준 28.6%이고 2020년에는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지속적인 현상으로 예견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1인 가구에 대한 전인적 이해를 바탕으로 생애적 관점에서 1인 가구가 보편적인 생활양식일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어느 시기에 1인 가구가 될 수 있는, 잠재적 1인 가구임을 주지하여 1인 가구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교회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맞게 1인 가구 사역을 계획, 실천하되 그 원리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외딴 섬으로가 아닌, 지역 주민들과 연계되고 함께하는 공동체성의 회복 차원에서도 지역사회 1인 가구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그들에 의한 사역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이는 비신자 1인 가구에 복음 전도의 기회도 된다. 지역사회 구성 기관으로서의 교회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만남의 장소, 곧 언제나 열린 개방된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교회와 지역사회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협력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 변화에 따라 대응하고자 법령과 제도를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 또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대 변화를 가장 빠르게 인지하고 그에 따른 사역을 해야 할

교회와 교계 및 기독교 단체의 1인 가구 사역은 찾아볼 수 없다. 사역적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신학 학문 연구에서조차 직접적인 1인 가구 사역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바야흐로 1인가구시대이다.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본 연구자는 앞으로도 1인 가구 사역 방안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 본 연구자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의 학문적 연구뿐 아니라 1인 가구 사역 현장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 김난도, 전미영, 이향은, 이준영, 김서영, 최지혜. 『트렌드 코리아 2017』. 서울: 미래의창, 2016.
- 김환표. 『트렌드 지식 사전 3: 최신 키워드로 보는 시사상식』. 서울: 인물과사상사, 2015.
- 노명우.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고독한 사람들의 사회학』. 고양: 사월의책, 2013.
- 서정렬. 『1인 가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 이상화. 『나 혼자도 잘 산다-1인 가구 450만 가구, 나는 대한민국의 솔로다!』. 고양: 시그널북스, 2013.
- 이도영. 『페어 처치』.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 이준영. 『1코노미: 1인 가구가 만드는 비즈니스 트렌드』. 파주: 21세기북스, 2017.
-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 최인수, 윤덕환, 채선애, 송으뜸, 김윤미. 『2018 대한민국 트렌드』. 서울: 한국경제신문, 2017.
- Chizuko, Ueno. *Kiriu Minashita. Hicon Desuka, Sore Ga Nanika?!*. 조승미 역. 『비혼입니다만, 그게 어쩔다구요?!-결혼이 위험 부담인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파주: 동녘, 2011.
- McKnight, Scot. *Kingdom Conspiracy*. 김광남 역.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 내러티브와 교회의 비전과 사명』.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 Kazuhisa, Arakawa. *Chou Solo Shakai*. 조승미 역. 『초솔로사회: 2035년 인구 절반이 솔로가 된다』. 서울: 마일스톤, 2018.
- Klinenberg, Eric. *Going Solo: The Extraordinary Rise and Surprising Appeal of Living Alone*. 안진이 역. 『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다-1인 가구 시대를 읽어라』. 서울: 더퀘스트, 2013.
- 강은나, 이민홍. “우리나라 세대별 1인 가구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 234(2016): 47-56.
- 김미경. “1인 가구 시대 노후와 가족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위한 소고”. 「사회사상과 문화」 19-4(2016): 167-90.
- 김연옥. “1인 가구 시대의 도래: 특성과 생활 실태”. 「한국가족복지학」 52(2016): 139-66.
- 배숙경. “‘가정 내 학대’가 전체 노인 학대의 88%”. 「복지이슈 Today」 56(2017): 1-18.
- 오수연. “나홀로족 전성시대”. 「마케팅」 50-8(2016): 59-62.
- 유수현.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교회의 대응”. 「활천」 767-10(2017): 36-39.
- 이여봉.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52(2017): 64-77.
- 이은규. “21세기 한국교회를 위한 양육하는 공동체”. 「신학과 실천」 28(2011): 683-713.
- 정재영. “지역공동체 세우기를 통한 교회의 시민사회 참여”. 「신학과 실천」 22(2010): 107-36.
- 통계청 보도자료. “2016년 생명표” (2017.12.5).
- 통계청 보도자료. “2017 인구주택총조사” (2018.8.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인 가구 관련 자치 법규”  
<http://www.law.go.kr/lsOrdinAstSc.do?tabMenuId=tab2&query=1%EC%9D%B8+%EA%B0%80%EA%B5%AC>
- 연합뉴스. “고독사 막자…송파구, 50-64세 1인 가구 전수조사” (2018.1.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9/0200000000AKR20180109024800004.HTML?input=1179m>

[논평1]

## 강덕구 박사의 “1인 가구시대의 한국교회 사명”에 대한 논평

최승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 논문의 요약

1인 가구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현 시대의 사회적 상황을 교회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1인 가구 시대에서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어떤 사역을 실행해야 하는가? 강덕구 박사의 논문은 위의 질문들을 다룬다.

강덕구 박사는 먼저 1인 가구를 경제적 독립, 가족의 유무, 결혼의 유무에 상관없이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한 보도 자료를 통해 1인 가구의 수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매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1인 가구의 유형을 ‘지속성-한시성’과 ‘자의성-비자의성’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네 가지로 분류한다. 그 후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한구 사회의 변화를 다양한 문헌을 토대로 간략하게 설명한다.

강덕구 박사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땅에서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잃었다고 지적하면서 교회는 이 사명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고, 특히 1인 가구 시대라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명심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교회가 1인 가구를 위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먼저 1인 가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가 사역 계획 4원리(합목적성, 공통성과 개별성, 전인적 사역, 참여와 소통의 원리)와 사역 실천 4원리(전문성, 장기·지속성, 점진적 확장, 보완 및 협력의 원리)를 가지고 1인 가구 사역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사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덕구 박사는 1인 가구에 대한 실천신학적 연구와 실제적인 사역이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논문을 맺는다.

### 논문의 공헌

개인적으로 이 논문의 공헌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① 통계청의 자료를 사용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1인 가구의 수가 모든 연령층

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면서 한국교회가 1인 가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 ② 교회의 사명을 시대적 환경과 잘 연결하면서 1인 가구에 대한 사역은 교회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한다.
- ③ 1인 가구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가 신학-목회적 차원에서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생각하도록 한다.

### 질문과 제안

통계청의 보도 자료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보다 자세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비율의 경우 왜 강원도가 가장 높고 경기도가 가장 낮은가? 1인 가구의 비율이 연령별로 차이가 나는 사실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는가?

논문은 20-30대층에서의 1인 가구 수가 많다고 했는데, 이 연령층은 원래 1인 가구가 많은 층이 아닌가? 과거에 비해 20-30대에서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높아진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가? 아니면 과거와는 다른 삶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가? 논문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1인 가구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논문은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면 논문의 주장이 보다 명확해질 것 같다.

교회가 1인 가구에 대한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사람들을 분류하는 시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사람들을 분류하는데 있어 결혼을 중심으로 한다. 결혼을 안 한 이들, 결혼한 이들, 결혼했다 이혼한 이들, 사별한 이들 등. (결혼한 20대는 어떤 그룹에 소속되고, 결혼하지 않은 40대는 어떤 그룹에 소속되어야 하는가?) 1인 사역을 위해 결혼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교회의 전통적인 방법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강덕구 박사의 연구가 청년기에 특히 관심을 둔 것 같아 질문한다. 1인 가구 사역을 위해 교회는 결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들을 교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은 했다. 만약 오늘날 20-30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경제-사회적 이유 때문이라면, 오늘날의 기준에 자신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결혼이나 자녀출산을 거부하고 있다면, 교회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사역해

야 하는가? 홀로 사는 것을 편해하면서 1인 가구를 선택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옳다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들의 선택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가? 1인 가구 시대에서 교회가 단순히 시대의 산물(?)인 1인 가구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사역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문화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강덕구 박사의 논문은 아마도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다보니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곳들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사역을 논한 부분에 있어서 원리적인 부분은 간략하게 잘 설명했지만 구체성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1인 사역의 구체적인 예를 제안하거나 소개하면 좋겠다.

[논평2]

## “1인가구시대의 한국교회 사명”에 대한 논평

김대진 박사(고려신학대학원)

연구자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주소가 ‘1인가구시대’라고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한국 사회는 ‘1인가구시대’가 된 것이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향후에도 지속, 확대될 것이기에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현 시대에 대한 정확한 안목과 다음시대에 대한 합당한 예견 가운데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교회의 사명은 이와 같은 1인가구시대와 직결된다고, “교회는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가져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앞서 통계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년 1인 가구의 비율이 28.6%이고 이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과 교회 내에서도 1인 가구 비율이 30%에 육박한다는 뜻이다. 이는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1인 가구 사역과 무관하지 않음을 함의한다.”

연구자는 “1인가구시대의 오늘에 현존하는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의 구체적 실행은 1인 가구 사역이다.”라고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정의한다. 연구자는 “교회는 먼저 교회 내 1인 가구를 살펴보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으로, 그들을 사역의 주체로 세우는 사역을 해야 한다.”고 밝힌다. 또한 연구자는 2차원 8원리의 사역원리를 가지고 1인 가구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본 논문에서 주장한다.

### 논문의 공헌도

연구자는 중요 통계자료를 통해 ‘1인가구시대’라는 구체적인 용어로 우리사회의 현주소를 새롭게 진단한다. 그리고 한국교회 사역의 초점을 ‘1인 가구 사역’으로 상정함으로써 한국교회 가 주목해야 할 사역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논문에 대한 질문과 제안

질문1: 연구자는 “한국 교회와 사역의 현장에서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은 찾아

볼 수 없다.”고 하면서, 1인 가구 사역이 한국교회의 사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4인 가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역해왔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가구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역을 해왔는지 궁금하다.

논평자는 한국교회의 사역이 4인 가구 혹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4인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혹은 ‘어른예배 청소년예배 어린이예배’등 철저하게 1인 개인 중심의 교회생활을 하도록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질문2: 연구자는 “1인가구시대의 한국교회 사명”이 1인가구 사역이라고 단언한다. 약 30%의 1인가구 사역이 한국교회의 사명이라면 나머지 70%의 가구유형은 사명에서 빠지는 것인지? 궁금하다.

1인가구는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돌보아야 하는 여러 대상들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한국교회의 사명을 논하기 위해서는 1인가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1인가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1인가구가 성경적으로 합당한 가구의 모습인가? 등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제안

연구자가 서론에서 “본 논고는 ‘1인가구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실제적인 1인 가구 사역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 먼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주소가 ‘1인가구시대’임을 살펴보고 시대에 따른 교회의 사명을 논하겠다. 그리고 교회의 1인 가구 사역을 고찰하겠다.” 밝혔다.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1인 가구 사역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는 연구자의 연구목적은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일반적 가정사역을 포기하고 1인 가구 사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에서 최근 NAP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어 보인다.

또한 ‘교회의 1인 가구 사역을 고찰’하겠다고 한 연구 목적은 본 논문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1인 가구 사역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지?, 어디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 보인다.

연구목적을 제시했으면 최소한 언급된 그 목적은 본 논문에서 어느 정도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 설교에 대한 소고”



김태범 (합신대 박사과정)

### 1. 들어가는 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설교에서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 실천적 규범을 발견하려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20세기 초 A. R. Bond(1910)의 *The Master Preacher*로부터 최근 Tony Albert Darling(2010)의 *Connecting Like Jesus: Practices for Healing and Preaching*에 이르기까지 여러 저서들이 복음서가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도 사역과 설교로부터 현대 설교자들에게 지침이 될 수 있는 실천신학적 규범을 소개하려고 시도했다<sup>1)</sup>.

이런 시도에 대해 모든 이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John Dominic Crossan은 복음서의 일차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분 자신을 매개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런 시도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사역을 믿고 따라야 할 복음전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실천적 목회 원리를 추출할 수 있는 원천 자료로 간주하는 것은 복음서 저자들의 원래 의도에 벗어난다는 것이다<sup>2)</sup>. 또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간 설교자가 신인(神人, God-man)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흉내 내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sup>3)</sup>.

그렇다면 현대의 설교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로부터 배울 수 없는가? 예수님의

---

1) A. R. Bond, *The Master Preacher* (New York: American Tract Society, 1910). 이승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상호본문성과 설교학적 함의”, 『신학정론』 36/1 (2018년 6월), 462. 재인용.

2) John Dominic Crossan, *The Dark Interval: Towards a Theology of Story*, (Niles, III.: Argus Communications, 1975) 이승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상호본문성과 설교학적 함의”, 462. 재인용.

3) C. Richard Wells & A. Boyd Luter, *Inspired Preaching: A Survey of Preaching Found in the New Testament*, 이승진 역 『신약성경과 설교』 (서울: CLS, 2016), 23.

설교는 현대의 설교자들이 적용할 수 있는 설교학적 규범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가? 복음서가 현대의 설교자들에게 규범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실천적 규범을 제공하기 위해 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아니더라도 그 속에 오늘날 따라야 할 규범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참 인간이시었기에 우리는 '영감어린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는 데 유익한 많은 것들을 그의 '신적인 영감으로 말미암은 설교'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sup>4)</sup>.

본 소고에서 다룰 '나사렛 회당 설교'(눅 4:16-30)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사역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사렛 회당 설교'로 처음 시작된 회당에서의 사역은 이후 예수님의 사역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사도들에게까지 그 전통이 이어진다. 특별히 '나사렛 회당 설교'는 예수님의 실제 설교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며,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설교'와 더불어 회당에서 이루어진 실제 설교에 대한 유이(唯二)한 기록이다<sup>5)</sup>.

우리는 '나사렛 회당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중하신 말씀의 예전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 '나사렛 회당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을 인용하신 방식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준다. 나아가 '나사렛 회당 설교'는 복음서가 본질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정체성을 드러내 준다.

본 소고에서 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회당 설교'에 나타난 예전적 요

4) C. Richard Wells & A. Boyd Luter, 『신약성경과 설교』, 37.

5) C. Richard Wells & A. Boyd Luter, 『신약성경과 설교』, 145. 조엘 그린도 누가복음 4:16-30절이 지니고 있는 의의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1)이 구절들은 누가복음 4:14-15절에 요약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2) 이 구절들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있어 첫 번째로 기술된 사건(narrated episode)이다. (3)누가복음의 여러 곳에 예수님의 회당 사역이 기술되어 있지만,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에 대한 보고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4)누가는 이 구절들을 누가복음 3:21절부터 시작되는 구절들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 구절들은 성령의 활동과 그 활동의 결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정체(identity) 및 그의 사역의 본질을 다룬다. (5)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후의 요약들(눅 7:21-22; 행 10:38)은 이 구절들을 다시 참조한다. 그린은 누가복음 4:16-30절의 중요성에 대해 “누가가 자신의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데 있어, 그의 공적 사역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 전체, 따라서 누가-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결론 짓는다. Joel B. Green, *The Gospel of Luke*,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 1997), 207.

소와 그 선포된 메시지에 담겨있는 상호본문성을 고찰하고 그 속에 함축된 설교학적 규범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회당 설교의 예전과 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나사렛 회당 설교'의 전체 맥락과 구조 및 성격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인용한 방식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사렛 회당 설교'가 현대의 설교자들에게 시사하는 함의를 이끌어 낼 것이다.

## 2. 회당 설교에 나타난 예전적 요소 및 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초대 교회의 예배는 당시 유대교의 회당의 '말씀의 예전'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sup>6)</sup>. 유대교의 영향을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받을 수는 없으나, 회당 예배의 '말씀의 예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사도가 존중했던 것이므로 예전적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예수님은 히브리 문화에서 자라나셨기에 당시 유대 땅의 소년들이 그러했듯이 회당에서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당시 회당은 예수님에게 바람직한 설교와 교육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었을 것이다<sup>7)</sup>. 따라서 예수님이 물려받았던 랍비의 전통에는 어떤 “전형적인 설교와 가르침의 양식”도 포함되었을 것이다<sup>8)</sup>.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회당 예배에 참여하여 회당 예배의 '말씀의 예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 회당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 기간 중 주요 무대 중에 한 곳이었다. 예수님은 회당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셨다. 누가복음 4:16-30절에서도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눅 4:16).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것을 증거한다(마 4:23; 막 6:2; 눅 4:15; 요 18:20). 바울에게 있어서도 회당은 그의 활동의 중심지였다. 그는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회당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어 성경을 풀면서 복음을 전하였다(행 13:14, 14:1, 17:2; 17:10; 18:4; 19:8).

그렇다면 초대 교회의 예배에 상당한 영향을 준 당시 유대교의 '말씀의 예전'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당시 유대교 회당의 '말씀의 예전'의 실제적 모습이 누가복음 4:16-30절에 잘 나타나 있다. 누가의 이 기사는 회당 예배에 대한 신약성경

6) 이성민,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 설교 연구”, 『신학과 실천』 제 27호 (2011년 5월): 158.

7) C. Richard Wells & A. Boyd Luter, 『신약성경과 설교』, 120.

8) C. Richard Wells & A. Boyd Luter, 『신약성경과 설교』, 121.

의 유일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회당예배에 관한 기록이기도 하다<sup>9)</sup>. 게일 오데이(Gail R. O'Day)는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난 '말씀의 예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sup>10)</sup>.

예배 공동체의 한 사람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날에 읽어야 하는 예언서를 읽기 위해 서게 된다. … 본문은 그 당시 유대교 예배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 있었음을 분명히 증거한다. 성경일과 (lectionary)에 따라 예배 중에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공동체적이며 예전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누가가 그의 증언에 포함시킨 성경 본문이(이사야서) 낭독된 후에, 예수님은 전통적인 유대 교사의 자세로 자리에 앉으신다. 그리고 모여 있는 공동체에게 해설을 시작하신다.

여기에 나타난 '말씀의 예전'의 모습은 랄프 마틴(Ralph P. Martin)의 회당 예배에 대한 설명과 일치한다. 그에 의하면, 유대교 회당 예배에서 중심적인 요소는 율법(모세오경)을 낭독하고 강해하는 것이었다<sup>11)</sup>. '말씀의 예전'이 회당 예배의 중심이었다는 것이다. 대럴 벅은 좀 더 상세하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드린 회당 예배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재현한다<sup>12)</sup>.

모세 오경은 매 안식일마다 봉독되었다. 그리고 때때로 선지서가 모세 오경 다음에 봉독되기도 했다. 성경을 봉독한 다음,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해설해 주도록 어떤 사람이 초빙되었다. 회당 예배에 열 명 이상의 남자 성인이 참석했다면 자격을 갖춘 어떤 남성이 이미 봉독한 성경 구절들에 대해 또는 새로운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해설할 수 있었다. 16절에서 예수가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에게 성경 본문에 대해서 해설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

9) C. Richard Wells & A. Boyd Luter, 『신약성경과 설교』, 145.

10) Gail R. O'Day, ““Today this word is fulfilled in your hearing”: A Scriptural Hermeneutic of Biblical Authority,” *Word & World* 26:4(2006), 358. 이성민,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 설교 연구”, 165. 재인용.

11) Ralph P. Martin, *Worship in the Early Church*, (Westwood, New Jersey: Fleming H. Revell Company, 1964), 66.

12) Darrel L. Bock, *Luke 1:1-9:50(BECNT)*, 신지철 역 『BECNT 누가복음 1』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588.

수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대해서 회중에게 가르친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프타라'(선지서 봉독)라고 불렀다.

예수 그리스도는 회당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시면서, 회당 예배의 '말씀의 예전'의 중심성을 존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설하는 '말씀의 예전'을 준수하며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의 전통을 무너뜨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다. 유대교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성경이 계시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던 것이다.

### 3. '나사렛 회당 설교'의 구약 인용에 대한 고찰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전통적인 '말씀의 예전'을 존중하셨지만, 그분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청중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었다. '나사렛 회당 설교'도 청중들의 부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1) '나사렛 회당 설교'의 개요, 전후 문맥 및 성격

먼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나사렛 회당 설교'와 관련된 누가복음 4:16-30절의 개요와 전후 문맥 및 성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① 개요

누가복음 4:16-30절의 개요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설교가 어디에서 끝나는가 하는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4:18-20절의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 4:22절에서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기이히 여겼다'고 짧게 진술하고 있어 설교가 끝났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리처드 웰스는 4:22절은 설교하고 있는 중에 나타난 청중의 반응을 누가가 일종의 주석으로서 삽입한 것이며, 따라서 4:23-27절은 설교의 종결부를 요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3)</sup>. 대럴 벅도 이러한 리처드 웰스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는 예수님의 설교가 전반부 및 설교에 대한 반응과 후반부 및 설교에 대한 반응이라는 두 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짝을 저자인 누가가 요약적 설명으로 덧붙인 도입 부분(4:16-17)과 결론

13) C. Richard Wells & A. Boyd Luter, 『신약성경과 설교』, 149-150.

(4:30)이 감싸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sup>14</sup>). 그가 제시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sup>15</sup>).

- a. 예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려고 해당 부분을 찾음(4:16-17)
- b. 예수님의 첫 번째 말: 이사야서를 읽고, 읽은 것에 대해서 설명함(4:18-21)
- c. 첫 번째 말에 대한 반응: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놀라며,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질문함
- d. 예수의 두 번째 말: 예수는 한 가지 속담을 인용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거부한 실례(實例)에 대해서 말함(4:23-4:27)
- e. 두 번째 말에 대한 반응: 나사렛 사람들이 몹시 화가 나서 예수에게 적대감을 드러냄(4:28-4:29)
- f.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감(4:30)

## ② 전후 문맥

누가복음 4장 1-13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요단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사십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갈릴리에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신다. 누가는 4장 14-15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배경으로 하여 4:16절이 시작된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신 것이다. 4:16-30절은 나사렛 회당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설교와 관련된 시종(始終)을 제시한다. 이 나사렛 회당에서의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 누가는 예수님의 공적 출현과 공적 사역의 시작을 선언한다.

## ③ 누가의 보고(report)의 성격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누가복음 4:16-30절의 기록이 실제로 전해진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점이 명확해져야 이 단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락에 나타나는 해석상의 난제들은 전후 맥락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사실과 주로 관련이 있는데, 설교의 상황을 정확히

---

14) Darrel L. Bock, 『BECNT 누가복음1』, 582.

15) Darrel L. Bock, 『BECNT 누가복음1』, 581.

이해를 하면 그 실마리가 풀린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밝히는데 리차드 웰스가 사도행전의 설교와 관련하여 동일한 문제를 다루면서 한 제안이 도움이 된다. 그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들이 자구(字句) 그대로를 옮겨 적은 원고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는 이 설교들은 확일적으로 짤막한데 실제 설교는 이보다 훨씬 더 길었다고 단정한다<sup>16)</sup>. 그는 누가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와 관련해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드로아에서는 바울이 '밤중까지' 설교하여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지기까지 하였다는 점을 그 예로 제시한다. 나아가 그는 누가가 초대교회 설교자들이 실제로 전했던 설교의 내용과 형식 모두를 그대로 보존하되 이를 요약으로 전해 주고 있음을 밝힌다. 대부분의 고대 저자들은 자기 작품에서 연설을 일부러 지어내지 않았다는 사실과, 자신을 면밀하면서도 신중한 역사가로 소개하는 누가의 주장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누가가 기록한 설교들은 실제 상황을 그대로 전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sup>17)</sup>. 그는 복음서도 문서로 축소된 사도들의 설교로 본다<sup>18)</sup>. 만약 우리가 리차드 웰스의 견해를 받아 들인다면 이 단락도 실제 설교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보존한 요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별 벽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한다. 이 단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짧게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다<sup>19)</sup>. 4:21-22절을 예로 들며, 그는 누가가 그 당시의 진행 과정을 요약해서 소개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누가는 여기서 단지 예수의 짤막한 선언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그러나 4장 22절에 의하면, 사람들이 모두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말을 했다는 것을 알려 준다. 또한 21절에서 누가는 예수가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한다. 곧, 이 표현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는 한마디 말보다 이사야서 본문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했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준다.

## 2) 예수님의 구약 인용 방식 1(4:18-21)

16) C. Richard Wells & A. Boyd Luter, 『신약성경과 설교』, 219.

17) C. Richard Wells & A. Boyd Luter, 『신약성경과 설교』, 219-220.

18) C. Richard Wells & A. Boyd Luter, 『신약성경과 설교』, 75.

19) Darrel L. Bock, 『BECNT 누가복음1』, 590.

리차드 웰스(C. Richard Wells)는 '나사렛 회당 설교'와 관련하여 네 가지 해석학적인 질문을 제시한다. 먼저 그는 예수님께서 왜 여러 본문들 중에서 하필 이사야의 이 본문을 읽으셨는가 질문한다<sup>20)</sup>. 이사야서 61:1-2절의 본문은 당시의 선지서 낭독에 관해 알려진 어떤 규례와도 쉽게 부합하지 않는다. 유대교의 성구집 목록에 이사야 61장은 들어 있지 않고, 예수님은 이 단락에 수록된 설교에서 이사야서의 두 부분을 인용하며 서로 결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sup>21)</sup>. 그는 이에 대해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 번째 가능성은 그가 자신이 '자라나신'(눅 4:16) 바로 그 동네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 회당장으로부터 그 날의 토라 강독과 하프타라(선지서) 낭독에 어울리는 본문을 자유롭게 읽을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sup>22)</sup>. 두 번째의 가능성으로 그는 제임스 샌더스(James Sanders)의 이론을 소개한다. 샌더스에 의하면, 이 특정한 본문은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경건한 유대인들 사이에 매우 널리 알려졌던 본문이었고, 예수님은 당시 청중과 즉각적인 '접촉점'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 설교를 듣고 초래될, 자신들의 '전통'에 대한 급진적인 전복(radical reversal)을 미리 준비하는 서문 격으로 이 본문을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어느 경우든 예수님께서 이사야 본문을 읽은 것은 예수님 자신의 선택이었고, 그 본문을 선택한 데에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1-2절의 본문을 읽으신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한 방식을 살펴 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구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으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본문을 수정하여 읽으셨기 때문이다. 핸드릭슨은 이사야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인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음과 같이 도표로 잘 제시하였다<sup>23)</sup>.

#### 이사야 61: 1,2 상반절과 누가복음 4: 18,19의 비교

히브리어 본문	70인경(헬라어)	헬라어 본문
1. 주 여호와와 그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20) C. Richard Wells & A. Boyd Luter, 『신약성경과 설교』, 145.

21) Darrel L. Bock, 『BECNT 누가복음1』, 598.

22) C. Richard Wells & A. Boyd Luter, 『신약성경과 설교』, 147.

23) William Hendricson, 『핸드릭슨 주석 누가복음(上)』, 김유배 옮김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9), 356-357.



2.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가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그가 나를 가난한 자에게 보내심은 복음 전파를 위함이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3.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함이며	
4.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전파하기 위함이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5. 갇힌 자에게 놓임(눈의 열림)을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함이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6.		놀린 자를 자유케 하고
7.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위의 표에서 히브리어 본문과 헬라어 본문을 비교하여 보면, 예수님의 이사야 인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는 구절이 빠져 있다. 둘째, “놀린 자를 자유케 하고”라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다. 이는 이사야 58:6절에서 온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예수님은 이사야를 인용함에 있어서 특정 구절을 생략하고 특정 구절을 추가한 것이다.

### 3) 구약을 인용할 때 수정을 한 이유에 대한 설명

그렇다면 왜 구약 인용 시 이러한 수정 현상이 발생하는가? 우선적으로 해석학과 관련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럴 벅은 누가가 이사야서의 본문을 다르게 표현한 어느 것도 이사야서의 기본적인 의미를 변경시키지 않는 다며 다음과 같이 매우 흥미로운 설명을 제시한다<sup>24)</sup>.

이와 같은 표현들은 누가가 예수가 회당에서 설교할 때 사용한 이사

24) Darrel L. Bock, 『BECNT 누가복음1』, 590.

야서의 본문을 요약해 주고 있다는 것을 가리킬 것이다. 왜냐하면 회당의 예배에서 구약 성경을 봉독할 때, 누가복음의 이 단락에서와 같이 두 본문을 결합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 단락에 제시된 예수의 말은 매우 짧게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이사야서 본문에 대해서 해설할 때, 예수는 이사야 61장과 58장의 해당 구절들을 모두 사용한 것 같다.

대럴 벅의 이 견해를 받아 들인다면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고 이를 해설할 때 58장을 인용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sup>25)</sup>.

한편, 루이드 보터는 해석학과 관련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더 나은 설명이 설교학적 입장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한다<sup>26)</sup>. 그는 신약성경에서 종종 인용구가 적절하게 수정된 사례들은 오늘날 설교자들이 메시지에 더 풍부한 색조와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해 인용하는 구절을 수정하는 것과 유비 관계에 있다고 제안한다. 그는 기억에 높은 비중을 두는 문화권에서 신약성경 저자들이 '기록된 설교문'을 써가는 중에 인용하고자 하는 구절에 대한 히브리성경의 표현과 70인경의 표현이 변갈아 떠올랐지만, 당장 참고할만한 보조 자료가 없는 상황을 가정한다. 이 경우 그 저자는 그것이 교리적인 요점이나 실천적 요점과 긴밀하게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저자는 아마도 적절하게 수정하여 암시적으로 인용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루이드 보터의 이러한 설명은 한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적어도 구약 성경을 수정하여 인용한 것이 인용하는 의도를 달성하기에 충분할 경우에만 그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구약을 인용하는 의도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불확실한 구절은 확인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 4) 상호 본문성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수사학적 의도

---

25) Darrel L. Bock, 『BECNT 누가복음1』, 598. 대럴 벅은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약 주후 1세기에 율법 봉독 이외에 성경 봉독 순서 목록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또한 4장 17절이 암시해 주듯이 예수가 봉독하기 원하는 본문을 스스로 선택했다면, 이사야서 61장에 대한 하프타라 봉독(선지서 봉독)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수는 이사야 58장의 내용을 끌어와서, 그 내용을 덧붙여서 해설했을 것이다.”

26) C. Richard Wells & A. Boyd Luter, 『신약성경과 설교』, 397-398.

구약 본문의 수정 인용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어떤 이유로 인용을 하였든지 예수님은 구약을 분명한 의도를 갖고 인용하셨다는 확신으로 우리를 이끈다. '나사렛 회당 설교'에서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수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사가 말씀을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인용하셨을까? 이승진은 그 동안 연구되었던 해석학적 공리와 구약의 전용 기법에 대한 연구를 평가하면서 이것들을 명백하게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시도는, 구약 본문을 인용한 신약 저자들의 인용 방식의 배후에 역사했던 성령 하나님의 해석학적인 관점을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파악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올바르게 지적하였다<sup>27)</sup>. 또한 크리스토퍼 스탠리(Christopher Stanley)도 사도 바울의 구약 인용을 고찰하면서, 인용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는 논증 전개에 일부 부분으로서 독자에게 실행하는 '발화 효과 행위'에 주목해야 함을 올바르게 지적하였다<sup>28)</sup>. 이러한 의미에서 존 오스틴(John Austin)의 화행론(speech act theory)은 신약 저자들의 구약 인용의 수사학적 의도를 파악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스틴은 의미의 기본 단위를 단어가 아닌 언어 행위(speech act)로 보고, 언어 행위를 (1) 단순 발화 행위, (2) 의미 수반 발화 행위, (3) 효과 수반 발화 행위로 구분한다<sup>29)</sup>. 설교를 언어 행위라고 한다면 설교의 내용은 의미 수반 발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의미 수반 발화는 우리가 말하는 내용과 관련되며 우리가 말하는 문장의 뜻과 지세 대상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한편, 효과 수반 발화 행위는 의미 수반 발화 행위를 통해 무언가 불러일으키는 것, 즉 의미 수반 발화의 작용력이다<sup>30)</sup>. 설교의 효과가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필자는 존 오스틴의 화행론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구약 인용의 수사학적 의도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존 오스틴의 화행론적 관점에서 바라 본다면 신약 저자들이 구약 인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는 구약 인용을 의미 수반 발화로서 분석하는 의미의 차원과 효과 수반 발화 행위로서 분석하는 효과의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27) 이승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상호본문성과 설교학적 함의”, 99.

28) Christopher Stanley, *Arguing with Scripture: The Rhetoric of Quotations in the Letters of Paul*, (New York and London: T & T Clark International, 2004), 20. 이승진, “‘Tota Scriptura’에 근거한 성경적 설교를 위한 상호본문성”, 『신학정론』 34(1) (2016년 5월): 330. 재인용

29) Kevin Vanhoozer,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 The Bible, the Reader, and the Morality of Literary Knowledge*, 김재영 역,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서울: IVP, 2003), 334.

30) Kevin Vanhoozer,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334.

의미 수반 발화로서의 예수님의 구약 인용은 인용문 전체에 비추어 수정된 부분들에 집중할 때 드러난다. 구약의 맥락에서 이사야 61:1-2절은 주 여호와와 영이 임한 '한 사람'의 소명에 관한 것이다. 미래에 등장할 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 된 자'를 자유하게 하며, '간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선포할 것이다. 한편, 예수님의 인용에 추가된 이사야 58:6b의 “압제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라는 구절은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포로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 사회에 퍼져 있던 사회의 약자들을 억누르고 있던 경제적 불평등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추가함으로써 예수님이 선포하는 '해방'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생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해'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즉,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인용을 통해 이사야 61:1-2절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소명이 '해방'과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21절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선언하심으로써 그 메시아가 자신이며, 자신이 이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히 하셨다. 결국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빛이 탕감되고 빼앗긴 땅의 권리를 다시 회복하며 노예가 풀려나는 때, 즉 이 땅에 샬롬(shalom)이 회복되는 희년이 자신에 의해 성취되었음을 선포한 것이었다<sup>31)</sup>.

효과 수반 발화 행위의 차원에서 '나사렛 회당 설교'를 어떻게 바라 볼 수 있을까? 리처드 웰스(C. Richard Wells)는 이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표현한다<sup>32)</sup>. 예수님의 설교의 효력은 어떠했는가? 청중은 예수님의 설교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는 과연 자신의 설교로 달성하려고 했던 것을 달성했는가?

예수님이 본문을 읽고 앉았을 때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눅 4:20). 청중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설교는 청중의 귀와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이사야의 글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였을 때 예수님의 설교는 두 가지 반응을 이끌어 내었다. 한편으로 청중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다른 한편 청중은 예수님의 가계를 들먹인다.

겉으로 볼 때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반응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었다. 우리가 고려할 만한 해석은 두 가지이다. (1) 어떤 이들은 청중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긴 것은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었다고 해석한다. 그들은 4:22절의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에서 '증언하다'를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구절을 “그들은 예수를 반대하는 증언을 하고 있었다”로 해석

31) C. Richard Wells & A. Boyd Luter, 『신약성경과 설교』, 151.

32) C. Richard Wells & A. Boyd Luter, 『신약성경과 설교』, 144.

한다<sup>33</sup>). 또한 '놀랍게 여기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thaumazo*)는 놀라움을 뜻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도 담고 있음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sup>34</sup>). 그들은 이러한 해석이 청중이 그의 은혜로운 말씀을 기이하게 여긴 후에 보인 반응, 즉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지적하는 부정적인 반응과 잘 조화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럴 벅은 이 해석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는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므로 이와 같은 해석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sup>35</sup>). (2) 대럴 벅은 핸드릭슨 등의 해석을 근거로 이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제시한다<sup>36</sup>). 이 해석에 따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 청중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 본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질문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청중이 보기에 예수님의 메시지의 탁월함은 그의 출신성분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37</sup>). 누가 청중의 반응을 요약해서 소개하였다는 점을 받아 들인다면 이러한 해석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워드 마샬도 이러한 해석이 가능함을 인정한다<sup>38</sup>).

어떠한 해석을 받아들이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청중의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 낸 것은 분명하다. 나사렛의 청중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만약 청중의 긍정적인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받아 들인다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은혜의 말보다 그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희망도 없고 힘도 없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희년의 전망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sup>39</sup>). 뒤 이어 나오는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4:23-27절)는 더욱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었다. 청중은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예수님의 설교는 성공적이었는가? 효과적인 설교를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하여 나사렛 사람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것인가?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는가? 복음서에 나타

33) Darrel L. Bock, 『BECNT 누가복음1』, 601-602.

34) C. Richard Wells & A. Boyd Luter, 『신약성경과 설교』, 150.

35) Darrel L. Bock, 『BECNT 누가복음1』, 602.

36) Darrel L. Bock, 『BECNT 누가복음1』, 602.

37) William Hendricson, 『핸드릭슨 주석 누가복음(上)』, 362.

38) I. Howatd Marshall, *The Gospel of Luke(NIGTC)*,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 1978), 186.

39) C. Richard Wells & A. Boyd Luter, 『신약성경과 설교』, 151.

난 신인(神人)이신 예수님의 예지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청중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알란 윈톤(Allan Winton)도 예수님이 청중에게 때로 지나치게 반응하였으며, 당시 청중의 소란스러운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하기 보다는 그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수사적인 무기로 잠언을 사용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sup>40)</sup>. 효과 수반 발화 행위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설교가 반응을 이끌어 내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반응이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에 따라 언어 행위로서의 설교의 실패를 결정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응을 요구한다. 그 반응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선택은 그 말씀을 듣는 청중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중은 반응할 수 밖에 없고, 그 반응에 의해 자신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포의 성격이 이와 같을 것은 예수님의 출생 시에 이미 시므온에 의해 예언된 바 있다(눅 2:34-35). 리차드 웰스는 예수님이 자신의 설교에 성공했는가에 대한 대답을 독자들에게 유보했다. 그러나 화행론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청중의 분명한 반응을 이끌어 냈다는 면에서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 설교'는 의미 수반 발화로서뿐만 아니라 효과 수반 발화 행위로서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4. '나사렛 회당 설교'가 지니는 설교학적 함의 및 나가는 말

'나사렛 회당 설교'는 어떤 설교학적 함의가 있을까? 많은 함의를 지니지만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세 가지만 정리하려고 한다.

첫째, 예수님은 성경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설하는 회당 설교의 예전을 존중하시고 '나사렛 회당 설교'를 수행하셨다. 회당 설교의 '말씀의 예전'을 존중하신 이와 같은 예수님의 태도는 설교의 중심이 말씀에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설교에서 말씀을 존중하는 것을 설교는 낭독과 해설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오해를 해서 안될 것이다. 나사렛 회당 설교는 구약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에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청중의 분명한 반응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둘째, '나사렛 회당 설교'에서 구약의 인용은 예언-성취의 모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예수님은 구약 예언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기대를 교정하려 하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그의 공생애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 사역의 성패는 그 이후 교회에 모습에

40) C. Richard Wells & A. Boyd Luter, 『신약성경과 설교』, 150.

의해 확증된다.

셋째, 예수님은 성경 본문을 설교하셨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설하셨다. '나사렛 회당 설교'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셨고, 이 본문을 이사야 58장을 가지고 해설하셨다. 이는 예수님의 설교 메시지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직 성경'(sola scriptura)과 '전체 성경'(tota scriptura)의 두 가지 설교학적 근거는 예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설교자는 이 원리에 충실하여 '오직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하며, 특정한 성경 본문을 해석하여 강해할 때 설교의 논리와 전개 과정이 '전체 성경'의 해석학적 기반 위에 진행되어야 한다<sup>41)</sup>.

본 소고(小考)에서 필자는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 설교'를 '말씀의 예전'과 '상호 본문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며 그것들이 지니는 설교학적 규범들을 살펴 보았다. 특히 존 오스틴의 화행론의 관점에서 이 설교를 분석해 보았다. 의미 수반 발화 행위의 차원에서 상호 본문성을 살펴 보며, '나사렛 회당 설교'는 구약에서 예언된 살롬이 회복되는 희년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한 것임을 살펴 보았다. 효과 수반 발화 행위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설교는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 내었다는 면에서 효과적이었음을 살펴 보았다. 소고(小考)가 지니는 특성으로 인해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것은 추후의 보다 상세한 연구를 통해 보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41) 이승진, “'Tota Scriptura'에 근거한 성경적인 설교를 위한 상호본문성”, 『신학정론』 34/1 (2016년 5월), 323-324.

[논평1]

## 김태범의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 설교에 대한 소고”에 대한 논평

채경락 (고신대)

### 논문의 요약적 이해

본 논문은 누가복음 4:16-30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 사역을 분석하여, 현대 설교자들을 위한 실천적 규범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자가 소개한 대로, 논문의 의도가 복음서가 기록된 원래 목적과는 조금 각도가 다르지만, 큰 틀에서 혹은 적용적인 차원에서 복음서 연구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림과 현대적 지침을 얻는 것도 충분히 타당할 것이다.

논자는 누가복음 4:16-30에 주목한 이유에 관하여, 이것이 예수님의 공사역이 시작된 시점의 설교이고, 또한 예수님의 실제 설교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기 때문이라고 소개한다. 여기서 유일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설교가 이루어진 정황과 형식을 소개하는 유일한 본문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비유 혹은 비유 설교도 많이 나오고, 산상수훈도 기록되어 있으니 말이다.

논문은 내용 면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설교적 예전에 대한 분석과 예수님의 설교 내용에 대한 분석이다. 논자의 언어를 그대로 옮겨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회당 설교’에 나타난 예전적 요소와 그 선포된 메시지에 담겨 있는 상호 본문성을 고찰하고, 그 속에 함축된 설교학적 규범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예전에 관해서 논자는 예수님이 유대 회당의 말씀의 예전을 존중하셨음에 주목한다. 회당에서는 성서일과에 따라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읽고, 말은 사람이 해설을 하는 형식으로 예배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은 그 형식을 그대로 존중하셨다. 이런 형식의 말씀의 예전을 예수님이 창출하신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것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존중하셨다는 점을 현대 설교자들도 참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교 내용에 있어서, 논자는 먼저 누가 기록한 예수님의 설교의 구조를 살피는데, 설교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청중의 반응이 따라 나오는 구조로 기록되었다고 정리한다. 또한 분량 면에서 이미 짐작할 수 있지만, 누가의 기록은 예수님의 설교 전문이 아니라 일종의 요약이라고 이해한다.

논자에 의하면, 예수님이 읽은 본문이 당시 전통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우선은 이사야 61장은 유대인의 성서일과에 포함되지 않았고, 또한 58:6을 발췌하여 결합하였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다. 본문 구성 자체가 설교자 예수님이 의도성을 갖고 조합한 결과물로 이해한다.

나아가 논자는, 존 오스틴의 화행론을 도구로 예수님의 낭송과 설교에 담긴 수



사학적 의도를 분석한다. 먼저 의미 수반 발화 측면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선포하는 해방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구약 본문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고 분석한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부분이 빠지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가 삽입되었는데, 이는 메시아 사역의 방점이 심판보다 은혜 사역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이해한다. 효과 수반 발화 측면에서는, 비록 예수님의 설교가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할만한 거친 반응을 유발했지만, 청중의 강력한 반응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설교였다고 평가한다.

### 논문의 의의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하여 현대 설교자들을 위한 실천적인 규범을 발굴하려는 시도 자체가 의의가 있다. 개혁신학은 여타 신학 분과와 마찬가지로, 실천신학의 토대 역시 성경에 두기를 강조한다. 실천신학의 특성상 현장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을 떠나 인간의 경험이나 실용성에 함몰된다면 건강한 실천신학을 세우기는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논자가 시도했듯이, 설교 영역에도 성경적인 원리를 추구하고, 특히 예수님의 설교 실천에 주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주의할 점은, 예수님의 설교를 인간 설교자가 본받을 수 있는지, 혹은 인간 설교자가 예수님의 설교를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다. 예수님의 설교 방식과 바울의 설교 방식을 구분하고, 둘 중에 어느 길을 현대 설교자가 좇아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꽤 선명하게 갈린다. 서론부에 논자가 간략하게 정리했지만, 이에 관한 충분한 논의 위에 접근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현대적인 화행론을 도구로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한 것도 큰 의의가 있다. 설교는 설교문에 제한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청중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건이다. 단순 구조 분석을 넘어서 의미 수반 발화와 효과 수반 발화적 측면에서 찬찬히 분석하고 있다. 예수님이 구약 본문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한 의도성을 가지고 조합적인 변형을 주어 선포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비록 부정적인 반응이었지만 그 반응 자체가 예수님의 설교가 성공적이었음도 잘 보여준다.

결론부에 정리한 예수님의 설교가 가지는 현대적 의의도 현대 설교자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회당 설교의 예전을 존중함으로써 설교(혹은 예배)의 중심을 말씀에 세웠다는 점, 둘째는 예수님의 구약 인용이 예언-성취 모델을 분명하게 제시했다고 정리하고,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의 설교가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의 원리를 실천하고 있다고 정리한다. 말씀 중심의 예배, 예언-성취 모델의 성경 해석,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의 원리, 이 셋은 현대 설교자들이 중시해야 할 설교적인 원리로 판단된다.

## 논문에 대한 질의

논문에 대한 이해와 논자의 추후 연구를 위해 질문 겸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결론부에서 정리한 내용이 논문의 본론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결론에서 예수님의 설교적 특성으로 그리고 현대 설교자들이 좇아야 할 원리로 제시한 세 항목이, 그 자체로는 큰 의의가 있지만, 그것이 논문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 예수님이 회당 설교 예전을 존중함으로써, “설교의 중심이 말씀에 있어야 함”을 보여주었다고 정리했는데, 본론에서 이 내용에 대한 언급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의 구약 인용이 예언-성취 모델을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론에서 크게 논의되지 않았고,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의 원리가 예수님의 설교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결론부의 주장은 본론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에 대한 요약이 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둘째, 예수님이 회당의 예전을 존중하신 것이 ‘적극적인 존중’ 혹은 후대 설교자를 위한 ‘추천’의 성격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 대한 ‘소극적 수용’이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면 좋을 듯하다. 회당 예전을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으로 구분하려면, 이 예전에 대한 예수님의 보다 적극적인 동의가 확보되어야 할 듯하다. 예수님은 회당에서만 설교할 것이 아니고 들판에서도 말씀을 선포하셨다.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말씀을 전한 일도 있다. 상황에 따라 적응하시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회당 예배가 보다 공식적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작은 논문의 분량에 너무 많은 이슈가 다루어진다는 느낌이 있다. ‘말씀의 예전’ 하나로도 큰 주제가 될 수 있을 듯하고, 화행론적 분석은 더욱 그러하다. 예수님의 설교에 나타난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 주제도 묵직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깊은 분석을 위해 논문의 이슈 자체를 좁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직하다. 논자가 마지막에 언급한대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것이 추후에 상세한 연구를 통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논평2]

##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설교' 소고(小考)를 읽고

허 찬 (백석예술대학교)

본 논문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설교”들 중 오늘 날의 현대 설교자들에게 적용되어 가르쳐질 수 있는 실천적 규범과 교훈들을 발견하고자 시도되었다. 만일 그런 중요한 점들이 본 연구에 의해 발견된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어떤 형태로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논문의 저자는 이 질문에서 전체적인 논문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연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중에서 특별히 나사렛 회당 설교 (눅4:16~30)에 주목하면서 그 설교가 가지는 의의와 위치를 강조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인용하신 방식과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 또한 예전적 요소, 선포된 메시지의 상호 본문성을 고찰하고 그 속에 함축된 설교학적 규범을 이끌어 내는데 이 논문의 구체적 목적이 있다. 필자는 연구자의 글을 읽고 논문이 말하고 있는 바를 간략히 정리한 후, 느껴진 점들과 제안할 것들 몇가지를 논해 보겠다.

### (1) 논문이 드러내는 핵심

첫째, 연구자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행하신 설교의 예전적 의미와 그 분의 태도를 논한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교육 받고 자라셨을 것이기에 랍비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형적인 설교와 가르침의 양식”을 존중하셨던 것으로 지적한다. 예수께서는 어느 지역에 이르셨을 때에든지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 예수께서 하신 방식을 따라 그렇게 행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가진 전통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보여 주셨다고 한다.

둘째, 연구자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나사렛 회당설교의 구약인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예수님의 설교방식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서 유대교의 성구목록 집에 들어있지 않은 이사야 61장을 선택하여 읽은 의도와 그 본문을 또한 수정하여 읽은 (특정구절은 생략하고 특정구절은 추가함-이사야 58장) 것을 예수께서 설교자로서 더 풍부한 색조와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셋째, 연구자는 이런 구약본문의 수정인용은 예수께서 수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신 것이라 한다. 여기서 연구자는 존 오스틴의 화행이론(speech-act theory)을 사용하여 설교를 “언어행위”로 설교의 내용을 “의미수반 발화행위”로 설교의 효과

를 통한 반응을 “효과수반 발화행위”로 대비시킴으로써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 설교의 구약인용 방식에 대한 수사학적 의도를 탐구하고 있다.

## (2) 생각해 볼 점과 제안

첫째, 본 논문은 설교자들의 모범으로서의 예수님이 하셨던 회당 설교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존중하셨던 예수님의 겸손함을 통해 오늘날의 설교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훈을 소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자들의 모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설교학적 입장에서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그는 하나님 자신이시오, 계시적 존재 자체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연구자 본인도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본 논문은 그 편견들을 극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예수께서 회당의 말씀예전을 존중하신 태도는 회당 내의 분란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연구자는 지적한다. 그러나 이는 연구자가 설명한 전체성경(Tota Scripture)의 맥락에서 보자면 설교자들이 배워야 할 겸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메시아’로서 바라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예수님의 구약 인용방식을 비교 분석하는 헨드릭슨의 “이사야 61:1~2과 누가복음 4:18~19의 비교표”에서 본문들을 상호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 각 본문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굵은 글씨로 표시할 것을 제안한다. 그로 인해 독자들로 하여금 차이점과 공통점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한다면 좀 더 쉬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면의 제한이 있겠지만) 원어들을 삽입한다면 좀 더 풍성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설교자로서의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신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며 존 오스틴의 화행이론을 소개하는 시도는 언어/해석학적 측면에서 참신한 시도로 여겨진다. 이사야 말씀에서 예언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중들에게 주어진 반응이 설교에 대한 완성으로서 주어진다라고 연구자는 정리하며 이러한 시도는 설교자들에게 이채롭게 느껴진다.

넷째, 본 논문은 최근 신학정론(2108년 6월호)에 실린 이승진의 논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상호본문성과 설교학적 함의”라는 논문의 많은 영향을 받은 듯하며 전체적인 구성과 전개에 있어서 유사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승진의 논문은 사도행전에 등장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구약인용 방식을 연구했다면, 연구자의 논문은 예수님의 회당설교에 대한 구약인용 방식을 연구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자

는 C. Richard Wells & A Boyd Luter의 “신약성경과 설교”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으며, 또한 본문에 대한 분석과 해설에 대하여도 Darrel L Bock과 Hendricson의 “누가복음 주석” 등의 다소 제한된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불필요하게 많은 주석서들을 참고할 필요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권위 있는 주석서들을 좀 더 다양하게 인용했다면 연구의 객관성이 더욱 뒷받침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한참 박사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를 통해 누가복음 4장에서의 “나사렛 회당 설교”에 대한 문제제기와 예수님의 구약인용 방식 연구를 통하여 참신한 시도를 접할 수 있어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